

1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결을 떠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가장 큰 슬픔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결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 가장 충직한 전우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치시였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

대한 귀감을 창조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시였다.

정치의 대가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민족최대의 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선군정치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 실현되는 6.15 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어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비상히 높이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곁을 함께 하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초강도의 현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것처럼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지반을 다져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에게는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며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을것이며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며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온나라에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실현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조성된 정세는 준엄하지만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조 선 로 동 당 중 앙 군 사 위 원 회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각

주체 100(2011)년 12월 17일

## 국 가 장 의 위 원 회 공 보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깊은 경모의 마음으로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린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를 금수산기념궁전에 정중히 안치한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주체100(201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하며 주체100(2011)년 12월 20일부터 27일사이에 조객들을 맞이한다.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를 바래우는 영결식은 주체100(2011)년 12월 28일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한다.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는 주체100(2011)년 12월 29일에 진행한다.  
평양시에서 중앙추도대회가 거행되는 시각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평양시와 각 도 소재지들에서 조포를 쏘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3분동안 묵도를 하며 모든 기관차, 선박들에서 일제히 고동을 울린다.
5.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조의행사를 진행하며 평양시에서 중앙추도대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각 도, 시, 군들에서 추도식을 진행한다.
6. 애도기간에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조기를 띄우며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7.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한다.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의식 엄숙히 거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뜻밖의 비보에 접하여 온 나라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2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경희동지, 김영춘동지,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강석주동지, 변영립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김락희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측동지, 김창섭동지가 조의식에 함께 참가하였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상실의 아픔이 차넘치는 조의식장인 금수산 기념궁전은 승엄한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는 꽃속에 정중히 안치되어있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 어리여있는 붉은 기폭이 덮여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며 끝없이 존경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만민의 아버지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며 근엄하시였다.

령구앞에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다가 너무도 일찌기 서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생을 보여주는 《1942—2011》이라는 년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함께 표기되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무궁번영할 행복을 위해 선군혁명천만리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시며 헌신분투하여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올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전장과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공화국영웅 및 로력영웅메달들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옆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옆에는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록해공군 및 로농적위대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아버지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장내는 조국의 룡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야전복차림으로 한평생을 바쳐오시며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아버지장군님을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장구하고도 간고한 기간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사와 인류 령사에 영원히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룡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치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와 추모의 마음이 굽이치는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전에 묵상하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는 력사적인 변혁의 시기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거하신것이 너무도 절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아 가슴치며 흐느껴우는 참가자들은 령구결을 떠날줄 몰랐다. 조의참가자들은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이신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빛내이며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을것이며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갈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원들,

조선인민군 주요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2 월 24 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원들, 조선인민군 주요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커다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 결연히 펼쳐나선 력사적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 뛸을 맞이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인 백두산총대혈통이 곳곳이 이어졌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총대에 의하여 변함없이 줄기차게 전진해갈수 있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가 모셔져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는 꽃속에 정중히 안치되어있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 어리어있는 붉은 기폭이 덮여있었다.

령구앞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생을 보여주는 《1942—2011》이라는 년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함께 표기되어있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올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전장과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공화국영웅 및 로력영웅메달들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들이 놓여있었다.

조의식장에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인민군 장병들, 각계총인민들,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이 보내온 많은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옆에는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및 로동적위대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원들, 조선인민군 주요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구가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장내는 조국의 룡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기 위해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야전복차림으로 한평생을 바쳐오시며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백두산총대신념, 총대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시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고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추모의 마음이 굽이치는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고 맹세의 열기로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령전에 묵상하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 가장 훌륭한 군대로 건설하시고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위용떨치게 하여주시였으며 자기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어엿한 혁명무력의 지휘성원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서거하신것이 너무도 절통하여 쏟아지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참가자들은 20 성상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멸의 령군업적을 생명선으로 삼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동지의 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감으로써 사회주의조국과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을 총대로 군건히 담보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의 풍모를 완벽하게 갖추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군대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영결하는 의식 엄숙히 거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영결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강철도 녹일 불같은 정력으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상실의 아픔으로 산천초목도 몸부림치고있는 때에 어버이장군님과 영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애의 시각을 맞은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슬픔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구를 바래우는 영결식이 거행되는 금수산기념궁전은 커다란 슬픔과 비애에 잠겨있었으며 조기가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령구발인에 앞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어버이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령전에 묵상하시고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는것이 너무도 비통하여 가슴치며 울고있는 전체 군대와 인민들의 마음을 안으시고 어버이장군님의 령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가는 뜨겁게 젖어있었다.

이어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였다.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경희동지, 김영춘동지,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강석주동지, 변

영립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김락희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문경덕동지, 주구창동지, 우동측동지, 김창섭동지를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영결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인민군장병들, 각 도 대표들, 각계층 군중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기 위해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모여있었다.

영결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및 로농적위대 의장대, 군기종대가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군기종대의 호위를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를 모시고 영결식이 거행되는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에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및 로농적위대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결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령구차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및 로농적위대 의장대와 군기종대앞을 지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차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의 동행하에 어버이장군님과 영결하기 위하여 수백만 각계층 군중들과 인민군장병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의 벗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는 거리로 향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중첩되는 난판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력사적변혁이 이룩되고있는 시기에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군대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잃은 최대의 비감이 어려있었다.

해빛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환하게 웃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진 차를 앞세우고 령구차가 나타나자 통절하고 애절한 울음소리가 터지고 어버이장군님을 절절히 부르고부르는 웨침소리가 하늘땅에 가득 차넘치였으며 거리는 삽시에 눈물의 바다로 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령구차행렬은 룡흥네거리로부터 혁신거리, 영웅거리, 천리마거리, 통일거리, 청년거리, 문수거리, 평양학생소년궁전 앞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 승리거리, 개성문거리에 이르는 100 리 연도를 누벼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는 어버이장군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가슴치며 목메어 흐느끼는 수백만 평양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눈물의 바래움을 받으며 령구가 안치될 장소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에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및 로농적위대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결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되고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및 로농적위대 의장대, 군기종대가 경애하는 장군님과의 영결의 시각을 앞두고 령구에 엄숙히 경례를 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며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구를 안치하는 시각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21 차의 조포, 조총을 쏘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여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및 로농적위대 의장대, 군기종대의 분별행진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통을 멈추었으나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더불어 조국청사에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영결식이 끝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며 사회주의조국방우에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자 할것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붉은기 휘날리는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충정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중앙추도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알리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진 순간부터 온 나라 천만군민은 절통함과 비애에 곡성을 터치고 피눈물을 쏟았으며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었다.

해외동포들과 남녘동포들, 세계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 진보적인민들이 화환과 조전을 보내오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세계가 비분에 잠기고 온 겨레와 인류가 우리와 슬픔을 함께 나눈 지난 애도기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왔는가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한 날이었다.

12 월 29 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 김일성경기장,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4.25 문화회관,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곳곳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기 위하여 모여온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차고넘치였다.

추모의 광장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다가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불세출의 천출명장이신 어버이장군님을 잃은 슬픔과 비애의 바다에 잠겨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리방선조소들과 나라의 서북단으로부터 동해천리, 산간외지에 이르는 조국땅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종횡무진하시며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고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추억하였다.

중앙추도대회가 거행될 김일성광장은 승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으며 기발게양대에는 조기가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추도대회 주석단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광장주변 건물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자!》 등의 구호들이 드리워져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오극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 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 부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김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우동측동지, 김창섭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초대석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항일혁명투사, 혁명렬사유가족들, 연고자들, 비전향장기수들, 각 도대표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또한 재중항일혁명투사,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일행들, 총련의 조의대표단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조의방문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조의방문단들, 해외동포들,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공동대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나와있었다.

주조 각국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추도대회시작을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묵도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추도사를 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인민군대를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가,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용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확증하시고 우리 조국이 세기를 이어 **김일성**조선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하여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처럼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탁월한 선군령도로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인민의 천만가지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초강도현지지 도강행군으로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의 한생이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추도대회 참가자들은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강성부흥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오늘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중양추도대회는 《인терна쇼날》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21 차의 조포가 울리는 가운데 추도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여 묵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아버지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당과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며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045 호

주체 100(2011)년 12 월 19 일

##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김 정 일 동 지 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성상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 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결출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며 혁명활동의 전로정을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당과 혁명,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적재부로 빛내이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수령님의 불멸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핵억제력을 보유한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념원대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나아가는 6.15 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한 정의의 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초강도의 현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파로로 하여 열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참으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비상한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인 한생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 1 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추도시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전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하늘을 가리우는 조기와  
심장을 어이는 저 추도곡을  
정녕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처럼 인자하신 우리 운명의 아버이를  
피눈물속에 이렇게 바래워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한평생 인민을 위해  
온넛을 불태우시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인민을 남겨두고  
어이 가실수 있단 말입니까

인민은 나의 하늘이라고  
인민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눈도 바람도 차지 않다고 하시며  
이 나라 험한 령, 험한 길 다 넘고 걸으시더니  
어이하여 그 불같은 걸음을 멈추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정력에 넘치신 그 모습을 뵈오며  
우리 그리도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그 기쁨과 행복이  
피눈물로 바뀔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늘이 낸 전설의 위인이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마음  
세월에 새기고  
하늘에도 닿았으련만  
우리 마음 그리도 몰라주었으니  
그 하늘이 무심합니다  
그 세월이 무정합니다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시여

이 세상 진리를 다 깨우쳐주시고  
이 세상 갈길을 다 밝혀주시면서도  
자신의 신상에만은  
자신의 신상에만은  
왜 그리도 무심하셨습니까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한평생 바람찬 한지에 계시며  
인민들에겐 행복의 락원을 안겨주시고  
우리결을 떠나실 때조차  
눈보라속을 달리는 야전렬차에 계셨으니  
그렇게 해야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되었습니까  
아, 아 절통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도 억이 막혀  
언땅을 뜯으며 언땅을 두드리며  
—아버지,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됩니다  
오열을 터치는 자식들의 눈물에  
12월의 빙설이 다 녹아내립니다

빨찌산의 아들을 잃은 비분의 눈물에  
백두산고향집추녀의 고드름이 녹아내립니다  
한평생 빨찌산강행군길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오직 혁명을 위해 걸어오신 그 자욱자욱에  
인민의 피눈물이 고입니다

정말 따스했습니다 그 품은  
세월의 모진 바람 휘몰아쳐도  
그 품에 안겨서는 추운줄 몰랐고

시름과 걱정을 몰랐습니다  
정말 마음 든든했습니다  
그 손길 우리가 잡고있어  
생활이 어렵고 부족한것이 있어도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이 세상 한복판에 뿔뿔이 세우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게  
깃뻗혀서 피흘리며 울지 않게  
심혈을 바쳐 일떠세우신 핵보유국의 위력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은  
후손만대 우리 민족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신  
장군님의 한평생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 나날들을 생각하면  
장군님 쉬신 날은 하루도 없어  
가슴이 더 아프고 찢어집니다  
생의 마지막 그날에도  
이제 설을 맞게 될 인민들이  
명절을 잘 쇠게 하자고  
그토록 마음을 많이 쓰시던 우리 장군님

한생을 초강도강행군으로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불태워오신분이어서  
우리 지금까지 한순간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그리도 간절히 바라고바랐건만  
아, 그 순간마저 인민에게 다 바치고 떠나셨으니  
그런분은, 그런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한초한초  
헌신의 그 한평생을 다 헤아려보면  
이 땅에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만 있고  
자신을 위한것은 남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으십니까  
장군님의 나라에  
수천만의 자식들이 살면서도  
아버이의 동상이 없다니 웬말이냐고  
구만리창공에 메아리치는  
절통한 인민의 저 목소리를

세계는 봅니다  
이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불멸하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대돌이 아닌 인민의 심장속에  
자신의 동상을 세운 위인은 없습니다

중중첩첩 고난과 시련을 헤쳐넘어  
우리 인민을 강성국가의 문앞에 세워주시고  
이제 수령님 100년사앞에 열어제길  
력사의 문고리를 쥐신채  
조용히 심장의 박동을 멈추신 장군님

아,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런 기적은 세상에 없습니까  
그런 기적이 있다면  
그런 기적을 안아올수만 있다면  
하늘도 땅에 끌어내리고  
천만심장이 지구라도 들어올릴것입니다

세월과 무한대의 공간도 그 품에 있고  
흐르는 력사도 그 손길에 있어  
언제한번 생각해본적 없었습니다  
그 품없이 살수 있다고  
그 손길을 놓고 한치 길을 걸을수있다고

무엇으로 우리 입은 상실의 아픔을 헤아릴수 있  
겠습니까  
인민은 아버이를 잃었고  
혁명은 령도자를 잃었고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호자를 잃었습니다

력사는 조종간의 타수를 잃어  
그 흐름을 멈추었습니다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원로  
불세출의 천출명장을 잃어  
세계정치무대는 빛을 잃었고  
인민은 태양을 잃어 이 행성이 어두워졌습니다

불가항력의 사상과 힘으로 지구를 움직이던  
이런 위인의 걸음을 누가 멈출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당의 붉은기예 숨결을 주고  
백두산혁명강군을 키우신 그 걸음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광풍을 짓부시며  
맑은 한낮에도 번개를 치고 우뢰를 울리던 무적  
의 그 걸음

이 세상 그 무엇이 멈춰세울수 있던 말입니까

아닙니다

장군님은 절대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의 아들의 한평생

절세의 애국자의 한평생

백두산붉은기 기수의 한평생

그 한평생의 길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

오늘도 인민을 찾아

끝없이 걷고계시는 장군님

우리 한마음으로 우러릅니다

가슴속엔 힘이 넘칩니다

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동지는

슬픔에 잠겨있는 인민을 한품에 안고

세기의 큰걸음 내짚으셨습니다

12월의 찬 날씨에 인민들이 추워할세라

따뜻이 베푸시는 그 사랑은

인민의 가슴에 봄날을 펼쳐주었고

인민의 리익을 기치로 추켜든 그 손길은

우리 앞길에 인민정치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탁월한 실력과 령도적수완

고매한 풍모와 덕망에서

세계는 보았습니다

장군님 걸어오신 사회주의길

붉은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조선의 신념을 보았습니다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위대한 태양을 보고있습니다

선군혁명천만리를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발걸음에서

장군님의 승엄한 발자욱이 새겨집니다

시대와 역사를 호흡하시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심장에서

장군님의 숨결은 세차게 고동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도 친근한 **김정은**동지는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오신

**김일성**동지이시며 **김정일**동지

태양의 광당은 세계를 비칩니다

그 빛발아래 슬픔을 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고

피눈물을 맹세의 불길로 태우며

천만군민이 산악처럼 일떠셨습니다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이 정렬했습니다

장군님의 심장에서 타오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충정의 활화산으로 터쳐

장군님의 리상이

천추만대의 기념비로 빛을 뿌리게 하겠습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명!

**김일성**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결사옹위의 성벽을 쌓고

그이의 발걸음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은

천지를 진감합니다

초소와 고지, 구내길과 포전길에서

병사들과 인민들을 만나

따뜻이 나누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서

장군님의 그 음성은 높이 울립니다

그 음성은 강성국가의 하늘아래

통일광장에도 장엄히 울릴것입니다

아, 위대한 **김정일**동지—그 이름은

인민과 함께

인류와 함께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영원한태양으로 빛날것입니다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우에

우리의 장군님은 영생할것입니다

#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

문용철

하늘이여  
땅이여  
듣느냐  
아버지를 부르는  
어버이를 찾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피눈물의 곡성 피타는 저 부름을

총잡은 병사들의 눈에서  
철부지 어린것들의 두볼에서  
로인과 녀인들의 얼굴에서  
홀려홀려 강이 되고 바다가 된  
피눈물 피눈물

슬픔에 짓눌린 이 심장  
또다시 갈가리 찢길지라도  
조용히 벗어선 야전렬차여  
너의 기적소리 다시 울리어다오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불러찾는  
어버이의 그 목소리를 실어

그이에게 있어  
너와 나 우린 무엇이었던가  
그분에게 있어  
인민이란 정녕 무엇이어서  
심장의 마지막박동  
생의 마지막숨결을  
우리의 천만심장에 다 부어주시고  
그리도 조용히 가시였던 말인가

사랑하는 인민에게 남기신것은  
자신을 깡그리 불태워  
그 한생 뿌리되어 받드신  
만복이 꽃피는 이 땅 이 강산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무적의 대강국

자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 남기신것은  
전호가에 혼술이 다슬고  
전선길의 눈비가 스민  
야전복 한벌뿐인 우리 어버이

총포성 울부짖는 빨찌산전구에서  
생의 첫걸음을 떼시여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전선에서 사신 백두의령장

그이 순직하신 곳을  
다만 달리는 렬차의 집무실이라고만 하라  
조국과 인민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 행복과 번영을 위한 최전선에서  
자신의 심장을 바치신것

뿌리라 눈물을  
김정일장군의 영웅한 병사들아  
비에의 눈물이 아닌  
피같은 맹세의 눈물로  
군기의 기폭을 물들이라  
백승의 총대로  
승리의 노을을 삼천리강토에 펼치라

장군님품에 자란 충직한 인민들아  
백옥같은 충정의 눈물  
불같은 애국의 눈물  
공장과 일터마다 거세찬 비약의 불이 되어  
흐르고흐르게 하라

장군님 자옥어린 이 땅에 스미고스며  
봄이면 그이 펼쳐주신 새 과원에  
그 사랑 꽃바다로 실레이게  
그 방울방울 점점이 불씨가 되어  
그이심장으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이  
2012년의 찬란한 봄노을을 펼치게

슬픔을 박차고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엔  
또 한분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이 서계시거니  
조국이여 인민이여 일떠서라  
발걸음 척척 앞으로! 앞으로!

세기를 밝혀준  
김정일동지의 사상  
김정일동지의 신념은  
불멸의 기치로 역사를 이끄는  
선군의 기관차우에 펄펄 나뭇긴다  
오, 선군의 태양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의 머리우에 빛발치리라

# 인민이여 우리에게 **김정은**대장이 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집체 작

가슴이 찢긴다  
눈보라이는 이 하늘이  
강추위에 얼어든 이 땅이  
피눈물에 녹아내릴줄  
우리 상상이나 했던가

심장이 터진다  
아버지를 찾고부르는  
천만자식들의 비통한 눈물에  
이 땅이 차갑게 얼어붙을줄  
한생에 이런 날이 있을줄  
아, 상상이나 했던가

대답해다오 하늘이여 땅이여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을 두고  
그토록 정을 다하신 조국을 두고  
장군님은 정녕 가실수 있단 말인가

해마다 찾아오는 12 월은  
빨찌산어머님 생각으로 그리도 따뜻했건만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명절이어서  
거리와 마을들엔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고  
온 나라에 경축의 노래소리 넘쳐났건만

12 월의 꽃송이  
피눈물의 화환이 될줄을 어이 알았으랴  
12 월의 노래  
영결의 울음소리로 비통하게 메아리칠줄  
아, 어이 알았으랴

이 준엄한 겨울을 이겨내고  
수령님탄생 100 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세계가 보란듯이 열자시던 그 말씀  
지금도 귀전에 쟁쟁한데  
그 약속 어이하고 가신단 말인가

인민의 마음속 소원까지 헤아리시여  
인민의 목소리 듣고싶으시여  
천리길 만리길도 찾아가시던 장군님  
오늘은 어이하여  
아버지를 목놓아찾는  
자식들의 피라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는가

강성대국의 새봄을 안아오시려  
그토록 애쓰시던 장군님

그 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장군님 한생 바라시던 소원  
인민이 잘살 날이 눈앞에 왔는데  
정녕 그날을 보시지 못하고  
너무도 갑자기 가신단 말인가

장군님 다녀가신 용해장에서  
장군님 가꿔주신 포전에서  
장군님 보아주신 훈련장에서  
장군님 사랑하신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이 나라 병사들과 인민들 가슴치는 그 목소리

—장군님!  
장군님께선 우리에게 부강조국을 안겨주셨는데  
우린 장군님께 동상도 세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달리는 야전열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  
장군님 안녕하시라 절절히 노래부르던  
이 나라 자식이 천만이면서도  
그이의 심장 하나 지켜드리지 못했던가

우리 할일  
장군님 단신으로 다 하시느라  
너무도 너무도 무거운 중압에  
아, 그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구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오시면 기뻐할줄만 알았던 우리  
하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그 걸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천만분의 하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라  
우리 수령님 그토록 당부하셨건만  
아버지의 일흔뉘살도 차려드리지 못한 불효자식들  
무슨 말로 수령님께 속죄한단 말인가

아, 눈보라이  
12 월의 눈보라이여 말하라  
인민에게 오실 때도 눈보라속에 오시고  
인민에게 따뜻한 봄을 주시려  
한평생 눈보라 많지도 맞으시더니



가실 때조차  
정녕 가실 때조차  
눈보라속에 가서야 했던 말인가

그이 단 한번이라도  
좋은 날 기쁨속에 계셨더라면  
그이 단 하루라도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맛보시고  
휴식일 명절날 즐기셨다면  
우리 가슴 이렇듯 찢기지 않으리

아, **김정일**장군 그이는  
인민의 부귀영화를  
자신의 한생과 바꾸신 인민의 아버지  
그이는 선군의 총대로 제국주의를 길들이고  
평화를 수호하신 강철의령장  
최악의 조건에서 전설의 기적을 창조하시어  
이 땅에 강성부흥의 봄을 안아오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영웅  
그이는 인류의 자주위업의 위대한 수호자  
21 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대원로

그이 이끄신 당이 있고  
그이 키우신 군대가 있고  
그이 사랑하신 인민이 있는 한  
**김정일**혁명력사는 영원히 흐르리라  
**김정일**선군시대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인민이여 머리를 들라  
우리의 하늘엔 태양이 빛난다

## 장시

#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굶이쳐흐르리라

리창식, 리래식

눈이 내린다  
슬픔을 안고 잠 못드는 거리와 마을들에  
피눈물이 스민 이 땅에  
소리없이 흰눈이 내리고내린다

눈이여 눈이여  
네 아무리 내리고내리여  
이 땅에 강산같이 쌓인들  
저무는 이 한해와 함께  
더더욱 사무쳐오는  
대국상의 상처를 어이 덮을수 있으랴

2011 년

그 태양은 우리의 **김정은**동지  
조국이여 더 역세게 일떠서라  
장군님 헤쳐가시던 혁명의 길우에  
붉은 기발은 힘차게 휘날린다  
그 기발의 위대한 기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김정은**동지!  
그이는 우리의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당 우리 조국  
그이는 우리의 태양

그렇다  
**김정일**동지의 심장은 오늘도 고동친다  
위대한 그 심장은 우리에게 가리킨다  
**김정은**동지를 따라서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이어가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라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안아오라

장군님과 함께  
《승리의 길》노래를 합창하던 인민이여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장군님 따라서 빛내인 이 혁명  
기어이 **김정은**동지따라 승리떨치자

아, 인민이여  
조국이여  
우리에게 **김정은**대장이 계신다!

우리 가슴에  
너무도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남겨놓고  
너 정녕 가려느냐  
우리 정녕 너를 떠나보내야 하느냐

못 보내  
이대로는 정녕 너를 못 보내  
우리 아버지의 고귀한 생이  
그렇게도 불같이 타오른  
그 날과 달들을

비통함으로 억한 이 가슴에  
아프게 아프게 새겨지는 글발

《1942—2011》

정녕 이해가  
우리 아버지의  
성스러운 생애의 마지막해란 말인가

아니다! 아니여라  
지구가 멈춰서고  
세월의 흐름이 끝났다 해도 우리는 믿으리  
하나 그것만은 그것만은  
우리 절대로 믿을수 없노라

어이 믿을수 있으랴  
온 한해의 날과 날  
수령님과 마음속 이야기를  
그리도 많이 나누시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신  
해빛밝은 창문들이 저렇게 웃고있는데

하늘가득 내리는  
저 소담한 눈송이같은 비날론춤  
쭈뼌이 손에 드시고  
인민들이 소리치며 잘살 날이 눈앞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그 미소  
봄날처럼 이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정  
이 사랑을 남겨두고  
결코 우리와 헤어질수 없는 아버지  
수령님의 뜻 자욱자욱 꽃피우시며  
일년 사계절 온 한해  
락원의 길을 넓혀주시던  
그 영상 잊을수 없어 잊지를 못해

오늘도 우리 가슴에 메아리치누나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내이시려  
천만군민의 심장을 흔드는  
《승리의 길》 그 노래  
새해의 진군가로 올려주시며  
세차게 고동치던 우리 장군님의  
심장의 박동소리

수령님 열어주신 승리의 길을  
백년천년 만대에 이으실 의지  
이 노래에 실으시고  
폭풍치는 대고조전선들을 이끌어  
장군님은 그 어느해보다  
그리도 먼길을 그리도 바쁘게  
초강도의 강행군을 하시였나니

2012년의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함께 발걸음 맞추어  
달리고 또 달리자시며  
우리 장군님 걷고걸으시던  
힘찬 령길들을 더듬어보노라  
이해의 날과 날을 눈물겹게 손꼽아보노라

사무치는 그 나날의 사연들을  
흐느끼며 적으려니  
우리 붓끝에선  
잉크가 아니라  
피가 똑똑 떨어진다

불타는 생애의 해와 달을 거슬러  
이 마음 가닿는 곳  
하늘에 이마가 닿아 그 이름도 마천령  
그 령넘어 우리 들어서는  
대흥과 룡양의 긴긴 광구길

석수가 때없이 떨어지고  
거치른 암벽이 어깨를 스치는 길  
죄스럽구나  
생애의 마지막 이해마저  
장군님을 이런 막장길에 모셔야 했던 말인가

생각할수록 이 가슴에 피가 고이누나  
한평생 그렇게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고  
삼복의 불볕길을 뚫으시며  
정든 집을 떠나 바람세찬 한지에서  
솟는 해 지는 달을 다 맞고보내신 아버지

우리 너무도 몰랐구나  
가고가신 그 길이 너무도 멀고 험해  
이해엔 자주 무릎을 두드리시며  
무거운 발걸음  
힘겹게 짊어오신줄

다 알수 없어라  
그 모든 힘겨움을 이겨내시며  
한해에도 그 몇번  
희천과 룡림의 언제를 찾아  
높고 험한 랑림산밭은 어떻게 넘으셨는지  
인민의 행복  
백화로 만발한 평양제 1 백화점  
그 하많은 층층계단은  
어떻게 딛고 오르셨는지

그렇게 오시여서는 우리에게  
해빛같은 밝은 웃음만을 주신 아버지  
행복이었구나

이 세상에 다시 없을 행복이었구나  
우리 일터와 집집에  
아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두분을 함께 모시고 기뻐 웃던  
이해의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이

길손도 드물게 찾아오던 룡림땅에  
번듯이 닦아놓은 큰길과  
희한하게 변모된 사회주의선경마을  
산중의 물놀이장에 비껴 흐르던  
두분의 환하신 그 미소여

우리의 가슴엔 새겨져있어라  
탐스런 사과가 무르익은 가을날  
룡전의 새 파원을 찾아오시여  
주렁진 사과알들이 잘 보이게 찍으라고  
장군님 마음 기울이신 사연깊은 그 사진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른들  
우리의 가슴에서 어이 지워지랴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푸르싱싱한  
갓가지 온실남새를 앞에 놓으시고  
매대판매원이 된 기분이라고  
즐겁게 웃으며 찍으신 류다른 그 사진

수령님의 념원이 꽃피고꽃핀  
인민의 기쁨이 그리도 소중한  
가시는 곳마다 남기신 그 사진속에  
우리 위해 바치신 아버이의 한평생이 있고  
그 품속에 안겨산  
우리의 행복한 그 모든 세월이 있나니

이 행복한 세월을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못 잊을 추억으로만 남겨놓고  
정녕 우리 아버지  
가셨단 말이나

보아라  
그이의 후더운 숨결이 흐르는  
홍남의 우람한 가스정제탑들  
그이의 거룩한 손길이  
하늘높이 받들어올린 새 거리들  
그이의 피땀이 알알이 무르익힌  
옥야천리에 물결치는 오품백과...

안아볼수록 눈물겹구나  
우리 장군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선군의 재부들  
그이 심혈을 바쳐 아득히 펼쳐놓은

CNC 기계바다

못 잊을 만단사연 것들여  
불러만 보아도 눈굽이 젖는  
장군님의 살붙이  
강대한 내 나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시며  
천만품을 들이신  
CNC 조선의 CNC

그 성스러운 길에  
자신의 구면친구가 된  
련하기계들이 보고싶어  
또다시 희천땅을 찾으셨던  
뜻깊은 그날

새 세기 산업혁명의 선구자들과  
더 높은 목표를 약속하시며  
장군님은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시였던가  
—CNC의 어미기계가 태어나는날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내 오겠소!

꽃다발  
꽃다발  
준엄한 북방 6천리가 안겨오고  
피눈물을 남몰래 삼키신  
긴긴 낮과 밤이 어려오는  
아버이의 꽃다발이여

너는  
고난과 시련의 장설을 다 녹이며  
우리 장군님  
한생을 아낌없이 뿌리로 묻어  
떨기떨기 꽃피워오신  
인민사랑의 꽃다발

그이는 이렇게 안아오시였구나  
부강조국의 무궁한 세월을 위해  
애국의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념원  
강성대국의 찬란한 봄을

우리 장군님 피더운 심장을 고여 안아올리신  
이 모든 기적과 거창한 창조물들  
비날론삼천리 비료바다삼천리...  
만복의 삼천리가 굽이쳐흘러  
이 땅 이 하늘아래 벌써

2012 년의 봄강산이 펼쳐졌거늘

만발하는 이 봄을 안아오시느라  
한평생 천만고생 다 겪어오신 장군님  
강성대국 문어구에  
우리를 이끌어 인민을 이끌어 세워주시고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으니

심장이 터진다  
이 땅의 만복이 꽃으로 피어 설레이는  
따사로운 봄을 주신 어버이께  
그이가 안아키운 이 땅의 자식들  
피눈물의 꽃을 엮어드리게 될줄  
그 누가 알았던가

천갈래 만갈래  
이 가슴을 찢으며  
지금 이 시각도 흥벽을 광광 두드린다  
꿈에도 상상 못한 뼈아픈 슬픔을 안겨준  
12 월의 기적소리 기적소리

그날의 야전렬차여  
위대한 그 심장이 박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왜 피타는 너의 기적소리를 듣지 못했더냐  
우리에게 기쁨만을 행복만을 실어오던 야전렬차여  
이해도 다 간 12 월에  
그리고 큰 슬픔을 우리에게 실어왔느냐

가슴치노라  
그처럼 고귀한 불멸의 생애를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  
마지막심장의 박동을 다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세월을 펼쳐주시고  
**김일성**조선의 100 년사를  
만대에 길이 이어놓으셨구나

2011 년이여  
너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가 아니여라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행복한 래일과 더불어  
장군님의 심장이 가장 불같이 높뛰어  
인민의 마음속에 그이 더 가까이 오신 해  
태양의 그 모습으로 더 귀중히 간직된 해

이 땅에 스미고스민  
피눈물의 자욱자욱우에

12 월의 눈은 내리고내리는데  
슬픔의 그 눈발을 걷어내며  
우리의 머리우에  
장군님의 태양상이 환하게 빛난다

해빛같은 그 미소를 안은  
천만의 가슴마다에  
우리 아직  
이 땅에 세우지 못한  
아버이의 동상이  
승엄히 솟아있어라

선군의 추억이 어린 못 잊을 야전복우에  
그이 덮고계시는 한쪽의 붉은기가  
슬픔을 딛고 산악같이 일떠선  
강철의 대오앞에  
승리의 기치로 나뭇긴다

그 기치를 앞장에서 높이 드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하늘땅이 비분속에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바다우에서  
백두의 산악같이 거연히 일떠서신분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리고  
장군님의 숨결이 높뛰는  
그 붉은기아래  
그이는 슬픔에 우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하나하나 손잡아일으켜 세워주시었나니

그이시여라  
걸음걸음 장군님을 받들던 그 나날  
우리 어버이 외국방문길에 계실 때에도  
장군님의 조국 인민의 집을 굳건히 지키시고  
그이의 구상을 하나하나 꽃피우신  
이 세상 둘도 없는 충정의 화신

그런분이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도  
장군님과 꼭같은분이어서  
그처럼 크나큰 슬픔을 안으신 그 순간에도  
그이 가슴은  
장군님 말기고가신  
인민에 대한 생각으로 짙 차있었나니

사람들이여 우리 알거나 했던가

피눈물의 그날  
우리의 **김정은**동지  
설을 맞는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줄데 대한  
장군님의 마지막친필문건을 안고  
긴긴밤을 지새우신줄

이겨내야 할 아픔  
해야 할 일 그리도 많으셨건만  
인민을 위한 장군님의 당부를  
제일국사로 첫자리에 놓으신  
인민의 아버지 **김정은**동지

장군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싣고  
물고기차가 질풍같이 달려오고  
집집마다 그 사랑이 닿을 때  
장군님을 우러르며  
북받쳐오르던 인민의 걱정이어

—장군님, **김정은**동지가 계시여  
우리는 오늘도 장군님사랑속에 삽니다!

뜨거운 그 사랑이  
피눈물에 얼어붙던  
12월의 빙설을 다 녹이고  
비에의 바다 슬픔의 바다를  
아버지의 정이 넘쳐흐르는  
정의 바다 불타는 맹세의 바다로 펼쳤거니

설사  
강물은 칼로 벨수 있어도  
하늘은 두동강낼수 있어도  
또 한분의 장군님이신 그이와  
피눈물속에 더욱 굳게 맺어진  
혈연의 이 정만은  
가를수도 끊을수도 없으리라

그이가 이 땅을 지켜졌기에  
그 어떤 원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리라  
장군님의 나라  
인민의 나라를

백두의 기상으로  
강철의 령장 그이가 터치는  
멸적의 퇴성을 들으라

하늘땅을 진동하는 백전백승의 포성으로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고  
**김정일**장군의 조국은 불패하러니

아, 우리는 듣는다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력사가  
도도히 굽이치는 소리를  
**김정은**동지 그이 계시여  
장군님의 인민행 야전렬차가  
오늘도 끝없이 달리는 소리를

세월이어  
세월이어  
너는 정녕 해와 달에 실려 흐르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폭풍쳐 몰아가시는 선군혁명의 기관차에 실려  
장군님의 세월은 영원히 흐르거늘

머지않아 이해는 가고  
2012년 새해를 부르며  
제야의 종소리는 울리리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력사를 이끌고 세월을 싣고 오는  
야전렬차의 기적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리

가자 조국이어 인민이어  
**김정은**동지의 영광넉친 발걸음을 따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2012년 태양절의 봄언덕으로  
궁지높이 뿔뿔하게 세계가 보란듯이!

사무치게 그리운 장군님품으로  
끝없이 마음달리며 잠 못 이루는 이해의 밤  
우리 마음에 샘솟는 생각은 오직 하나  
높이모시리  
우리의 **김정은**동지  
이 세상 한끝까지 따르고 받들리

아, 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뜻으로 꽃피는 내 나라 내 조국  
**김일성**조선의 천대만대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영원히 흐르리라  
장군님세월은 무궁토록 굽이쳐흐르리라

## 선군의 붓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김일규

비분에 떠는 붓대가 피눈물에 젖고있다.

사랑과 믿음, 행복과 영광에 젖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위대한 태양의 자애로운 덕망과 은덕을 청사에 아로새기던 작가들이 심장을 쥐여짜는 절통함에 울고있다.

인류의 경탄속에 김일성민족의 100 년사를 빛나게 총화하며 휘황찬란한 강성부흥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될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 년대가 시작되는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기슭에서 탁월한 령도자를 잃은 전사들이, 위대한 스승을 잃은 제자들이, 자애로운 어버이를 잃은 자식들이 몸부림치며 비통한 력사의 순간을 겪고있다.

아, 절통하구나.

감히 붓을 들고 온몸의 피가 다 쏟아지는것 같은 이런 아픔에 젖어 이 글을 이어가야 하는가.

하늘이 낸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천출명장이시며 위대한 사상과 창조의 거장이시며 문학예술의 탁월한 영재이신 자애로운 태양만을 우러르던 작가들의 심혼이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12 월의 곡성에 뿌려지고 피눈물의 바다에 표류하며 기적을 바라고있다.

정일봉의 우뢰소리처럼 천하를 울리던 백두령장의 그 굳세인 심장의 박동이 고동을 멈출수 있단 말인가.

백두의 눈보라처럼 단숨에 휘몰아치며 내닫는 기상으로 천만대적도 쥐락펴락하시던 폭풍같은 그 숨결이 끊어진단 말인가.

아니! 아니다—

저 하늘은 무너진다 해도 뜨거운 사랑의 젖줄기로 생을 주시고 넘치는 인정의 빗발로 가꾸신 인민이 우러르는 하늘가에서 태양은 꺼질수 없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시의 세계에 그리도 열렬히 호응하시며 만족하신 음성으로 시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시던 그 태양같이 환하신 미소가 우리의 가슴마다에 지금도 짙 차흐르며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데 과연 그 열정의 태양이 식을수 있단 말인가.

무적의 총대기상이 나래치고 필승의 신심과 선군의 우월성을 확증하는 우리 군대의 본태가 맥박치는 억점짜리 공연, 보고 또 보고싶은 공연이라고 창작가들을 치하하시던 그 행복 넘친 시간이 어제같은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뀐다고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서 그 시간이 한시인들 흐르지 않으랴.

믿어지지 않는 가슴들을 쥐여뜯으며 다시금 목메여 불러본다.

아버지장군님!—

12 월의 얼어붙은 대지가 피눈물에 녹아내리고 몰아치는 설달의 찬바람이 하늘땅에 차고넘친 비애의 곡성에 휘말려 산천초목에 몸부림을 일으킨다.

여느때같으면 눈꽃이 황홀한 눈발속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장군님을 높이 모신 궁지와 환희의 노래가 메아리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영결의 비통한 선물이 울리고있다.

화환마다의 꽃송이들마저 장군님 한평생 다 맞으신 눈처럼 흰것이여서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첫 자옥을 떼실 때부터 한생의 마지막날까지 야전복 자락에 매달리던 그 눈발이 어려와 더더욱 죄스러운 피눈물이 진하게 대지를 적시고있다.

찬눈비 더는 맞지 마시라고 우리 절절히 노래했건만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키워주신 조국과 인민을 품에 안으시고 심장의 박동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것처럼 험한 눈보라길을 헤쳐가신 인민의 아버지.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노래의 구절을 것처럼 정이 가시여 다시, 또다시 외워보시던 그 심중을 우리 그때 미처 다 몰랐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재부가 늘어나고 사회주의 선경이 펼쳐지는것이 그리도 락이여서 더 좋은 래일을 구상하시며 인민의 부귀영화를 하루빨리 이 땅에 꽃피우시려 우리 장군님 깊은 밤 이른새벽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그 하루하루에도 우리는 그저 평가에 들떠 기쁨에 웃으며 밥술을 들고 잠자리에 들지않았던가.

부피두터운 가극대본을 하루밤사이에 다 수정 가필하여 내려보내주실 때 천재적인 창작적예지와 천품에 매혹되면서도 그이 바치신 헌신의 분분초초를 가슴마다 무겁게 새겨보았던가.

새로 쓴 장편소설이라고 미숙한 초고목음을 드리고서도 그 방대한 력사와 시대적배경을 순간에 다 헤쳐보시며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주제해명에 바쳐진 작은 세부의 문장 하나까지도 그리도 구체적으로 깐깐히 다 보시고 명문장으로 다듬어주

신 시간이 야전차에 흐르던 전선길새벽의 그 쪽  
잠시간은 아닌지 우리 그때 알고나 받아안았는  
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붓대를 사랑하고 중시합니다.》

붓대!

정녕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총대와  
함께 붓대는 사랑이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

하늘가에 흠여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천리길 만  
리길을 다시 달려와 안긴 그 품 떠나 살수 없는  
생의 고백을 안고 붉은 기폭에 얼굴 묻고 아이적  
목소리로 불러찾은 어머니!

현대의학도 혈육들도 맥을 놓고 숨져가는 생명을  
지켜보고있을 때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불타  
는 사랑과 정으로 소생시켜주신 장군님영상을 우  
러르며 새삶의 숨결을 다시 찾은 수많은 작가들  
이 온넋으로 목매며 먼저 찾은아버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하늘같은것이건만 그  
광활한 폭과 자애로움의 열광을 느끼면서도 습관  
된 응석만 부려온 우리였다.

운명의 하늘에서 사랑의 태양을 잃은 억이 막  
힌 순간에 접하고서야 철없는 어리광속에 보답의  
밤길을 우리 먼저 더 걷지 못한 죄책에 더더욱  
쓰리고 아픈 마음들이 다시금 철이 든듯 절감하  
는것이 있다.

꿈결에도 뵈고싶어 그리워 찾고 장군님을 모시  
고 한식술처럼 기념사진 한번 찍는것이 인생의  
소원이던 마음들에 그이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  
릴 결사의 각오가 굳세진다. 그이 말씀 한번 들  
으면 진리를 찾고 세계를 내다보며 새 세기 산업  
혁명의 지름길로 줄달음치던 발걸음들이 더 큰  
보폭을 내짚으며 이 땅을 구른다.

그이께서 한번 손을 잡아주시면 거인의 숨결을  
받아안은듯 바다도 밀어내고 산악도 통채로 옮기  
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기적을 펼쳐온 심장과  
심장들이 피눈물속에 더더욱 굳히는 맹세가  
있다.

백두의 눈보라길을 떠나 전화의 불길속을 뚫고  
고난의 언덕을 넘고넘으시며 아버지수령님 바라  
시던 인민의 락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펼치시려  
한평생 땀에 젖고 눈비에 젖은 야전복을 벗을새  
없이 마지막 심장의 고동마저 그 한벌 야전복속  
에 남기시며 고난의 천리는 자신께서 다 걸으시  
고 조국과 인민에게는 강성부흥의 넓은 길을 천

만리로 열어주신 위대한 생애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천년만년 이 붓대로 수놓으리니.

우리 운명의 하늘가에 빛나는 찬란한 향도의  
태양을 우러르며 피눈물을 닦으며 일어난 우리의  
붓대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 온 누리에  
당당히 새겨놓는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선군혁명승리의 기치이  
신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는 백두산이 낳은 오늘의 김정일동지이시  
다.

온 나라 대가정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  
주실 사랑의 태양, 일심단결된 천만군민대오의  
진두에 거연히 서계시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조  
국을 이끌고 승리의 미래를 펼치신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비분을 새기  
는 우리의 붓대는 총대처럼 굳세고 언제나 휘지  
도 않으며 우리 당 붉은 기폭의 중심에 꿋꿋이  
바로 서서 태양의 실록을 새겨간다.

일찌기 우리 작가들이 창작한 하나의 장편소설  
이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의지와 담력, 백전백  
승의 전승업적을 후세에 펼쳐는 온 나라의 푸른  
산악으로 되게 하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피눈물의 언덕에서도 승  
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부흥의 대문을 열  
어제길 새해의 총진군길에 발걸음소리 척척 보무  
당당히 울려가게 열정에 넘친 시들의 정서를 안  
겨주신 또 한분의 탁월한 스승을 모신것은 우리  
작가들의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이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모습도 우리 장군님과  
꼭같으신 김정은동지를 모시였기에 함남의 불길  
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새 세기 산업  
혁명의 변이 나는 일터와 전구마다에서 예나 다  
름없이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선군의 기상이  
약동하며 주체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적대가  
뚜렷한 세계적인 명작들이 세기와 더불어 태어나  
고 태어날것이다.

우리 수령님 쥐여주시고 우리 장군님 품을 들  
여 키워주신 선군의 붓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  
는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백방으로 결사반  
드는 우리의 붓대는 사상전선의 무기로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그 위력 펼쳐가리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다.

## 금수산기념궁전에 내리는 함박눈

김삼복

주체 100(2011)년 12월 21일 오전.

우리 4.15 문학창작단 작가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의 넓은 광장으로 금방 들어서는데 새벽부터 내리는듯마는듯 하던 눈이 하늘이 터진 듯 함박눈이 되어 쏟아져내리기 시작하였다.

사나운 겨울의 강추위를 몰아오던 찬바람도 무거운 비에에 잠겨 삼가 찾아든듯 사위가 조용하고 엄숙한 속에 하염없이 내리는 순결하고 포근한 눈송이!

백두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의 기상을 담아 천지를 진감하며 세차게 휘몰아치던 눈보라여, 너 어이하여 머리속이고 이처럼 고요히 함박눈이 되어 송이송이 내리는것이나. 산천초목도 슬픔을 안고 묵상에 잠겨있거늘 눈보라도 울부짖기를 저어하는것이라. 우리 작가들이 비에에 잠겨 한송이한송이 정성껏 만든 화환의 흰꽃을 억만송이로 피워 더해주려는듯 함박눈은 소리없이 내리고 내리었다. 내려서는 우리 작가들의 머리우에, 얼굴에 가볍게 앉아 눈물같은 물방울로 맺혔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름할수없이 경건하고 숭엄한 감정에 젖어들고 그 하얀 눈발속에 환하게 웃으시는 친근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이 우뚝이 떠올랐다.

작가들이 왔는가, 문필가들이 왔구만 하고 반겨맞아주시는 그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북대가 있어야 혁명이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들을 사상전선의 앞자리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스승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큰것이었던가를 여기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서니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함박눈은 쉬임없이 조용히 내리고있었으나 광장을 하얗게 덮은 눈우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의 머리속에는 추억의 눈보라가 세차게 일고있었다.

자신을 위한 일은 다 삼가하시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룡성변경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온넋을 바치시고 심장을 불태우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일찌기 우리 작가들을 인류문학사가 아직 알지 못했던 수령형상문학창조의 길로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 수십편이나 창작되었다. 그때마다 누구보다 제일먼저 기뻐하신 분은 우리의 장군님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쓸수 있도록 4.15 문학창작단 창작실을 잘 지어주자고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고 청사가 완공되자 주체 76(1987)년 4월 14일 몸소 나오시여 창작실, 자료실, 오락실 지어 식당의 주방까지 일일이 돌아보시였고 정원에도 나가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이처럼 훌륭한 창작실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이런 창작실에서는 글이 저절로 나올 것이라고 만족해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그동안 창작하여 내놓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1932년》, 《혁명의 려명》,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고난의 행군》 등 시대의 명작들을 한권한권 보아주시고 높이 치하하시었다.

아직은 써낸 혁명소설이 적고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비해볼 때 한 일이 너무도 적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는데 크지 않은 그 성과를 두고 것처럼 기뻐하시니 우리들은 몸둘바를 몰랐다. 사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었겠는가.

이 잊지 못할 날에 우리 작가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있는가, 우리는 마땅히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비범한 천품을 혁명소설에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한결같은 심정을 터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겸허하게 사양하시고 어떤 때에는 엄하게 질책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신념으로부터 그이를 형상한 혁명소설을 창작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위인에 대한 매혹은 우리 작가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하여 지금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



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푸른 하늘》, 《예지》, 《력사의 대화》, 《강계정신》, 《라남의 열풍》 등 20여편의 장편소설들이 창작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해 쌓으신 업적에 비해볼 때,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 안겨주신 믿음에 비해볼 때 우리가 지금껏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다는 가책을 금할 수 없다. 더 분발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 더 많은 혁명소설들을 더 잘 써냈더라면 심장을 비트는 상실의 아픔이 이다지도 크지 않을것이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흘리는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그들이 터치는 애절한 곡성이 가슴을 허비는 금수산기념궁전.

한쪽의 붉은기를 덮으시고 꽃속에 조용히 누워 계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령전에 선 우리들은 그이의 생전에 기쁨을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큰 만족을 드리지 못한 뼈저린 아픔이 물결처럼 밀려들어 가슴이 떨리고 깊이 숙인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이 아픔, 이 죄스러움을 어떻게 보상할수 있으랴.

우리들이 편안하게 좋은 창작실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강성국가승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부는 날이나 삼복의 무더운 날을 가리지 않으시고 초강도강행군길,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먼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 길위에 수놓아진 감동적인 이야기, 전설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신 장군님의 그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장정의 력사를 혁명소설에 담아 길이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들은 지니고있다.

그런데 우리가 써내는 소설들은 그이께서 걸으신 령도의 자욱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2.8 비날론련합기업소가 고난의 행군시기 불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비롯하여 함남의 불길이 온 나라를 밝히며 거세차게 타오르게 된 이야기 등 많고많은 장군님의 혁명실록들을 우리는 아직 혁명소설로 써내지 못하고있다. 희천발전소가 일떠서고 대계도간석지가 생겨나고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이 아득하게 펼쳐지고 곳곳의 양어장들에서

철갑상어며 룡정어, 연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타조목장, 닭공장과 오리공장, 돼지공장 등에서 알과 고기가 쏟아져나오고 혁명의 수도 평양이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되는 이 모든 활력에 넘치는 조국의 모습에 바쳐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과 위인적품모를 우리들이 그이의 생전에 혁명소설에 담았더라면, 그리하여 우리의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에게 신심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정신적량식에 보탬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어찌 당원이라 할수 있고 작가라 할수 있으며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우리 작가들은 상실의 커다란 아픔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기어이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결의를 흐느낌과 눈물속에서 가슴을 치며 그이의 령전에서 맹세다지였다.

우리에게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께서 계시어,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강성국가의 때문에 반드시 들어설것이며 통일된 강성국가로 그 위용을 세계에 떨칠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의 혁명적문화건설, 선군문화건설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것이다.

...그사이 눈송이는 더욱 커져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포근히 감싸면서 평평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아버지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서계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이 있기에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었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며 그 영웅적이야기들은 혁명소설들에 형상되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김정일**장군님께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을 올리며 우리들은 두터이 쌓인 흰눈우에 힘차게 자욱을 찍어나갔다.

끝없이 내리는 순결하고 포근한 눈송이여, 함박눈이여, 더 세차게 내려다오. 우리의 장군님과 한생의 인연을 맺은 너 눈송이여, 더 세차게 내려다오. 하여 우리 장군님 자욱이 깃든 내 조국 땅을 더 아름답고 장엄하게 수놓아다오.

## 눈물과 추억

최봉무

눈물의 바다를 이룬 김일성광장 조의식장에 들어선 나는 류달리 가슴을 허비는 한 소녀애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소녀애는 아버지장군님을 애타게 부르며 몸부림치고있었다. 그는 장군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신 소녀, 온 세상이 아는 축복이었다.

언제나 밝은 웃음만이 피어나 만사람을 기쁘게 해주던 축복이의 고운 얼굴에 비애의 그늘이 지고 눈물의 소나기가 쏟아지다니... 이런 날이 있을줄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더더욱 슬픔이 복받쳐 오열을 터뜨렸다.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조의식장에서 만난 비전향장기수 리재룡동지부부 역시 나를 부둥켜안고 가슴을 쳤다.

평범한 공민의 한사람인 나의 경우도 상실의 아픔을 이겨낼수 없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사는 축복이와 리재룡동지부부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 순간에도 나의 뇌리에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축복이에게 돌려주신 파사로운 사랑과 은정이 다시금 안겨왔다. 그 많은 전설같은 이야기중에서 축복이의 티없이 고운 얼굴에 깃든 하나의 작고도 큰 이야기는 눈물겨웁게 가슴을 친다.

몇해전에 나는 리재룡동지를 취재하기 위해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에 자리잡고있는 그의 집을 찾은적이 있었다.

그날이 바로 잊을수 없는 2002년 7월 23일이였다.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담아 아기이름 《축복》이라 지어주신 장군님의 친필을 받아안은 날이 이날이었으므로 나는 더욱 잊지 못한다.

내가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앉아 왁작 떠들며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나는 무슨 희한한 경사가 생겨 이렇게들 모여 기쁨을 나누고있는가 하여 조용히 다가가 그들속을 들여다보았다. 리재룡동지부부며 비전향장기수들이 갖가지 옷을 갖난애기인 축복이에게 입혀보고있는중이였다.

방금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축복이에게 선물물 보내주셨던것이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아기가 탁아소, 유치원은 물론 소학교시절에까지 입을 계절에 따르는 갖가지 색깔과 형태의 옷

과 내의, 모자, 양말, 신발 등 없는것이 없었다.

사람들을 놀래운것은 그다음에 있는 일이었다.

차례로 옷을 입혀보고 모자를 씌워보며 큰것들은 몸에 건주어보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더더욱 예뻐보이는 축복이의 해죽해죽 웃는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사람들은 애기양말을 신겨볼때 갑자기 웃음을 거두고 침묵을 지켰다.

(웬일일까?!)

나도 의아쩍은 눈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기에게 몇컬레의 양말을 신겨보던 아래층에 사는 비전향장기수가 양말이 발에 걸리지 않고 자꾸 벗어져나오자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이상한 《양말》이였다. 《양말》에는 뒤축이 없었고 등에는 아름다운 은방울꽃무늬가 수놓아져있었다.

《?...》

의혹에 차서 서로가 바라볼뿐 누구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여전히 방안은 조용하였다. 이때 누군가가 뒤에서 《아무리 봐도 양말같지 않구만. 손에 끼워보시우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자 그 비전향장기수는 그것을 아기의 고사리같은 보동보동한 손에 끼워보았다. 꼭 맞았다. 그것은 양말이 아니라 장갑이였다. 손톱에 아기의 얼굴이 굽히울가봐 따로 만들어 보내주신 얼굴보호용애기장갑이였다.

애기장갑!

보물같은 애기장갑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한번 가슴이 뭉클하고 코마루가 찡하였다. 축복이 아버지 리재룡동지도 왈각 걱정이 복받쳐올랐던지 마음을 건잡지 못하고 흑—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애기장갑을 모두어쥔채 어깨를 들먹이였다.

그러다가 벽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이렇게 아뢰이였다.

《아버지장군님, 장군님의 덕에 숨쉬는 화석이였던 예순고개의 이 로총각이 인간사랑의 바다에 안겨 귀한 자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선물까지 보내주셨으니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숨이 진들 어찌 이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도 격동되어 한동안 진정하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끝내 눈물을 흘리였다.

어린 아기의 예쁜 얼굴이 손톱에 굽히울가봐

애기장갑까지 보내주신 다심한 어버이사랑, 친부모도 생각지 못한 그 사랑의 깊고깊은 심원을 우리 어떻게 다 헤아릴수있으랴.

나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였다.

인민의 락원이 펼쳐진 이 땅에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가 어찌 축복이 하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이랴.

나라없던 그 세월 이름조차 없었던 녀인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꿈같이 받아안은 이름 복순이, 선군시대 백두대지에서 태어나 온 나라가 들썩하게 받아안은 그 이름 홍단이, 대양과 대륙을 넘어 여기 조선에서 태어난 이국의 소녀가 받아안은 이름 진달래!... 그들의 고운 얼굴에도 어버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자애깊은 사랑이 어리여있는 것이다.

9살난 축복이가 애타게 장군님을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는 조객들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비애의 눈물, 역경을 딛고 기어이 일어설 맹세의 눈물이다.

삼천리강토에 굽이치는 비애의 눈물, 맹세의 눈물을 강철의 의지로 엮어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드시 이 땅위에 장군님께서 념원하신 강성국가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오늘을 추억하며 충정의 한마음으로 끝없이 아름답아진 얼굴마다에 행복의 눈물을 담으리라!

## 인민의 태양은 영원하리

최남순

땅이 울고  
하늘이 울고  
온 나라 온 세계가 울건만  
환히 웃고계시는 단 한분  
아, 어버이장군님

태양이어서 진정 태양이어서  
슬픔에 얼어붙은  
빙설천지를 녹여주시려  
혹한속에 울고있는  
인민을 덥혀주시려  
한몸 불태우시며 웃고계시는가

얼마나 우리 정들었던 미소이더냐  
허나 몰랐구나  
찾아오실적마다  
그토록 환하게 떠올리시던 미소가  
자신의 모진 아픔 다 누르시고  
뜨겁게 지펴올리신 미소인줄을

인민에게 입힐 새 웃감 생겨도  
인민이 좋아하는가  
묻고 또 물으시며  
뜨겁게 지으시던 미소가  
실실이 씨실로 날실로 엮여져  
우리 입고사는 옷이 포근했구나

인민에게 새집이 생겨도  
아래목 짚어보시고 부엌문 열어보시고  
또다시 찬눈길 떠나시며  
잘있으라 정겹게 남기신 미소가  
창가마다 해빛으로 비껴  
사회주의 우리 집이 따스했구나

만리과원에 알알이 사과가 익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 쏟아져도  
그 모든것을 위해 걸으신  
로고의 눈보라길은 다 잊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어버이

아, 지금이 순간도  
동해의 신선한 물고기들이  
집집마다에 차례졌다는 보고 들으시고  
기쁘시여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는듯

이 땅에 넘치던 그이의 밝은 미소  
오늘도 래일도 영원하려니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안아오시고 또 안아오시던  
인민사랑의 대하가  
오늘도 예대로 굽이치니  
어버이는 만시름 잊고 웃으시여라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  
**김정은**동지께  
사랑하는 인민을 맡겼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강성국가의 래일이 눈앞에 보인다고  
환히 웃으시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이 땅은 영원히  
장군님미소 넘치는 인민의 세상  
가없이 펼쳐진 이민위천의 하늘위에  
태양의 미소 따뜻하여라  
인민의 태양은 영원하여라

# 맹세의 광장

최성진

이 세기가 당한 최대의 상실로 하여 일월성신도 비애의 눈물에 잠겼는가? 머리들어 바라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매연이 서린듯 뿌연기만 했다. 휘뿌려지는 눈물의 포말인양 설된 눈송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다.

강풍이 일었다. 저기 백두의 밀림속에서 불어오는 폭풍이나 아닌가. 거기 정일봉마루에서 퇴성치는 밀림의 설레임소리인듯.

호곡소리! 호곡소리!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 은은히 울려퍼져가고 불들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이맘때면 야경을 즐기러 나온 어른들과 아이들, 사랑의 언약을 맺은 청춘남녀들이 즐겁게 웃으며 거닐던 광장에 이 웬일인가! 가없는 눈물의 바다, 슬픔의 바다가 펼쳐졌으니.

위대한 장군님 태양의 모습으로 밝게 웃으시는 **김일성**광장!

주석단쪽을 향하여 눈물의 대하가 울며 흐느끼며 무겁게, 서서히 움직이고있는데 그 무거운 흐름 밑에 짓눌려운듯 한 침중하고 비장한 선물이, 추도곡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귀에 선 음악처럼 우리에게 도무지 습관되지 않은 비애의 선물이었다.

거대한 인력에 빨려들듯 광장 한가득 들어선 대렬들은 무겁게 고개숙이고 비분의 눈물을 떨구며 저기 비애의 종심을 향해 움직이고... 아니, 비애는 온 광장에 차넘치고있었다. 드넓은 광장이 그대로 비애의 바다, 눈물의 바다였다.

12월 17일, 이날은 어째서 있는것인가.

세월의 흐름을 알리는 날자의 표기가 이토록 원망스러워본적은 없었다.

이날이 없었더라면, 정녕 이날이 없었더라면 이 가슴 찢기는 아픔, 이 슬픔이 없었을까 아닐까?

나는 그 눈물의 파도에 실려 광장주석단아래를 향해갔다.

눈물의 대하는 멋어섰다. 수천의 사람들이 추모의 대돌우에 흰 꽃을 엮고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여 고개를 숙이었다, 오래도록 슬픔에 울며.

어른들과 아이들, 로인들과 젊은이들, 남자들과 여자들, 군인들... 나이도 각이하고 직업도 각이한 사람들이었다. 생의 목적도, 살아온 생의 길음도 각이하리라.

하지만 이 광장에 모여온 우리는 다같은 상제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한식술로 살아온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이다. 여기에는 오직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눈물만이 있을뿐이다.

그런데 저 수천의 인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아버지앞에 머리숙이고 오래도록 들줄을

모르며 무엇을 생각할까?

《아, 장군님!》

바로 내옆에서 한 사나이가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수천의 울음소리속에서 그리도 선명하게 들리는것은 갈가리 찢겨나가는듯 한 목소리때문이었다. 인간의 목소리가 저리도 처참하게 울릴수 있는것인가?

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나이 마흔쯤 되어보이는 사나이였다.

《장군님! 만수대지구가 락원의 거리로 완공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건설자들이 장군님 모실 날만 기다리는데... 일어나십시오. 장군님!—》

처절하게 부르짖는 사나이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 아마도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의 일꾼인듯싶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피 토하듯 하던 그의 입에서 다시금 굳센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장군님! 가슴이 터집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눈물만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그의 눈에서는 연물같은 눈물이 샘솟듯 하고있다.

그의 울음섞인 말뜻이 이해되었다.

가슴터지는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겠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이 땅우에 장군님 념원하시던 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겠다는 맹세를 그 한마디에 담았으리라.

나는 광장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눈앞에는 신념과 맹세로 불타는 굳세인 모습들이 안겨왔다.

오호! 여기는 결코 눈물의 광장이 아니다. 눈물에 젖어 하늘도 태양없는 하늘로 보이는 비애의 광장이 아니다. 여기는 수천수만의 심장들에서 분출하는 맹세가 용암처럼 끓어번지며 거센 흐름을 이루고 충의의 바다를 이룬 맹세의 광장이다.

그렇다, 여기는 **김일성**광장이 아닌가.

눈앞에는 년대와 년대를 이으며 이 광장에서 터져오르던 승리의 축포가 떠올랐다.

미제를 쳐이기고 전승의 축포를 터치던 광장.

그날부터 우리 조국의 모든 승리가 이 광장에서 축포로 경축되어왔다.

아버 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열을 받으며 열병중대들, 멸적의 탄두를 만장약한 철의 기계화부대들이 이 광장을 노도쳐갔다.

력사는 과거로만 기록될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령복 이어지는 나라의 인민이다.

아버지를 잃고 비분의 눈물 흘리던 여기 광장의 수많은 남녀로소가 그 눈물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더 잘 반들어갈 맹세로 굳히며  
장군님의 유훈 지켜갈 투쟁의 친구들로 떠나가리  
니.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우리 조국의 승리의  
력사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계속될것이다.

수천수만의 심장에서 분출하는 거대한 힘이 신  
념의 대하가 되어 끊임없이 흐르는 맹세의 광장,  
김일성광장에 서니 강성국가의 큰문이 켜— 소리

치며 열리고 승리자들의 대오가 행진해갈 그날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비에의 눈물을 찼찼 흘리면서도 눈물만을 흘리  
지 않겠다면 건설자 그 사나이도 그날에는 승리  
자들의 대오에 서서 환히 웃으시는 김정은장군님  
께 마음속으로 영광의 보고를 올리며 궁지에 차  
서 이 광장을 지나가리라.

## 장군님은 빨찌산복을 입고계신다

너무도 우리에게 눈에 익은  
그 야전복을 입으시고  
붉은기 한폭단을 고이 덮으신채  
조용히  
아, 숨엄히 누워계시는 장군님

순간도 떨어져 못살 어버이모습  
비통한 마음 안고 우리를수룩  
크나큰 슬픔만 뼈아프게 파고드는데  
아, 가슴치는 생각이여  
장군님 오늘도 입고계시는 야전복이여

어느때나  
수수하고 평범한 그 웃을  
그리고 즐겨입고계셔  
걸음걸음 따라서는 인민의 마음속에  
간절히도 간직되던 그 소원  
이 세상 제일 좋은 옷 어서 입으셨으면...  
좋은옷 입으시고 편히 쉬시었으면...

하지만 이제는 버릇되시여  
간편한 그 옷  
자신에겐 편안하고 더 마음에 든다시며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한평생 더 많은 일을 하겠다 하시던  
그이의 말씀  
아, 오늘은 왜 이다지도 가슴저리게 울려오는것  
인가

오리오리 스며배인 만단사연  
오늘은 가슴헤쳐 말해다오  
오직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만난을 맞받아 헤쳐가시던  
조국수호전의 최전연산발들아  
사계절 어느 하루도 쉽없이 걷고 또 걸으시던  
초강도강행군 구내길들과 들길들아

정녕 다 말해다오  
날과 달을 이으며 불같이 흘러온  
그 선군세월속에

눈비에 젖고 땀에 젖으며  
언제나 우리의 그리움의 눈가에 비껴들던  
못 잊을 장군님의 야전복을

백두광야의 눈보라길 장장 수만리  
설한풍속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봄을 안아오신  
빨찌산 김대장 우리 수령님처럼  
준엄하고 시련에 찬 력사의 년대들을  
백두의 붉은기 높이 들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빨찌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무한한 열정의 바다를 지니신듯  
그리고 세차게  
그리고 즐기게 뛴뛴던 심장  
조국과 인민을 위한 빨찌산식강행군길에서  
깡그리 불태우시다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을 감싸고있는 야전복을  
어찌 오늘의 빨찌산복이라 부르지 않을수 있으랴

떨려야 떨수없이 친숙해지고  
가를래야 가를수없이 정이 든 그 모습  
천만심장에 새겨주고있나니  
그이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  
마지막순간까지 어떻게 고동쳤는가를...  
다시 다시 뛴뛴다 해도  
끝까지 가고가실 그이의 신념의 길  
정녕 어떤 길인가를...

아, 피눈물을 씻으며 우리 굳게 믿나니  
백두산이 낳은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대산줄기 억세게 뻗어내린 이 땅우에  
기어이 이룩할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김일성민족의 그 무궁번영할 세월속에  
언제나 장군님은 빨찌산복을 입고계시리라!  
인민의 마음속에 그 모습으로  
영원히 영생하시리라!

# 12월의 눈

조영일

눈 눈이 내린다  
하많은 사연을 속삭여주며  
하얗게 내리는 12월의 눈이어  
너 무슨 비분을 안고  
이 땅우에 무겁게 내려앉는것이나

맞고보내는 우리의 날과 달중에  
12월은 환희의 달이고  
영광의 달이어서  
내리는 눈송이마다에  
기쁨가득 실어보던 우리가 아니더냐

12월의 눈은 꽃이었어라  
어머님 그리워 달리는 가슴마다  
정겹게 피어나는 회령의 백살구꽃  
장군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 영광으로  
하늘땅 가득히 넘치는 꽃이었어라

12월의 눈은 축복이었어라  
새해의 첫새벽부터 한해의 마지막날까지  
초강도강행군길에 계신 우리 장군님  
그이를 따라서며 폭풍쳐달려온  
온 나라 인민에게 보내시는  
장군님의 따뜻한 축복이었어라

12월의 눈은 소원이었어라  
저 하늘의 태양이 있어  
이 땅우에 천만생명 꽃피나기에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이 나라 인민이 있기에  
그이의 건강을 바라고바라던  
간절하고 간절한 소원이었어라 축원이었어라

아, 꽃이 되고  
축복이 되고  
다함없는 소원이 되던  
12월의 눈  
오늘은 어이하여  
천만사람의 심장을 열구는것이나

말하라 12월의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내리고내리는 눈송이들아  
피눈물로 뜨거워진 이 땅을  
무거웁게 감싸안은 눈송이들아  
2011년의 12월이  
가슴터지는 이해의 12월이  
어떻게 이 땅에 새겨졌느냐

12월의 눈이어  
너는 보았으리라  
장군님 인민을 찾아 달리시던  
그 마지막야전렬차의  
창가의 불빛을  
또 너는 들었으리라  
그 강행군렬차의 기적소리가  
얼마나 뜨겁게 울렸는가를

12월의 눈이어  
너는 알리라  
장군님의 령전에 내리는 네 눈송이가  
이 나라 천만군민의 어깨우에  
천만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무겁게 내려앉았는지

12월의 눈이어  
너는 새겼으리라  
영결식광장에 연도에 선 모두의 가슴속에  
네 눈송이가 어떻게 새겨졌는가를  
이 나라에 생을 둔 천만의 심장속에 굵이치던  
그날의 맹세가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얼마나 열렬했는가를

오, 눈이 내린다  
12월의 뜨거운 눈이 내린다  
우리 장군님을 영원히  
천세만세 받들어갈 맹세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끝까지 한길을 갈 맹세로  
뜨거운 눈이  
12월의 하늘가에 내린다

## 약속의 메아리

김은희

약속이라고 하면 많은것이 포함된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어린 소녀애들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생을 걸고 하는 처녀총각들의 운명적인 약속이며 사선을 넘나들며 다지는 동지들간의 약속, 나아가서는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들간의 중대한 약속도 이 말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혹은 의미심장하게 나누어온 이 작은 단어에 그렇듯 크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운명적이며 철학적인 사색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내일생에 오게 될줄이야...

모든 사람들의 즐기찬 삶과 투쟁의 마지막달이었다.

용용하게 걸어온 생활의 걸음들을 서두르느라 바쁜 속에서도 다가올 새해와 아롱다롱 가지가지의 꿈과 소원들을 나누어보는 그토록 희망차고 보람찬 년말의 풍경을 깨뜨리며 절통하고 비애에 찬 곡성이 수도의 하늘땅을 진감하고있었다.

12 월의 얼음찬 대기를 찢으며 부르짖는 절통한 목소리들이 먼 하늘가에 부딪치고 되돌아와서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팡팡 부딪친다. 아버지를 찾고부르며 애절하게 웨치는 사람들마다의 부르짖음속에서 나는 류달리 통절히 들리는 한 사나이의 웨침을 가려들었다.

《장군님! 장군님! 가지 마십시오.

어미기계를 만들면 축하의 꽃다발을 가지고 공장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장군님, 장군님!...》

런하기계 과학자, 기술자집단의 한사람인듯싶었다.

피터지게 울며 웨치는 사나이의 눈물젖은 말마디들이 그대로 살이 되어 아프게, 아프게 내 가슴에 들이박힌다. 그것이 메아리가 된듯 두들겨 일구는 추억의 물결...

몇년전에 나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발자취를 찍으셨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을 취재한적이 있었다.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의 본보기문화가 창조된 곳이라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만족해하신 체육관을 돌아보면서 나는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

정말 훌륭했다.

그때 로동자들의 배구경기가 한창이었다. 감탄

하는 나에게 한 직장장은 이렇게 말했었다.

《정말 어버이장군님께선 그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결승경기할 땐 자신께서 꼭 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그래서 하루일을 끝내고난 다음이면 이렇게 맹훈련을 하고있습니다.》

느닷없이 떠오른 추억은 아픈데 추억속의 그 직장장은 벅글벅글 웃고있다.

아! 가슴을 친다.

우리의 어버이장군님 그렇게 남기신 약속 이 땅엔 얼마나 많고많은가.

룡전의 파원에 가면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사과맛경쟁을 해보라고, 그때 다시 오셔서 사과맛을 꼭 봐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다.

평양제 1 백화점에 가면 상품이 떨어지면 아무때나 나에게 편지하라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싶어 나도 아무때나 찾아오겠다고 종업원들에게 남기신 약속이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과 나누신 약속 천이라, 만이라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먼먼 선군장정의 장구한 나날 야전차로, 배로, 야전렬차로 인민들과 병사들을 찾아 조국땅 방방곡곡 안 가신 곳 없으시고 그 나날들에 장군님께서서는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기대를 담아 약속들을 남기셨다.

정녕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께서 믿음속에, 사랑속에 하신 약속들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삶의 지탱점이었고 래일에 대한 희망이었으며 억척같은 투쟁의 불씨였다.

어버이장군님과 나는 약속을 지키려 홍남의 로동계급이며 런하기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며 동봉의 농장원들이 낮에 밤을 이어 그리움의 노래 부르며 기적과 혁신의 불꽃을 자신의 창조물들에 새겨여왔다. 우리의 천만군민이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에 찬 삶과 투쟁으로 누비여왔다.

우리 장군님과 인민들이 나는 약속.

그 약속이 이 땅, 이 조선에 우리의 위성이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는 세기적변혁을 가져왔다.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우리 조국의 강대한 오늘을 안아왔다.

그런데... 그런데...

병사들에게 남기신 약속을 지키시려, 조국의 북변땅 광산의 로동계급과 한 약속을 지키시려

천리 먼길도 되돌아서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 정녕 오늘은 못다 지킨 약속을 인민에게 남기고 떠나가셨단 말인가.

아버이수령님탄생 100 뽕이 되는 2012 년에 사랑하는 인민에게 강성국가의 대문을 기어코 열게 하시려던 휘황찬란한 래일의 약속도 무지개빛구름에 싸여 두둥실 다가오고있는데 우리 장군님정녕 그렇게 심장의 고통을 멈추신단 말인가.

아니다, 이 땅 그 어디나 그이 남기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있는 한 우리 장군님은 정녕 가지 않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에게 크나큰 약속을 남기셨다. 력사의 당부를 남기시였다.

—사랑하는 인민들이여, 병사들이여!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라,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하게 이 땅에 강성국가를 꼭 일떠세우라.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너무도 생생하게, 너무도 짝 차있는 그이의 태양같은 영상에 그이의 절절한 당부가 크나큰 메아리되어 울려퍼진

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인민이 나누는 약속에는 시효란 없다.

그이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려 우리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일떠서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는 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하는 천만전사, 천만제자들이 있는 한 못다 지킨 약속이란 없으며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나이들도 울게 한 대국상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피눈물을 똑똑 떨구며 너나없이 천만군민이 새겨안은 우리 시대의 약속이라는 크고 숭엄하고 신성한 세계이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피눈물의 12 월의 언덕에서, 장군님의 령전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뜨거운 마음속 약속을 나누었다.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모시겠습니다.

그이 받들어 이 땅우에 장군님 념원하시던 강성국가를 기어이 우뚝 일떠세우겠습니다.

## 함께 계시다!

박현철

비통함에 절통함에  
아이들이 어른들이  
아버이장군님 태양상을 우러러  
밤새워 서있다 긴긴 겨울밤!

얼었다 더운 피 더운 눈물에  
강추위속에서도 얼지 않던 가슴들이  
아, 얼었다 피눈물에  
민족의 대국상에

찬바람 몰아쳐도  
봄날처럼 따뜻하던 12 월  
평평... 하얀 눈 쏟아져도 햇솜처럼 포근하던  
이 땅이 어찌하여 이리도 추운가

몰랐구나 정녕 몰랐구나  
아버지 한분 안계시는 집  
아버이 한분 안계시는 이 강토가  
이리도 얼음처럼 차디찰줄을...

허나 가시면서도 환하게만 웃으시는  
아버이장군님 자애로운 그 영상  
이제 못 뵈오면 다시는 못 뵈울것만 같아  
강추위속에서도 못 떠나는 호상의 긴긴밤

어디서 쏟아지는 해빛인가  
언몸을 따뜻이 감싸주며  
한모금 더운물로  
언몸 언 마음을 다 녹여준 아버지 그 사랑

크나큰 상실의 아픔에  
이 땅 누구보다 가슴이 무거우시련만  
인민들이 겨울밤 추위에 떨면  
환히 웃으시던 장군님 가슴아파하신다고

어서 내려가 대책들을 세우라고  
어서 인민들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라고  
일군들을 뜨겁게 깨우치신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따끈한 더운물 그 한고뿌에  
얼었던 가슴들이 봄날처럼 녹았다  
장군님과 똑같은 육친의 그 정에  
걱정의 눈물은 눈석이되어 흘러내렸다

긴긴 겨울밤!—  
춡지 않아라 얼지 않아라  
인민위한 **김정은**동지의 그 사랑속에  
아, 우리의 아버지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 전선길의 보도는 영원히 울리리라

리광선

숫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북받치는 오열을 가까스로 누르며  
지금 우리의 저 방송원은  
무엇을 보도하고있는가

아침 8시 30분...  
야전렬차에서...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  
자애로운 아버지 그 영상  
금방 뵈온듯싶은 마음인데  
우리 장군님 정령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던 말인가

불과 며칠전이 아니었던가  
우리 함남땅을 또다시 찾아오셨던것은  
인민이 입게 될 질 좋은 비날론보온내의며  
인민이 신게 될 구두의 무게까지 가늠해보시며  
날을 따라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것이  
너무도 기쁘시고 대견하시여  
날씨는 차도 마음은 후더워진다 하시던 장군님

방금 모시였어도  
떠나시면 또다시 그리워  
날마다 그이의 전선길소식 들으며  
가시는 곳마다 따라서던 우리 마음  
찾아가신 그곳에서 만족해하시면  
제일처럼 기뻐서  
저도 몰래 흥글빙글거리던 우리 생활

그런데...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그 생활이 끝났단 말인가  
이 세상 원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선군령장 우리 장군님의 강철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니  
아, 세상에 어제와 오늘이  
이렇듯 엄청나게 차이난적 있었던가

자신께선 초강도강행군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으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가지 일이라도 더 하시려다고  
늘 외우시던 우리 장군님

분명 그날도 그렇게 떠나셨으리  
인민에 대한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심장을 불처럼 태우시며  
자신을 너무도 혹사하신 장군님  
한평생을 분으로 쪼개고 초로 쪼개시며  
인민에게 다 바쳐오신 그이  
아, 그이에게 더 쪼개고 쪼갤  
분과 초가 더는 없단 말인가

아니다, 그이에겐 있다  
인민에게 바쳐갈 무한한 헌신의 시간이  
인민과 영원히 함께 있을 영생의 세월이  
이 땅에 새겨오신 헌신의 자욱들마다  
수물처럼 일떠설 선군의 기념비들이  
장군님의 무궁한 역사를 영원토록 전해가리니

선군의 보검을 이어받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위업을 계승해가시는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이제 그이 가시는 초소마다  
우리 장군님 계시리라  
그이 가시는 일터와 전야마다  
우리 장군님 리상은 더 활짝 꽃피나리라

장군님이 땅에 지퍼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세찬 불길에서  
함남의 거세찬 대고조불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는 줄기차게 흐르려니  
아, 우리의 령도자 **김정은**동지 계시여  
강성국가건설의 찬란한 승리를 펼쳐가며  
전선길의 보도는 영원히 울려퍼지리라

# 집에 대한 시

강인철

집이 아니건만  
집이라 불려야 하는  
달리던 렬차가 멈춰섰다  
그 집에 흐르던  
야전생활의 시간표가 정지되었다  
아, 그 집의 주인이 우리결을 떠나가셨다

그 집엔 있었다  
뜨끈한 온돌방이 아니라  
산처럼 쌓인 문건들...  
색날은 야전복 야전모  
인민에게 불편을 줄가봐  
늘 가지고 다니시던 소박한 야전식사

그 집의 창가에선  
적진을 짓궂게는 붉은 화살표와 더불어  
밤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그 불빛은 그 빛발은  
언제나 내 조국의 해돋이였고 밝은 해빛이었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번개처럼 달리는 그 집이 있었기에  
내 아들딸들 마음편히  
래일의 아름다운 꿈을 한껏 꾀지거나  
자고 깨면 행복의 변들이 이 땅우에 태동하고  
푸르른 저 하늘이 더 푸르렀던것 아니라

잠시라도 쉬시라고 청을 드리면  
이젠 렬차가 집이 되었다고  
떠나오신 집은 러관이나 같다 하시며  
습관처럼 법칙처럼 눈보라강행군길에  
고귀한 한생을 묵묵히 묻어오신  
위대한 인간이 계시던 집  
최고사령부의 야전렬차여!

눈보라사나운 광야  
주소도 번지도 없는 밀영에서 태어나시였건만  
인민이 누리는 락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선군의 큰결음을 떼신 그날부터  
문패도 울타리도 없는 그 집에서  
인민행통행증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장군님 가고가신 곳 천만리더나 억만리더나

인민이 잘살 때  
밀렸던 잠을 실컷 자보겠다 하시며  
자신의 심장은 그리도 가혹하게 태우시면서도

인민이 드리는 진정은 한번도 받으신적 없으  
셨기에  
아, 다시금 눈물겹게 안겨오는  
야전렬차의 그 딱딱한 침대여  
변변히 마를새 없었던 야전신발 야전장갑이여

조국수호전에 자아희생을 각오하시고  
인민의 부귀영화에 생의 목표를 거신분  
금시라도 야전복 입으시고  
인민을 찾아 렬차에 오르시려는가  
그이의 환하신 태양의 미소로  
온 나라 강산은 더욱 밝아지고  
야전장군의 혁명일과는 계속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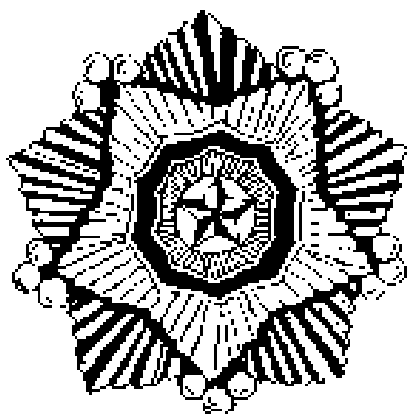
어찌 다시 오마 약속한 일터와 초소를 두고  
만수대지구에 넘쳐날  
강성국가 공민들의 새집들이노래를 듣지 못하  
시고

잠시라도 못 보면 그리워 못 견디는  
기다리는 인민 보고싶은 병사들을 두고  
선군의 야전렬차가 연착륙수 있으랴  
위인의 심장이 생의 고동을 멈출수 있으랴

기다리라 인민이여  
언제나 그리워했듯이  
더 눈부신 창조의 기념비들로 그이를 맞이하라  
전호가의 병사들이여  
우러러 받들어총 그이를 영접하라  
마중오는 세월이여  
장군님의 선군력사를 더 줄기차게 새기라

집이 아니건만  
집이라 불려야 하는 야전렬차  
그 집의 문패는 강성대국  
그 집의 주소는 **김일성**조선  
그 집의 주인은 어제도 오늘도 **김정일**장군

위대한 성인은  
위대한 생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세월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급행렬차에 계신다  
이 행성을 진동하며 세계를 굽어보며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탈선도 미정도 모르는 조선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종착역으로 정시로 간다!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101(2012)년 제1호

(루계 제 771 호)

◇◇◇◇◇◇◇◇◇◇

## 차 례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b>김정은</b>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	35
새해의 소원(시)	37
우리의 소원(시)	38
<b>위대한 김정일</b>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b>이바지하는 명작창작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b> (머리글)	39
조국이며 앞으로(시)	41
선군혁명문화건설의 자랑찬 한해로 빛내일것이다	42
이해의 마지막날까지 불길처럼 뜨겁게	43
시대가 요구하는 시들을	43
우리 어깨의 짐은 무겁다	44
평론가로서의 사명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45
<b>위대한 수령</b> 님의 추억속에	53
만경대와 포평(시)	53
<b>깊은 뿌리</b>	46
<b>주체문학의 대강</b>	60
<b>주체문학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기치</b> (론설)	55
<b>아이적 목소리</b> (단편소설)	63
눈내리는 만수대지구건설장	54
병사는 전투훈련명령을 받았다	59
출선종소리 울려라!	60
새해! 흥남은 격전의 시작을 알린다	61
첫 새벽문을 열고	61
위훈으로 수놓자	62
말아들의 맹세	77
들로 나가자	77
시인의 고유한 언어발에 대한 생각(연단)	78
소식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결과	45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100(2011)년 10월8일유훈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주체100(2011)년 12월 3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  
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100(2011)년 10월8일유훈에 따라 조선로  
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는것을 정중히 선포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  
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비분으로 피눈물을 삼키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통남산마루에서 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이실 력사의 선언을 하시던 그 나날로부터 장장 수십  
성상 우리 조국의 통성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체휼해보지 못한 온갖 고생  
을 다 겪으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로 정식화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온 사회 주체사  
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인민대  
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우리 혁명무력은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펼칠  
수 있었으며 경제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고 20세기 문예부흥의 새로운 개  
화기가 펼쳐질수 있었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  
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민족의 대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

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선군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위력한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으로 전변시키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시대에 우리 조선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대강국으로 솟아올랐으며 확고한 정치군사적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결정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나날에 승리할 때일을 내다보시고 경제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1세기 경제발전의 추이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CNC공업화의 초행길을 개척하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장쾌한 포성이 울려 퍼지고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시대로 이행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다.

삼복철의 무더위와 폭우, 대소한의 강추위와 사나운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석수쏟아지는 지하막장과 바람세찬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며 2012년으로 향한 전인민적대고조진군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서 행복과 번영의 때일을 예고하는 승리의 변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전당, 전국, 전민을 최후돌격전으로 부르는 함남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한평생을 야전일과로 수놓으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 불세출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다.

결정서는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고 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고 해당한 결정들에 언급하였다.

결정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통일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펼치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데 대해 언급하고 해당한 파업들을 제시하였다.

결정서는 우리 조국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문화건설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21세기 문명강국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심의하였다.

새로운 대전군에 펼쳐나선 천만국민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신다.

— 공동사설에서 —

## 새 해 의 소원

황 명 성

노을 붉은 동녘하늘 저 멀리  
태양송가의 숨엄한 선물에 실리어  
새해 첫아침의 새날이 밝아오니  
가슴에 더더욱 그리워지는  
그리워 그리워 사무쳐오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생각

벽찬 환희와 걱정으로 맞아야 할  
내 조국의 새해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2012년  
하건만 우리 어이하여 눈물을 머금고  
장군님의 태양상앞에 서야 하는가

만경대일가의 혈통을 이어  
백두산일가의 났을 이어  
아버이수령님위업 만대에 펼치시려  
흐르는 해와 해 년대와 년대에  
열화같은 충정을 없으시며  
2012년을 불러오시던 그이

하늘의 총총한 별무리처럼  
이 땅에 새기신 자옥자옥은  
수령님의 100년사를 빛내이실  
그이의 숭고한 의지였기에

수령님탄생 100돛이 되는 이해에  
수령님 한평생 바라신 그 념원대로  
강성국가의 대문을 기어이 여시려  
겹쌓이는 피로도 잊으시고  
온 한해 초강도강행군길에 계시었더라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도  
용감한 희천의 근위병들을 찾아  
룡림의 아슬한 언제에도 오르시고  
동해천리 머나먼 길  
미더운 대흥의 영웅광부들을 찾아  
마천령의 험한 고개도 넘으시고

수령님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고

온 한생 심혈을 바쳐 로고를 바쳐  
이 땅에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그 자옥  
선경마을 무릉도원의 과일향기들이  
양어장마다 옥실거리는 고기떼들이  
사랑의 그 전설을 전해주는가

우리의 위성이 날으는 푸른 하늘아래  
바다를 밀어내고 넓어지는 새땅  
현대화의 동음속에 쏟아져내리는  
주체철이며 주체비로 주체비날론...  
수령님께 그 기쁨 아되고싶어  
더해만지던 장군님의 소원이여

오직 그 소원으로 그 열망으로  
세월을 당기며 세기를 주름잡으며  
우리 장군님 달리는 야전차에 온 한해 계시었어라  
뜻깊은 2012년 4월의 봄을 향해  
수령님의 인민행렬차에  
천만가지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선군시대의 만복을 신고

아, 장군님 바치신 한평생  
불타는 소원으로 밝아온 새해  
평양번영기의 새로운 속도로  
단숨에 땅을 박차고 솟구쳐오른  
만수대지구의 멋쟁이 초고층살림집만이라  
함남의 불길 세찬 내 조국 방방곡곡에  
숲을 이루는 창조와 위훈의 기념비들

그렇더라 정녕 그것은  
수령님의 뜻으로 인민을 위해  
원대한 구상을 안고 고동치시던  
백두산의 아들 그이의 담대한 심장이  
이 강산에 안아온 주체의 락원 조선의 모습!

세제는 들으리라  
영생의 태양이 빛을 뿌리는 이 땅에  
강성국가의 대문이 열리는 소리  
정일봉의 장엄한 우뢰인양  
또다시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김일성광장에 진동하는  
일심단결의 메아리 승리의 함성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수령님의 력사 태양의 위업  
주체년호와 함께 세기와 세기를 이어  
천세만세 세월의 끝까지 빛내가리라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은동지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어  
성스러운 태양의 위업 영원불멸하고

수령님의 력사 장군님의 세월 천년만년 흘러  
흘러

김일성민족은 무궁번영하리니

새해의 소원은 오직 하나  
천만군민의 백옥같은 마음속에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 우러러 드리는 인사  
해와 달이 다하도록 세월이 다하도록  
김정일장군님이시여  
영생하시라 길이길이 영생하시라!  
김정은동지이시여 부디 건강하시라!

## 우 리 의 태 양

김 남 호

만물에 생을 준 태양에 비기라  
피눈물의 바다에서  
비분에 통곡하며 울던 인민을  
그처럼 따뜻이  
그처럼 역세게 안아일으키신 그이

그 품에 안겨  
장군님의 령전에  
목숨같은 맹세 무겁게 얹으며  
우리는 역세게 일떠섰거니  
보아라 노도같은 인민의 기상을  
더욱 거세차게 퍼덕이는 백두의 붉은 기폭을  
그이는 새로운 승리로 부르셨다  
우리 태양민족을 김일성조선을

오, 우리모두의 심장  
그이의 위대한 심장에 피줄을 이어  
높뛰는 약동의 숨결속에  
태동하는 2012년 승리의 봄

인민의 리익을  
모든것의 첫자리에 놓으시며  
인민을 위한 성스런 복무를 선언하시는  
거룩한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수령님의 모습을 본다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본다

정녕 해빛없이  
운명의 태양없이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태양민족을  
우리의 김정은동지! 오직 그이만이  
안아일으킬수 있었나니

그이는 우리 운명의 태양  
천백번을 다시 뵈옵고

천만번을 다시 우러러도  
그이는 달리 부를수 없는 조선의 태양  
태양민족을 위해 이 나라 조선을 위해  
하늘이 내신분 우리의 태양

4월의 영광 2월의 위업이  
그이의 령도따라 만대에 빛나리니  
크나큰 충정의 열화는  
천지를 들끓인다  
인민의 가슴에 아낌없이 흘러드는  
그이의 사랑의 따사론 해빛은  
한없는 격동속에 미래를 밝힌다

해빛은 쏟아져 다함없으리  
대지우엔 만복이 아름답게 꽃피리  
번영의 CNC는 강산을 뒤덮고  
무진막강한 군력의 서리발총점이 지켜주는  
행복의 노래는 창공에 끝없이 울려가리

백두의 혈맥은 삼천리에 굳게 이어져  
통일된 조국을 목메여 불안고  
민족의 태양 그이 우러러  
겨레는 목청껏 만세 부르리  
온 세상에 김일성민족의 존엄 한껏 펼쳐가리

아, 은혜로워라  
끝없이 거룩하도다  
우리의 태양 김정은동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민은 오직 한마음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한 량심으로  
그이를 따르고 받들려니  
인민의 념원우에 받들려  
백승의 한길로 우리를 이끄시라  
이 조선 길이 빛내시라

# 기자, 언론인들은 붓대로 당을 옹위하는 사상적근위병이 되고 대고조진군의 나팔수가 되라!

— 공동구호에서 —

머리글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명작창작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새해 주체101(2012)년이 밝아왔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커다란 상실의 아픔속에 새해를 맞이하였다.

대국상의 해를 보내고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100년사를 크나큰 걱정속에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었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며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들인 우리 작가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의 호소를 심장깊이 새기고 함남의 편지에 호응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일 각오를 안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에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가야 합니다. 수령님을 따라서 시작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 작가들은 우선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치던 12월의 피눈물바다속에서 다진 맹세, 아버지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그 맹세를 영원토록 잊지 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태양의 위업, 수령님의 위업을 이어 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이실 력사의 선언을 하신 그날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조국의 룡성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이었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조국땅위에 일떠세우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운동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시였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오르게 하시여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삼복철의 무더위와 폭우, 대소한의 강추위와 사나운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아 초강도의 강행군길을 이어오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순간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달리던 야전철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한평생을 야전일과로 수놓으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혁명가, 불세출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혁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담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천세만세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토록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는 수령형상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를 더 잘 구현하여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여야 하며 그 예술적감화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 창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수령님의 위업, 장군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신념과 의지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며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될 올해의 장엄한 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상과 령도, 인품과 덕망, 담력과 배짱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장군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태양민족의 찬란한 앞날을 확신하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에 넘쳐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한분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여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기세차게 나아가고있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대고조전구들마다에서 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올릴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함남의 불길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비롯하여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거창한 현실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의 영원한 원천지이다. 명작창작의 비결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는데 있다.

우리 작가들은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내려가 들끓는 현실을 깊이있게 체험함으로써 흠뻑새, 기

계를흠뻑새가 진하게 나는 작품, 대중의 마음과 감정정서가 반영된 작품,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현시대는 실력전의 시대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의 실력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자신의 실력을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고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 발표 20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창조와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들고나가며 장군님의 불멸의 문학령도업적을 우리 문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삼고 그것을 옹호고수하며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하여 우리 작가들이 쓰는 작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만이 차남치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 문학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여 자기의 실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소설, 시, 희곡, 아동문학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21세기를 대표할수 있는 명작창작전투에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총돌격해야 한다.

창작은 심장으로 하는 전투이다.

우리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태도와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시대의 미학적리상과 새 세기의 미학적요구에 맞는 작품,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시대의 걸작, 우리 당이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창작전투에 자기의 온넛과 심장을 깡그리 불태워야 한다.

그리하여 **김일성**조선의 100년사와 더불어 길이 남을 명작들로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선배작가들처럼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높이 올려가신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명작창작으로 받들며 그이의 영원한 선군혁명동지,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이여.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 위대한 장군님 탄생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 조국이며 앞으로

한 원 희

피눈물을 머금은 새해가 밝았다  
아버이장군님을 잃고  
피눈물의 바다에서 몸부림치던 인민이  
슬픔을 눌러두고 일떠섰다  
조국이며 앞으로

위대한 생애의 끝까지  
지난해 마감달 12월까지  
아버이 우리 장군님 열어오신  
2012년 새해  
우리 **김정은**동지의 손을 잡고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조국이며 앞으로

하늘가득 비껴오는 노을은  
아버이령전에 다진  
우리의 피타는 맹세가 어려  
온 나라를 붉게붉게 물들인다  
하늘이 무너지대도 변함없을  
인민의 불타는 신념이 어려  
온 누리에 장엄히 불타오른다

아, 2012년!  
아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이 되는 이해  
이해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승리로 펼치자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말씀 그 유훈을  
어길수 없는 맹세로 천만의 가슴에 새겨주시며  
새해의 총진군으로 부르신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아버이장군님 높이 드셨던 붉은기  
더 높이 더 높이 추켜드시고  
불이 되어 폭풍이 되어 나아가는  
대비약 대진군의 진두에 계시는 그 모습

아버이장군님 지니셨던  
백전백승의 지략과 예지  
강철의 담력과 의지를 그대로 지니신  
또 한분의 천출령장  
그이를 우러러  
인민은 걱정을 터뜨린다

영명하신 **김정은**동지이시여  
우리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랴  
아버이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른것처럼  
굳게굳게 믿고 받들리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백배로 다져지는  
이 일심단결의 힘  
이 혼연일체의 위력  
이 만능의 보검을  
아버이장군님 물려주셨거니

고난이 무엇이랴 시련이 무엇이랴  
거세찬 폭포처럼 쏟아지랴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었던  
주체철쇠물이며 비날론숨이며 주체비료여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랴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었던  
CNC공작기계여  
현대화의 숨결높은 공장들이여  
벌가득 벌가득 알곡의 메부리 쌓아올리랴  
우리 장군님의 자욱이 어린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업전선이여

조국땅 방방곡곡에 세차게 나래친다  
아버이장군님의 기상  
우리 **김정은**동지의 기상  
선군조선의 기상

이 한해에 10년 100년의 위훈을 안아오라  
슬픔을 눌러두고 일떠선 인민이  
어떻게 위대한 기적을 낳는가를 보여주자  
우리 기어이 장군님 강성부흥구상을 이 땅우에  
펼치며  
4월의 대축전장에 승리의 만세소리 터치리랴

영원한 우리의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손들어 가리키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끄시는 이 한길  
주체혁명위업의 한길 선군의 한길우에  
총진군의 북소리 강산에 메아리친다  
조국이며 앞으로 앞으로!

# 《작가들은 진심으로 자기 수평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노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

## 새해결의묵음

### 선군혁명문학건설의 자랑찬 한해로 빛내일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영광의 주체101(2012)년이 밝아왔다.

가슴 찢릿하다. 류다른 감회로 하여 눈굽은 뜨겁다.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2012년을 향하여 과연 우리 인민은 얼마나 먼길을 걸어왔던가. 불세출의 위인,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의 창조물을 이 땅 방방곡곡에 세우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헤쳐왔던가.

그 길에서 너무도 뜻밖에 아버지장군님을 잃는 대국상을 당하고 곡성을 터치며 걸어온 낮과 밤들, 12월의 강추위속에서 흘린 피눈물은 또 그 얼마였던가!...

그렇게 넘어온 한해였고 아직도 가슴속에 가득 차있는 피눈물을 걸음걸음 씻어삼키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르심따라 주먹을 부르쥐고 억척같이 올라선 이 령마루 2012년!...

경건해지는 마음... 지금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따르며 피눈물 속에서 완성한 총서작품들을 안고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 대추전광장으로 가고있다.

2012년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분수령으로서 우리 인민이 가슴에 안고온 희망이며 목표였었다. 강성국가건설의 역센 신념이였고 약속이였다. 그리고 우리모두의 가슴에 간직된 미래였었다. 그 미래는 멀리 있지 않았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와있었다.

그리하여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을 따라 시련을 박차며 2012년을 향하여 총진군해왔었다. 희천의 군인건설자들은 물론 함남의 불길을 높이 추켜든 룡성과 흥남, 대흥과 룡양의 로동계급, 련하기계의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농장의 조선인민내무군과 618건설돌격대원들, 미곡과 동봉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 인민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날에날마다 영웅적위훈을 세워왔다.

그러다가 그만 대국상을 당할줄이야....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를 일떠세워주시었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어 우리 작가들은 다시금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울리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대교향곡에 맞추어 우리 작가들도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과 함께 땀흘리며 시대의 서사시를 엮어나갈것이다.

사실 우리 작가들은 장엄한 우리의 선군시대를 이뤄지지 않는 잉크로, 심장의 피로 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격동적인 이 시대를 심장의 피로 쓰며 그 하나하나의 글줄들이 그대로 시대의 송가가 되고 선군의 력사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듯 무거운 시대의 책임감을 안고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자기의 신념과 량심이 피와 땀으로 새겨져있는 시대의 송가작품들을 계속 쓰고있다. 총서작품들의 저자로 독자들에게 친숙해진 여러 로작가들이 부피 두터운 초고배낭을 메고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으며 그뒤를 따라나선 젊은 작가들의 모습 또한 엄숙하다. 피눈물을 씻으며 공동구호와 공동사설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새 출발진지에 나선 그들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불타는 맹세가 끓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우리모두의 자서전에 2012년은 피로써 다진 맹세의 해, 결사관철의 해, 영광의 해로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은 더더욱 신들메를 든든히 매고 시대의 부름에 화답할것이다. 피끓는 우리 심장의 맥동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의 발걸음에 맞추고 시대의 명작들을 짙짙 써내려 경사스러운 2012년을 선군혁명문학건설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일것이다.

4.15문학창작단 **김일성**상계관인 정 기 증

## 이해의 마지막날까지 불길처럼 뜨겁게

주체비료, 비날론, 최첨단지열뿔프, 마그네샤크 링카, 연, 아연...

부강조국을 받드는 우리 함남의 로동계급의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름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 가 깃든 이름들이다.

한해에도 여러차례씩 우리 함남땅을 찾으시여 강성국가건설의 거세찬 불길을 지펴올리는 선구자들로 온 나라의 앞장에 우리들을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이 새겨져있는 이 땅.

천만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우리 로동계급의 뜨거운 눈물이 깊이 스며여있는 이 땅.

그 나날 어버이장군님 해빛과도 같이 밝게 웃으시는 태양상을 우러르며 우리 마음속으로 눈물속에 맹세다진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신념과 의지의 맹세였고 그 길에서 언제나 장군님 믿음을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구자로 살리라는 심장의 굳은 맹세였다.

올해는 2012년!

우리 장군님 뜨거운 심장속에 간직하시고 그리도 고대하시며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해,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어버이장군님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강성국가

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껴야 할 해이다.

할일은 많고 과업은 방대하다. 그러나 결의는 높고 기세는 충천하다.

경애하는 장군님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을 강성국가건설의 영원한 불길, 승리의 불길로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 못해낼 일이 없다. 이것이 공동구호와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여기 함남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로동계급과 농민, 과학자, 기술자 할것없이 누구나의 심장속에서 끓는 결의이다.

우리 함남땅의 작가들도 례외가 아니다. 장군님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영원한 선군붓대가 되려는것이 우리 작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들끓는 현실에 뛰어들자. 함남의 불길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도 그 불길의 주인공, 그 불길의 창조자가 되자.

그리고 그 불길처럼 뜨거운 작품을, 시대의 정신이, 녀이, 열정이 맥박치고 더운 피를 더욱 끓게 하는 그런 뜨거운 작품을 쓰자.

이것이 뜻깊은 새해의 첫아침 로동계급과 한데 오에 서서 심장으로 다지는 맹세이며 결의이다. 이 결의를 지켜 이해의 마지막날까지 불같이 살아갈것이다.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 시대가 요구하는 시들을

12월의 피눈물에 젖었던 시가의 붓대를 총창인양 억세게 버려안고 영원한 동행자들의 한사람인 시인 나도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치는 장엄한 대진군의 행군길에 올랐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시대의 벅찬 숨결이 맥박치는 격문과도 같은 시를 쓰자고 다짐도 컸지만 올해는 그 충동과 욕망이 류다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주체100년사를 빛나게 총화하는 특기할 력사의 해여서,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가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새해여서 내 쓰는 시도 달라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충정으로 받들어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강성국가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해 용기백배 산악같이 솟구쳐올라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는 천만군민의 발구름이 내 쓰는 시가의 정서가 되고 운율이 되게 하자.

하여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앞에서 흘린 피보다 진한 맹세의 눈물이 그리움의 심장속 깊은 곳에서 샘솟은 량심과 의리의 맑은 구슬, 신념의 백옥이였음을 내 원고지 칸칸에 올리는 시가의 어휘와 행, 련들이 뜨겁게 속삭이며 웨치게 하리라.

내가 써야 할 시는 안온한 창작실의 탁상머리에 있지 않다. 선군시대의 전형들을 찾아 창조와 위훈이 나래치는 변이 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판철의 투지를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당앞에 지닌 시인의 사명감을 다하도록 하겠다.

종군길을 걷는 시인이 되어 공동구호와 공동시설, 함남의 편지를 받아안고 뛴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고 쇠소리가 쟁쟁 나고 구수한 흙냄새, 땅냄새가 풍기는 시들을 왕성하게 쓰자. 이렇게 심장에 절절히 호소하는 시인인 나는 뚫어오

르는 창작적열정에 넘쳐 들끓는 현실속에 몸을 잠그고 사색과 탐구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훌륭한 시들을 꼭 쓰겠다. 이것이 전투적인 새해를 맞는 시인 나의 결의이다.

시인 황 명 성

## 우리 어깨의 짐은 무겁다

주체101(2012)년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온, 하많은 아름다운 희망으로 심장을 뛴게 하여준 류다른 해이다.

**김일성**민족의 영광찬란한 100년사가 빛나게 총화되고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환희의 해, 더더욱 통성변영할 내 조국의 미래가 손짓하여 부르는 행복의 해여서...

바로 그 새해가 밝아왔다.

하지만 가슴속엔 피눈물이 그들먹이 고여있다. 우리의 하늘이고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뼈저린 아픔이, 절통함이...

민을래야 믿어지지 않는 민족의 대국상에 몸부림치던 오열을 미처 멈추지도 못한채 슬픔의 피덩어리들을 가슴속 깊은 곳마다에 묻고 맞이한 새해, 태양처럼 환하신 우리 아버지장군님의 미소가 비끼지 않은 하늘은 빛이 없을것이라고 여긴 새해. 그러나... 2012년의 이 새해 아침은 너무나 밝고 눈부시다.

비통함속에서도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2012년, 이해가 과연 쉽게 왔던가. 강성국가의 문패가 세상을 향하여 황홀하게 번쩍일 그 순간을 위하여 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음걸음이 주름잡고 앞당겨 탄생시킨 이 새해가 아니었던가. 이 눈물겨운 탄생을 위하여 장군님의 심장은 마지막피방울까지 그렇듯 짙그리 태우며 역세계 고동친 것이었다.

지금껏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해온것이 끝없이 죄스럽다.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소설가들은 자기들의 소설작품이 저 주체철불노을에 한줄기 빛으로 보태지고 흥남의 비날론폭포에 한오리 섬유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아아한 희천의 언제우에 한방울의 령룡한 땀으로 빛나기도 했다고 은근한

궁지를 느꼈었다.

나 역시 조국해방전쟁영웅주체 장편소설을 출판에 회부한것으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다소나마 고무줄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감을 느껴오지 않았던가.

돌이켜보니 시대앞에 너무도 홀가분한 짐을 지고 걸어온 지난 한해였다.

너무도 뒤늦은 깨달음에 가슴이 찢긴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땅의 천만자식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떨어버린 짐들을 다 떠맡아지신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삶으로 이토록 눈부신 새해를 떠안아오시지 않았는가.

아니, 절통한 후회로 가슴을 두드릴 겨를이 없는 우리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강성국가의 래일로 이끌고저 분연히 나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만은 구실 못하는 자식들의 짐을 던지울수 없다.

소설가로서의 내 어깨의 짐은 무겁다.

위대한 선군시대가 날마다 날고있는 새로운 영웅적이며 매혹적인 인간성격을, 날마다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하여 내닫는 우리 조국의 비상한 진보를 더욱 채찍질할 새로운 기백있고 이채로운 묘사방식을 창조하리라.

당면하여 아버지수령님탄생 100돐에 드리는 수령형상단편소설을 향기그윽한 꽃다발로 엮으리라.

헛치 않은 목표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장군님께 못다한 충정을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바치는 참된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새해앞에서의 나의 첫 약속, 첫 결의이다. 아니, 우리의 모든 소설가들의 심장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고동치고있다.

소설가 정 영 종

## 평론가로서의 사명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가장 위대한 평도자, 가장 위대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하늘이 울고 산천초목이 몸부림치고 우리 전체 인민이 비분으로 태질하던 피눈물의 12월이 지나고 주체101(2012)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이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인 강성국가의 문패를 달리라 희망 가득 부풀리었던 이해의 아침에 우리모두의 가슴을 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의 하늘이고 태양이시며 우리 행복의 전부이고 선군조선의 상징이라느것입니다.

하기에 오늘 우리 다지는 결의는 바로 심장의 피눈물로 끓이고 굳힌 맹세일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처럼 눈부신 영상을 우리러 우리 평론가들도 생전에 그이께 못다 바친 충정을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바칠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문학예술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데 평론의 근본사명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평론의 영원한 지침입니다.

올해에 아버지장군님의 문예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평론가로서의 필봉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자신의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버이장군님의 영생을 추원하고 그이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칭송하는것은 조선인민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강렬한 시대적감정이며 이것을 문학작품에 그대로 구현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조국앞에, 력사앞에, 인민앞에 지닌 신성한 의무이고 숭고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론가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문학작품들에서 아버지장군님의 영생을 추원하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위대한 력사가 뜨겁게 노래되도록 선도자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군시대의 숨결이 문학작품에 잘 구현되도록 부단히 새로운 시대적문제를 제기하고 작가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평론들을 창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군시대의 절박한 요구의 하나인 첨단단돌과의 시대적요구를 자신의 창작생활에로 적극 지향시키겠습니다.

실적이자 실력의 높이이며 그 실력은 곧 자기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꾸준히 학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기성평론들에서 이미 제기한 문제의 답습이 아니라 새로우면서도 절실한 문제들을 반영한 수준있는 평론, 격이 있는 평론들을 창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하게는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진행하고있는 전국문학축전에 평론가로서의 얼굴을 뚜렷이 내보일수 있는 가치있고 특색있는 작품을 창작하여 당당히 입선하겠다는것을 《조선문학》잡지 지면을 통해 결의합니다.

평론가 김봉민

### 《조선문학》축전상 시상결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운동은 작가들이 사회정치생활과 창작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문학의 사회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100(2011)년 제15차 《조선문학》축전상 시상모임이 있었다.

입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 《눈보라치는 날에》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안명국

단편소설 《천리마를 탄 처녀》 4.15문학창작단 작가 림봉철

단편소설 《갈대숲서정》 조선인민군문예창작사 작가 박성호

단편소설 《책임》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라광철

실화문학 《심장은 사랑으로 뜨겁다》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작가 김정일

서사시 《비날론》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위원장 주명옥

시초 《조국과 녀인》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럽형미

서정시 《내 녀의 어머니》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 새별동 김철혁

평론 《시인의 심장이 불타면 시대의 서정은 뜨겁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작가 김봉민

# 검은뱀리



최 종 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신 야전승용차는 밝은 전조등으로 희뵈한 새벽대기를 헤가르며 달리고있었다.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신채 지방당조직으로부터 올라온 어느 한 군부대의 원민소행자료문건을 다 보고나신 장군님께서서는 더욱도록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새벽어둠은 야전차의 밝은 불빛에 바빠 쫓기며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드러내보이고있었다.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실 무거운 짐이 그이의 어깨우에 실리고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쉽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제라도 휴식을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좌석에 앉은 총참모부의 일군 조성국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말을 밀막으시며 기쁨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아니, 도무지 피곤을 모르겠구만. 더군다나 이 문건을 보니 그동안 전선길에서 쌓인 피로가 순간에 풀리는것 같소.》

장군님께서서는 지금껏 보시던 문건을 들어보이시며 조성국에게 고개를 돌리시였다.

조성국은 그것이 어떤 문건인지 너무도 잘 안다. 박경호소속부대의 군민관계소행자료였다.

그 려단이 주둔지역 농장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본때있게 벌려나가고있다고 한다.

알곡과 과일수확고를 늘이자면 뭐니뭐니해도 지력을 높여야 한다며 부대목장에서 나오는 많은 거름과 발전소언제기초파기때 나온 질 좋은 감탕흙까지 논과 밭, 과수원에 내주었고 20리가 넘는 물길공사도 하여 논벼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소행자료가 그에게 큰 기쁨으로 되었을것이다. 돌이켜보노라면 그이께서 제일 기뻐하실 때가 바로 인민군대가 인민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는 소식을 보고받으실 때였다.

지금도 그의 머리속에는 어느해인가 공군부대안의 한 정치일군이 주인모를 소를 끌여온 군인들을 잘 타이르고 그들과 함께 협동농장을 찾아가 소를 돌려준데 대한 자료를 보고받으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환하신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그때 겨울나이준비에 동원된 군인들이 잃어버린 중대소를 찾던 도중 주인없이 헤매는 소를 끌여온것을 알게 된 정치일군은 지체없이 군인들과 함께 백여리밤길을 걸어 농장에 찾아갔다.

정치일군이 먼저 인민들앞에 사과의 말을 하고 뒤이어 두 병사가 자책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자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가 다르긴 다르다고 한 인민들의 절절한 감사의 마음이 적혀진 그 문건을 보시고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 정치일군에게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어야 하겠습니까.》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참, 이제 나지는 갈림길이 경호동무네 려단쪽이겠구만.》

《예...》

생각에서 깨어난 조성국은 그이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한채 어정쩡한 어조로 대답올렸다.

《박경호네 려단에 한번 들려보고 가지요.》

《예?! 저... 후에 들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벌써 열흘나마 전선길에 계셨는데...》

《꼭 들려보고싶구만. 지금껏 시간을 못 났는데 옆을 지나치면서까지 우리가 그냥 갔다는것을 알면 박경호동무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그이의 어조에는 사랑하는 전사에 대한 대견함이 짙게 어려있었다.

《하지만...》

조성국의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빠질빠질 타들었다. 그이를 몸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는 자기들이 구실을 못하여 제때에 휴식시간마저 보장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또 일정에 없었던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겠다니 이런 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자책감에 바재이는 조성국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였다. 자나깨나 장군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마음쓰는 일군이다.

그이께서는 그를 위로하듯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성공동무, 우리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건설하구 인민들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잘살게 되면 실컷 자보자구. 이 허리가 빠근할 정도로 말이요.》

조성국은 목이 짝 메여올라 더 말씀드릴수 없었다. 달리는 야전차가 침실이 되고 집무실이 되어 눈물겨운 쪽잠과 췌기밥전설도 생겨났으니 전선길 천만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눈물겨운 헌신의 천만리였다.

《내 이제라도 잠간 눈을 붙이겠으니 경호동무 네한테 꼭 들려봅시다. 차속도를 최대로 높여야겠소. 왜 그런지 차가 빨리 달려야 잠도 더 잘 오거든. 아마 이젠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진가보오.》

《장군님...》

미안하신 어조로 거듭 당부하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던 조성국은 두눈을 습벅이며 슬며시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며 두눈을 지그시 감으시였다. 그이의 사색속에 박경호려단장의 모습이 언뜻 비껴들었다.

병사시절을 정찰구분대에서 보낸 박경호는 싸움군의 전형이라고 할 정도로 군인기질이 몸에 폭배인 지휘관이다. 그에 대하여 언제부터 각별히 관심을 돌리게 되셨던가?

그것은 몇해전 그의 부대가 겨울철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였다.

험악하기 그지없는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훈련이였다.

레년에 없는 강추위, 허리치는 생눈길, 아찔한 절벽... 이제 그 설령을 넘어 진입계선까지 당도하려면 결정적으로 시간이 모자랐다.

강평원들도 손을 뻗혀 내쫓던 그 시각 박경호려단장은 모두가 감탄하여마지않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기존관념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기발하고 모험적인 전술방안...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솟구쳐올라야 한다는 굳센 신념과 배짱이 없이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훈련 전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래서 표창도 크게 해주시고 박경호에게는 친히 장령의 군사칭호도 수여해주셨던것이다.

왕성한 패기와 정열, 깊이가 있으면서도 폭이 넓은 전술적시야, 결단성있는 결심채택, 완강한 실천력...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이런 장점들을 귀중히 여기

시였다. 그후 나라가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시기 최고사령부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중부산간지대로 부대를 옮기게 되었을 때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지휘부청사와 병영은 물론 군인사택까지 번듯하게 꾸리는 한편 훈련강령을 한치의 드립도 없이 집행하느라고 불철주야로 헌신분투한 박경호였다.

한가정을 이끌고나가자 해도 힘든 시련의 그 시기에 술한 인원과 전투기술기재까지 다 떠안아 옮겨앉으려니 얼마나 수고 많았겠는가.

그것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몸소 박경호 소속 부대를 찾아주신 장군님이시였던것이다.

차의 고르로운 진동속에 몸을 맡기신채 그이께서는 그때의 추억을 더듬어보시였다.

선참 떠오르는것은 영점보고를 하기 위하여 씩씩하게 정보행진으로 다가와 거수경례를 하던 박경호의 모습이었다. 그동안 겪은 고생의 흔적인듯 해별과 바람에 뜬 꺼칠하고 거무스레한 살결, 피곤에 다물린듯 충혈진 두눈과 물통게가 앓은 입술...

한데도 그의 얼굴은 장군님을 부대에 모신 크나큰 기쁨과 행복으로 하여 한껏 밝아있었다.

폭 꺼진 그의 불살이며 깊어지기 시작한 주름살을 눈여겨보시는 장군님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아프시였다. 전사에 대한 미더운 감정으로 그의 손을 짜악 틀어잡으셨는데 순간 전류처럼 가슴에 미쳐드는 짜릿한 느낌이 드시였다.

얼마나 일에 부대졌는지 찻찻이 썩살이 앓은 그의 손바닥에서부터 안겨오는 감각이였다.

그의 모습에서 장군님께서서는 러단 장병들이 헤쳐온 고난을 다 헤아리시였다. 그래서인지 번듯하게 꾸려진 지휘부청사와 군인회관, 관하직속단위들의 병실들과 실리있게 꾸려진 염소목장건물 하나하나를 무심히 돌아볼수가 없으시였다.

자식의 성장을 두고 기뻐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장군님께서서는 시간이 넉넉치 못했지만 부대가 새로 꾸리기 시작했다는 훈련장도 돌아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저... 거긴 길이 너무 험해서...》

박경호려단장은 말끝을 흐리였다.

《일없소.》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만류를 가볍게 물리치시며 먼저 차에 오르시였다.

훈련장은 지휘부에서 10여리 떨어진 황룡산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장군님을 모신 야전차는 나지막한 야산의 과수원을 옆에 끼고 내달렸다. 때는 봄철이라 과수원에선 하얗고 불그스레한 꽃들이 활짝 피어나 열려진 차창가로 진한 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벌써 사과꽃철이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이채로운 봄풍경을 즐겁게 감수하며 누구에게라없이 뇌이시였다.

《그렇습니다.》

박경호려단장의 얼굴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 지워지지 않고있었다. 본도로를 벗어나 훈련장에 편결된 기동로는 시원스레 넓혀놓았으나 아직 바닥이 채 정리되지 못하여 차가 몹시 들쭉였다.

《가만 운전사동무, 차를 천천히 모오. 이 길은 새로 닦은 모양이구만.》

《예...》

차창밖을 유심히 바라보시며 일순 어두워지시는 장군님의 안색을 우러르는 박경호의 가슴은 더욱 옥죄여들었다.

이런 험한 곳에 장군님을 모시게 된 송구함과 죄책감으로 심장이 타들다못해 재가 되는듯 싶었다.

이윽고 기동로가 끝나고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훈련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둔덕에 오르시자 문득 박경호에게 물으시였다.

《려단장동무, 훈련장위치가 여기보다 더 좋은데는 없었소?》

무척 아쉬워하는 그이의 말쑤에 박경호는 어리둥절하였다.

사실 이 주변지대를 일일이 다 편답하고서야 설정한 위치였던것이다.

초기에 훈련장으로는 두곳이 설정되였었다. 하나는 주민지와 멀리 떨어진 청룡산골짜기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곳이였다.

이곳은 부대의 중심위치에 있어 각 구분대들이 기동하기에 편리했다. 농장일군들도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새로 생긴 기동로를 평시에 농장마을의 큰길로 쓸수 있게 되였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인셈이였다.

그런데 그 무엇이 미흡해서일가?!...

《우리 파수원 꽃구경도 할겸 걸어서 내려가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박경호려단장과 부대일군들 그리고 조성국을 비롯한 수행일군들이 그이의 뒤를 따랐다.

잠시후에 그이께서는 파수원을 에돌아간 기동로에 들어서시였다.

박경호의 마음이 저으기 긴장해졌다.

아까 훈련장에 들어올 때에도 이 길에서 차의 속도를 늦추게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혹시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것이 아닐가?

《려단장동무, 이 길을 내기 전엔 여기에도 사과나무들이 있었겠소?》

장군님께서서는 기동로의 가늉을 가리키시였다.

《예...》

박경호는 가슴을 쿵 치는 강한 충격을 느끼었

다. 그러니 혹시 그 사과나무때문에?

사실 이 길을 낼 때 과일나무처리문제로 논의가 분분했었다. 비록 몇그루 안되지만 농장원들의 땀과 정성이 스민 귀중한 재산이였던것이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여러차례의 토론 끝에 파수원 주변의 공지에 새땅을 일구어 나무들을 옮겨심었던것이다. 박경호는 장군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였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박경호가 가리켜드리는쪽으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파수원이 끝나는 한켠에 돌각담을 쌓고 새로 정리한 독우에 사과나무들이 줄을 맞춰 서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 옮겨심은 나무들은 아직 모살이가 시원치 않은지 별로 침울한 기운을 풍겼다. 본래땅에서라면 꽃들이 한창이었던 여기에서는 듚성듬성 매달린 불그죽죽한 꽃망울을 가까스로 터치고있었다. 게다가 몇그루 나무들에는 그런 꽃망울마저 아예 달려있지 않았다.

가지만 앙상한 한 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장군님께서서는 머리에 드리운 한 아지의 초리를 꺾어보시였다. 이미 물기가 말라버린 뒤끝이였다.

《이 나무들은 살아날것 같지 못하구만.》

무거우신 어조로 하시는 장군님의 말쑤에 박경호의 가슴은 서늘하게 얼어드는듯싶었다.

《빨리 옮길 생각만 하면서 뿌리를 깊게 뜨지 못한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습관된 고지식한 성미의 박경호였지만 이 말마저 자기변명처럼 여겨져서인지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랐다.

《뿌리를 깊이 뜨지 못했나?...》

장군님께서서는 산악같은 믿음과 기대가 허물어지는것 같아 안색을 흐리시였다.

박경호에게서 발견하게 된 이런 허점이 옥의 티처럼 여겨져 가슴이 아릿해나시였다.

이 넓은 파수원에서 사과나무 몇그루는 물론 큰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군민관계 문제가 인민군대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진대 어떻게 큰것, 작은것이 따로 있을수 있겠는가.

인민의 피땀이 스민것은, 인민의 손길이 닿은 모든것은 바늘보다 더 작은것이라 해도 크고 귀중한것이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쓰셨다가는 지우시고 지우셨다가는 다시 쓰시며 작성하신 인민군군무자들이 지켜야 할 10대준수사항의 한 조항에 인민의 생명재산을 털끝만큼도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새겨주시지 않으셨던가.

물론 부대가 싸움준비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는 귀중하며 찬양할만 한 일이다.

그러나 박경호는 그 싸움준비의 근본을 놓쳤다.

말하자면 생명의 뿌리를 허공에 띄워놓은셈이다.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는 곧 인민의 안녕과 리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관점을 지휘관들의 뒤통수에 새겨주지 않고서는 공고한 군민일치를 실현할수 없으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에 만전을 기할수 없을것이다.

깊은 사색에서 깨어나신 장군님께서서는 준절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루가 토양속에 깊이 자리잡자면 우선 굵은 뿌리부터 먼저 내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 굵은 뿌리가 바로 병사들을 이끄는 우리 지휘관들이 아니겠습니까?! 난 뿌리내리지 못한 이 사과나무를 보는것도 가슴아프지만 인민의 토양속에 깊이 자리잡지 못한 동무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아 그것이 더 가슴아프습니다. 인민의 리익을 떠나 우리가 싸움준비에 대해 운운할수 있겠습니까?》

주위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깃들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도로에 내려서시여 말씀을 이으시였다.

《난 이 도로가 마치도 군대와 인민의 마음을 막는것만 같아 보기가 괴롭습니다. 우린 한가지 일을 설계하고 열가지 일을 조직해도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 여러모로 따져보고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호흡이 정지된듯 까딱 못하고 그 자리에 서있는 박경호의 얼굴에는 사무친 후회와 자책감이 진하게 어려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저 멀리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자리잡고있는 농장마을쪽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단호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 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무한궤도의 진동과 폭음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여기가 여러가지 훈련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명당자리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인민들에게 사소하게나마 불편을 주게된다면 그런 곳은 절대로 명당자리가 될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박경호려단장과 함께 청룡산 기슭을 헤치시며 좋은 위치까지 확정해주시고서야 바쁘신 전선길을 이어가시였다.

그후 장군님께서서는 조성국으로부터 박경호려단장이 주민들에게 심심히 사죄하였을뿐아니라 눈앞에 다달았던 오중홉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판정을 뒤로 미루었다는 소식을 들으시였다.

몇그루 과일나무때문에 그의 가슴속에 고충과 회오의 뿌리가 깊숙이 박힌것만 같아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한편으로는 최고사령관의 뜻에 자신을 따라세우려고 애쓰는 그의 진심을 보는것이 기쁘시였고 그를 더욱 아끼고 위해주고싶으시였다. 그래서인지 현지시찰의 길에 문득 과일나무를 보실 때면

박경호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지곤 하시였다.

하여 그해 가을에는 자신께서 몸소 애지중지 가꾸시던 새 품종의 사과나무들중에서 제일 크고 싹한것들을 따 옮겨다 농장과수원에 심어줄데 대한 과업을 조성국에게 주기까지 하시였던것이다.

나무를 뜰 때 뿌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폭을 넓게 잡아 깊이 뜨며 강추위가 닥쳐와 뿌리와 흙이 한덩어리로 된 다음 운반해야 사름이 잘된다는데 대해서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고 뿌리의 성장발육에 좋은 식물성비료와 나무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기재까지 동원시키도록 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흘렀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있을까?

옥천강에 덩치큰 발전소를 건설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으신지가 벌써 1년이 되어오는데 그동안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퍼그나 궁금해지시였다.

어느덧 동녘하늘이 건듯 열리기 시작하였다.

새아침이 시작된것이다. 거대한 톱날처럼 편편히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은 아직 잠을 설껐듯 짙은 운무에 잠겨있었다.

고속도로에서 갈라져 흙도로에 내려선 야전승용차는 옥천강의 맑은 물줄기를 옆에 끼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 길로 얼마간 달리면 박경호의 려단에 이르게 된다.

장군님께서 문득 운전사를 찾으시였다.

《가만, 차를 세우시오.》

저쪽앞에서 애기를 업고 커다란 보통이를 인녀인이 부지런히 걷고있었다.

《집도 많은데 태우고 갑시다.》

차가 멎어서자 조성국이 문을 열고 녀인을 불렀다.

복스럽게 생긴 동그스름한 얼굴에 검은눈이 생글생글 웃는 30대의 젊은 애기엄마였다.

《고맙습니다.》

집을 조성국에게 넘겨주고 한발을 옮겨딘던 녀인의 품이 그만 굳어졌다.

《아니?!》

환희와 송구스러움이 한데 엉킨 눈빛으로 장군님을 우러르던 녀인은 《장군님!》하고 목메인 소리를 터치며 머리를 깊숙이 숙이였다.

장군님께서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며 재촉하시였다.

《어서 오르시오.》

《아니, 전... 길이 바쁘지 않습니다.》

《사양말고 어서 오르시오. 자리가 있으면서도 애기어머니를 그냥 걷게 한다면 우린 뭐가 되겠습니까?!》

녀인은 그이의 소탈하고 너그러우신 인품에 끌려 조심스레 차에 올랐으나 부자연스럽게 몸을 웅송그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녹잡혀주시려고 스스로 없이 이야기를 꺼내시었다.

《그래 아주머닌 어디까지 갑니까?》

녀인은 앓음새를 고치며 정중히 대답올렸다.

《저... ××려단에 갑니다.》

《아, 그러니 박경호동무 부대의 군인가족인 모양이구만. 그런데 어디 갔다옵니까?》

《함흥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해산하고 오는 길입니다. 방금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좀 기다리면 부대차들이 역에 나올수도 있겠는데?...》

《저... 애아버지가 기다릴것 같아서...》

녀인은 쑥스러운듯 귀밑머리를 살짝 붉히었다.

《옥동자만 척 안겨주어도 남편이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할것 같은데 무슨 짐이 그렇게 큼니까? 딸이 친정집에 가서 너무 욕심을 부린게 아닙니까?》

《남편이 준 과업때문에 할수없이...》

《그래 어떤 과업입니까?》

《전기밥가마와 지집판 그리고 전기포단까지 무조건 해결해가지고오라고...》

《음, 그러니 부대발전소가 다 완공됐다는겁니까?》

청신한 아침대기를 흔들며 유쾌하게 울리는 그이의 물으심에 녀인은 자랑조로 말씀드렸다.

《발전소에서 부대까지 전기선만 늘이면 굴뚝없는 마을이 된다고 기뻐들 하던 때가 벌써 한달전이니 지금쯤은 아마 모든 병실들과 가정들에서 전기덕을 마음껏 보고있을겁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발전소의 전경과 굴뚝없는 마을의 새로운 풍경을 눈앞에 그려보신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무슨 일이나 푹푹 해제낄줄 아는 박경호가 못내 사랑스러우시었다.

자식들이 해놓은 일을 두고 대견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되시여 무엇인가 자꾸만 묻고싶으시었다.

《그래 전기가 얼마나 나올수 있다고 했습니까?》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지만 온 부대가 전기를 실컷 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음, 그래야지. 건설할바엔 덕을 톡톡히 볼수 있게 통이 크게 해야 해.》

장군님께서는 발전소를 자체로 건설한 곳들을 많이 가보셨는데 조명과 취사일은 전기로 하면서도 난방만은 나무나 석탄으로 보장하는 단위들을 보실 때마다 여간 아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전기로 밥을 지어먹고 난방까지 완전히 해결해야 전기화를 인정하겠다고 강조하곤 하시었다. 그런데 발전소를 통이 크게 건설하여 그 덕

을 충분히 입게 된 부대를 곧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무등 기쁘시었다.

승용차는 장군님의 그 마음을 담아신고 더욱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

려단에 이르시여 병실들과 사택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마당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장작무지들, 굴뚝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그토록 큰 기대를 가지셨던 전기난방은 그 어디에도 되어있지 않았다.

장군님의 심정을 알아차린듯 박경호려단장이 송구스레 말씀드렸다.

《래년에 발전소를 하나 더 건설하여 전기난방까지 꼭 해결하겠습니다.》

《암, 그래야지. 가만, 경호동무, 동무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얼마라고 했던가?...》

박경호가 머뭇머뭇하며 전력생산량을 말씀드렸다.

《그 량이 정확히 나오겠소?》

결코 몰라서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생산량과 소비량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려단장동무, 발전소에 나가봅시다.》

박경호에게 말씀하셨으나 시선은 조성국에게로 돌리시었다. 그의 얼굴표정에서 빨리 돌아가 쉬셔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을 읽으셨으나 내쳐 차에 오르시었다.

발전소에 이르시여 려단장이 말했던 수량의 전기가 생산되고있는것을 직접 확인하신 장군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물량도 많고 락차고도 높으며 전기도 많이 나온다. 그런데 전기난방은 왜 못하는가.

혹시 전기선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가. 선이 굵지 못하면 도중손실이 많아져 충분히 송전할수 없는것이다.

발전기실에서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변압기쪽으로 가시여 전기선을 살펴보시었다.

전기선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송전할만큼의 굵기를 가지고있었다.

그렇다면?...

질은 의문을 안으시고 전기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시던 그이께서 문득 놀라시었다.

강기슭을 따라 뻗어나가던 전기선이 저쯤에서 두갈래로 갈라져있었던것이다.

《저기 강을 건너간 전기선은 어디로 간것입니까?》

《예, 농장마을에 련결된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장마을에도 전기를 준다는겁니

까?)》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강기있는 박경호의 구리빛얼굴을 새삼스레 바라보시었다.

무어라 이름못할 걱정과 기쁨이 가슴속에 차오르는것을 느끼시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왜 지금껏 말하지 않았습니까?》

《...》

박경호가 대답을 못하고 주춤거렸다.

엄중한 잘못까지도 주저없이 털어놓는 박경호가 다 주저할 때가 있는가.

조성국이 박경호의 팔을 슬며시 당기더니 낮으나 엄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동문 언제부터 눈치가 그렇게 곱의 발바닥이 되었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기난방문제때문에 마음쓰시는걸 그래 몰랐단 말ियो?!》

장군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박경호의 편역을 들어주시었다.

《아니 조동무, 너무 옥박지르지 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이 일을 내가 했소.>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공적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소.》

한동안 갑자르던 박경호가 조용히 말씀드렸다.

《사실 한집안, 한형제를 좀 도와준것이나 같은 응당한 일을 가지고 제자랑하는것처럼 쑥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민관계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는데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작은 일이라...》

장군님께서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세찬 걱정예목이 메시여 더 말씀을 잊지 못하고 속으로 뇌이시었다.

(경동무, 그렇게 힘들여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를 뭉청 댈여주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소?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일로 쑥스럽게 생각했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오. 내가 바라는데 바로 그거요. 인민에게 해를 준것이라면 작은것도 크게, 덕을 준것이라면 큰것도 작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란 말ियो. 그래서 난 선군은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성스러운 위업이라고 생각하고있으며 그런 뜨거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야말로 나와 함께 끝까지 한길을 갈수 있는 진정한 전우, 진실한 동지라고 생각하고있소.)

그이께서는 박경호의 어깨에 손을 다정하게 얹으시며 자애에 넘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그때 부대동무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소?》

《예, 발전소 하나를 더 건설한 다음 나누어쓰면 안되는가고 제기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민관계문제에 대하여 제일로 마음쓰신다는것을 알고는 쓰고 남아야

도와주는것은 진정으로 도와주는것이 아니다, 부족할수록 나누어쓰는것이 진짜도리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섭섭해한건 인민들이였습니다.》

《인민들이?》

《국사중의 국사가 나라지키는 일인데 군부대의 전기를 받아쓰는건 백성된 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딱 뻘치는통에 우리 동무들이 진땀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사정하구 설복해도 이가 들지 않아 <최후통첩>을 들이댔습니다.》

《어떻게 말ियो?》

《농장쪽선을 편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는다는 좀 파격한 결정을 부대에서 채택했습니다. 그 결정을 들고가서야 그들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마을로 들어가자 인민들은 장군님의 군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 매년에는 농사도 더 잘 짓고 과일과 고기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진정ियो. 얼마나 훌륭한 우리 군대이고 인민ियो.》

난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군대이며 인민이다!> 라고 말ियो, 응. 하하...》

그이의 명쾌한 웃음소리가 맑은 수면우에 저렇게 울려갔다.

장군님께서는 해빛에 번쩍이는 전기선들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저 전기줄로 어찌 전자알갱이들만 흐른다 하겠는가. 분명히 이 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그 무엇이 흐르고있다.

피처럼 진하고 샘처럼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정이 맥맥히 굽이쳐흐르고있다.

생각에서 깨어나신 그이께서는 뜨거움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좋구만. 몇십만키로와트 능력의 발전소를 본것보다 더 기쁩니다.》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군민관계를 반영한 민요풍의 노래 한가락을 조용히 부르시었다.

...

군민일치 꽃피우니 노래춤 흥이로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군민아리랑

...

노래를 부르며 터치시는 그이의 웃음으로 하여 주위는 더욱 눈부시게 밝아지는듯싶었다.

호수의 푸른 물결도 그 미소를 받아 유별나게 반짝이며 능글능실 춤추는것 같았고 회색빛언제와 강기슭의 모래밭도 여느때없이 흰빛을 내뿜으며 기뻐하는것 같았다.

소담하게 자라오른 정향나무들과 잔디풀은 무수한 잎새를 열광적으로 흔들며 축복의 박수갈채를 보내는듯싶었다.

바야흐로 계절의 흐름과 더불어 울긋불긋 단장한 야산들을 등에 지고 오붓이 자리잡고있는 군인사택마을과 황금이삭 설레는 논밭을 앞치마처럼 두르고 앉은 농장마을이 푸른 호수를 사이에 두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속삭이는듯싶은 아름다운 전경은 이름할수 없는 희열이 샘솟게 했다.

그 모든것들을 커다란 기쁨속에 부감하시던 장군님께서 문득 생각나신듯 물으시었다.

《참, 내가 전번에 보내준 사과나무들은 잘 자랍니다?》

박경호려단장이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예, 잘 자랍니다. 열매도 많이 달렸습니다.》

《어디 가봅시다.》

그이께서는 활달하게 발걸음을 떼시었다.

누구도 만류할 생각을 못하고 그이의 뒤를 따랐다.

아치형의 기다란 언제를 건너 산등성이를 넘어 서니 산비탈을 따라 펼쳐진 풍요한 과수원이 마음호뭇하게 안겨왔다. 주먹같은 사과알들이 아치마다 주렁졌는데 발가우리한 열매들은 멀리서부터 그윽한 향기를 풍기었고 산새들의 우짇음소리가 신묘한 가락을 이루며 마음즐거이 들려왔다.

색조도 향기도 음향도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아득한 태고적부터 착실히 마련해온듯 한 신선하고 경쾌한 신비경이였다.

장군님을 모신 일행은 어느덧 사과나무가 새로 옮겨진 장소에 도착하였다.

자신께서 보내주신 나무들을 그 풍성한 모양새만 보시고도 얼른 알아보신 장군님께서서는 먹음직한 열매들을 무겁게 따이고 선 사과나무들을 오랜지기 대하듯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그 나무들도 반가움을 표현하는듯 열매가 주렁진 가지들을 무겁게 설렁이였다.

《여기 동무들이 나무를 아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는것이 첫눈에 알립니다. 하긴 이 나무들을 뿌리 한오리 상하지 않게 떠옮기느라고 조성국동무랑 수고했지.》

조성국이 감격에 목멘 소리로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을뿐입니다. 지대를 옮겼지만 아직도 많이 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것은 이 나무들에 최고사령관동지의 인민을 위하시는 마음이 속속 스며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허허, 누구의 마음때문이 아니라 생명과 생장, 결실의 근본인 뿌리를 토양속에 깊숙이 내렸

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토양은 자기 품에 안겨든 뿌리들을 든든히 붙안고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있는 영양소들을 아낌없이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토양속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억세게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는것이며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것입니다.》

군대와 인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군대가 철저히 주인이 되고 주동이 되어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나무가 모든 힘을 다하여 토양속에 뿌리내리듯이 말입니다.》

그이의 걱정애 넘친 음성은 아름다운 과수원의 풍치와 기막힌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게있게, 깊이있게 자리잡았다.

조성국은 자기의 작은 가슴속에 거대하고 뜨거운것이 짝 들어차는것을 느끼었다. 온 천지가 떠나가도록 만세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는 정녕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군민단결의 화원을 이 땅우에 펼치시고 가꾸시는 위대한 원예사이십니다. 장군님의 손길따라 인민이라는 비옥한 토양속에 뿌리내리고 거목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풍성하고 향기그윽한 열매만을 맺을것입니다.)

장군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박경호쪽을 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참 러단장동무, 오중흡7련대청호판정은 제기했소?》

《저... 아직...》

박경호가 뒤더수기를 만지며 열적은 웃음을 지었다.

《음, 러단장동무가 한번 비판을 받더니 소심해졌는가? 이제라도 빨리 제기하도록 하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박경호는 솟구치는 걱정애 목이 짝 메이였다.

《부대의 싸움준비는 판정결과를 보지 않고서도 믿음이 갑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박경호와 일군들을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어린 눈길로 둘러보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격조높이 말씀하시었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군민의 단합된 힘을 믿고 선군의 길을 끝까지 갈것이며 조국통일과 강성국가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미구하여 다가올 최후승리의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하늘땅을 둘러보시었다.

지심깊이에 억세게 뿌리내린 나무들이 그이의 말씀에 화답하는듯 끝없이, 끝없이 설레이였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혼란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팔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력사의 축도이다.》

《파란만장의 인생항로에서 내가 키를 잃지 않고 꺾끗이 살고 싸워나갈수 있는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었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색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나는 나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이였다고 자부하는것으로 만족할뿐이다.》

나는 나의 글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

## 만경대와 포평

김 형 준

만경대의 그날은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눈보라도 몹시 울었다  
하늘과 땅 온 누리가  
흑한에 떨던 날이였다

두해전 3월  
장차 나라를 찾자면  
조국을 알아야 한다신  
아버님의 뜻을 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  
그립던 고향 만경대로 나오신 수령님

또다시  
압록강을 건느셔야 했다  
아버님이 일제경찰에 체포되셨다는 소식은  
고향과 조국과의 슬픔의 작별이였고  
고향과 조국을 기어이 찾을 굳은 맹세였나니

너무도 일찌기  
어린시절과 작별하신 수령님  
어찌 만경봉의 무지개 그림지 않으셨으랴  
그 무지개에 실어올 아름다운 봄  
어찌 뒤뜰의 군함바위 그림지 않으셨으랴  
그 군함에 실어올 해방된 조국

그리도 다정다감하신분이어서  
그리도 고향을 사랑하신분이어서  
꽃피는 봄날에 떠나시라

고향은 옷깃을 놓지 않았건만  
그이는 떠나셔야 했다 눈보라길로  
그이는 헤어져야 했다 어린시절과

허나 너무도 어리신 그이의 어깨와 가슴에  
이룩해야 할 조선독립의 무거운 책임과  
숨쳐가는 겨레의 운명을 모두어안기엔  
그이의 나이는 너무도 어리시였건만

그이는 떠메시고 떠나시였다  
일제의 구두발에 짓이겨진 강토—조선  
그이는 안고 나서시였다 나라잃은 겨레  
일제의 칼이 가슴에 꽂혀 식어가는  
조국과 겨레에 소생의 봄을 주시려...

포평의 그날은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눈보라도 몹시 울었다  
하늘과 땅 온 누리가  
흑한에 떨던 날이였다

뒤에는 조국  
피바다에 잠긴 강토삼천리  
앞에는 이역땅  
불바다 펼쳐질 혈전천만리  
그이의 나이는 열네살!

물어보자

조국이여 겨레여  
 땅이 생겨 강이 생겨 지경이 생겨  
 이 나루 오고간이 그이 한분이어서  
 너무도 어리신 그이의 어깨우에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모두 얹어야 했더니

만경대와 포평까지는  
 눈보라 우는 천리길  
 허나 조국해방까지 그 길은  
 우리 수령님 헤쳐가셔야 할  
 혈전불바다 천리 혈전피바다 만리

그이는 건느셨다  
 겨레의 눈물에 얼어붙은 압록강  
 그이 내짚으신 얼음장밀에선  
 용용 강물이 흐르고있었다  
 벌써 해방의 봄색이가 시작된것이다

오! 그날 그이의 어깨우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이 걸메여져있었고  
 자욱자욱 내짚으시는  
 헤쳐가야 할 사선의 먼먼길에서 벌써  
 해방조국이 마주오고있었다!

## 눈내리는 만수대지구건설장

류 응 희

눈이 내리네  
 함박눈 내리네  
 만수대지구건설장  
 초고층살림집 지붕우에도  
 타일을 깔게 붙인 로대의 란간에도  
 하얀 눈 내려 내려쌓이네

눈이 내리네  
 함박눈 내리네  
 만수대지구 가로수에도  
 자재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우에도  
 건설자들의 머리우에도 어깨에도  
 하얀 눈 내려 내려쌓이네

눈내리는 건설장은 하얀 눈세계  
 내 마음속엔 벌써  
 공연의 첫막을 열었는듯  
 인민극장건설장에서 울려오는 노래  
 ...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념원 꽃핀 강산에  
 ...

노래의 선물에 어러오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만수대언덕에 계시는 수령님  
 항일의 빨찌산들이 바라던 념원이  
 더 활짝 꽃피날 이 거리를 보시려  
 옛 빨찌산대원들과 함께 충계를 내리실듯

충계를 내리시어  
 빨찌산의 아들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그이의 유훈 받들어가는 건설자모두가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위훈자들이라고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어깨의 눈도 털어주실듯

내리는 눈발속에 어러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이 한평생 맞으신 눈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녹지 않고 무겁게 무겁게 쌓여있나니

만수대지구건설장에 눈이 내리네  
 장군님사랑에 대한 추억을 불러주며  
 장군님 그리움을 더해주며  
 눈발속에 들려오는 건설장의 음향은  
 장군님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의 노래  
 장군님 영원토록 받아들여갈 맹세의 노래

눈이 내리네  
 함박눈 송이송이 내리네  
 만수대지구건설장에 추억의 눈이 내리네  
 날이 갈수록 더하고 더해만 가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로 젖은 눈송이  
**김정은**동지 받아들여갈 맹세로 뜨거운 눈송이  
 내리고내리네  
 하염없이 내려쌓이네

함박눈 송이송이속에 울려오네  
 수령님 이야기로 장군님 이야기로  
 불밝은 창가에 밤을 지새며 올릴 노래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김정일**장군님 리상이 활짝 꽃피날  
 조국강산에 영원토록 올릴 노래를 안고  
 만수대지구건설장에  
 추억의 눈 그리움의 눈송이 내려쌓이네

# 주체문학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기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 발표 20돐을 맞으며 —

김 선 일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올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며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과 경애하는 장군님 탄생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할 굳은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 발표 20돐을 맞이하고있다.

돌이켜볼수록 감회도 새로운 주체81(1992)년 1월 2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시어 주체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신것은 우리 주체문학건설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로작이 발표되던 당시 세계사회주의위업은 심각한 좌절과 진통을 겪고있었으며 우리 혁명은 력사의 엄중한 도전과 시련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국주의어용나팔수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국적없는 문화》요, 《전인류적인 문화》요 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을 방해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이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는 참된 길,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참답게 복무할수 있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힌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시였다.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혁명적문학을 창조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문학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해주고있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오늘 인류의 리상인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새로운 리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

학론》은 사회주의문학건설의 길을 가장 심오하고 완벽하게 해명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문학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기치로, 영원불멸한 대강으로 되고있다.

로작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의 문예관의 내용과 자주시대의 새로운 문학인 주체의 인간학의 특성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고있다.

일반적으로 문예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문학예술을 어떤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어떤 립장에서 보고 대하는가 하는것을 말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문예관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체의 문예관에서 근본해를 이루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본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이 문학의 근본사명이라는것을 밝히시면서 주체의 인간학이 지난날의 문학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을 철학적기초의 측면에서 해명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우리 문학을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는 사상,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 문학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을데 대한 사상을 밝히시였다.

로작에는 다음으로 민족문화유산과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호상관계, 유산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어느 시대의 문학예술이든지 빈터에서 발생발전할수 없다. 선행세대가 이룩하여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디딤돌로 삼고 그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내용과 형식을 옳게 이어받을 때에만 문학예술을 자기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시어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고전적정식화를 주시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그 질적내용의 측면에서나 가치와 생활력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룬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



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바로 평가할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로작에는 다음으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관한 리론이 밝혀져있다.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같은 미학적원칙에 의거하여 활동한 창작가들의 창작경향은 하나의 공통된 문예사조를 이루며 그에 기초하여 창작방법이 생겨난다. 창작방법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며 완성되어나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작방법이 시대의 산물이라는것을 분석해주시면서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창작방법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경위에 있어서나 철학적기초와 미학적원칙에 있어서 선형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방법,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라는 명철한 해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사실주의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한 창작방법이라는것, 주체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을것을 요구한다는것을 심오하게 분석해주시었다.

로작에서는 다음으로 우리 문학의 형상과제에 대한 리론이 제시되였다.

문학은 력사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계급의 생활을 기본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계급에게 복무하여왔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때마다 문학의 기본형상대상은 바뀌여지곤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발전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주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문학은 영원히 변함없는 형상대상과 복무대상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라는것을 밝혀주시었다.

이로부터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창조를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면서 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며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로작에서는 다음으로 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미학적문제들을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작품의 종자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사실 일부 작가들속에서는 기성관념에 사로잡혀 종자를 새롭게 발견된 범주로 보지 못하고 주체나 사상과 같은것으로 잘못 리해하는 편향이 없어지지 않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나 사상과 구별되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서의 종자에 대하여 다시금 명확하게 밝혀주시면서 종자를 바로잡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의 꽃을 피워나가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계속하여 사건 위주의 문학이 아니라 성격위주의 문학을 창조할

데 대한 문제,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일데 대한 문제,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는 것과 함께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구성을 엮을데 대한 문제, 언어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문제 등 미학원칙적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시었다. 또한 시문학, 소설문학, 아동문학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우리 식 평론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리론실천적해명을 주시었다.

로작에는 다음으로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며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사상이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의 본질적내용을 밝혀주시면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가르쳐주시었다. 이와 함께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작가들이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될데 대한 문제들을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창작과 문학운동에서 새로운 비약과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1990년대초에 주체문학건설의 위대한 대강을 마련하여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던 나날에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1990년대 중엽 고난의 행군시기의 현실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인민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작품창작실천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꿰뚫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5(1996)년 4월 26일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지금이야말로 작가, 예술인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을 안겨주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내놓아야 할 때이라고 하시면서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시대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주체86(1997)년 3월 18일〕, 《예술작품창작에서 시대정신을 옹기 구현하여야 한다》〔주체86(1997)년 8월 1일〕, 《기자, 작가들은 혁명의 필봉으로 당을 받드는 선군혁명투사가 되여야 한다》〔주체92(2003)년

2월 3일〕 등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선군시대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귀중한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해 우리 문학이 주체의 문학, 선군혁명문학으로 힘차게 발전할수 있는 위대한 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 2

우리 문학은 지난 20년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한길, 선군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발표된 후 우리 문학의 발전력사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주체의 문학, 선군혁명문학으로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자랑찬 역사이며 주체의 문학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한 승리의 역사이다.

지난 20년간 우리 문학이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여 수령형상문학의 줄기찬 발전을 이룩한것이다.

수령형상창조는 선군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 문학은 지난 시기 수령형상창조에서 달성한 귀중한 창작경험에 토대하여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 수령영생문학의 새 시원을 열어놓았다.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어 략후와 빈국속에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세계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신 우리 수령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의 미래를 환히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같은신분은 정녕 이 세상에 없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이 제일이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수령님을 천만년 우리 러모시고 따르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 작가들은 인민의 이 신념과 의지를 여러 문학형태에 담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영생》(백보흠, 송상원)과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김만영)가 이러한 시대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창작된 대표작들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상실의 아픔에 모대기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예술적화폭에 담아 길이 전해야 한다는 작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고심어린 탐구와 불타는 열정을 쏟아부어 장편소설 《영생》과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성과작으로 창작한것은 수령형상문학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영원한 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을 깊이있게 형상한 가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집체), 《그리움의 대하》(황진영),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황진영),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신병강),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김만영) 등의 작품들도 수령영생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작가들의 투철한 신념은 수령님의 서거 이후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창작한데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의 마지막시기에 해당하는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리종렬)와 《천지》(허춘식), 해방직후 건당, 건군, 건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과정을 형상한 장편소설 《개선》(최학수), 《열병광장》(정기종), 《삼천리강산》(김수경)과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를 형상한 장편소설 《번영의 길》(박룡운), 《대지의 전설》(김삼복), 《인간의 노래》(김삼복)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외에도 단편소설 《리별과 상봉》(백보흠), 《따뜻한 눈》(최영학), 《상봉》(리희남) 등은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다양한 생활속에서 형상함으로써 우리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아로새겨놓았다.

수령영생문학의 빛나는 창조,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우리 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시대의 지향과 의지가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수령형상문학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위대한 선군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기념비적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된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부터 우리 혁명은 참으로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발광적인 고립압살책동, 민족의 대국상에 이어 편이든 자연재해... 참으로 우리 인민은 피눈물의 바다를 건느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준엄한 역사의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해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지켜지게 되었고 우리 인민은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이 경이적인 현실앞에서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전설적인 위인상앞에서 걱정을 더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품모와 위인상을 높은 사상에 술적경지에서 노래한 가사 《김정일장군의 노래》(신운호),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에 의탁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과 성장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추억깊게 노래한 가사 《훤넌뎬인 고향집》(오영재), 장군님을 선군령장으로 높이 모신 기쁨과 환희, 민족적공지를 한껏 노래한 가사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최준경) 등이 려이어 창작발표되었다.

서정시, 장시, 서사시, 가사 등 여러 형식의 작품들에 차넘치는 사상정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이며 희세의 전설적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긍지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승리의 새봄을 안아오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이다.

소설문학에서도 위대한 선군령장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여기서 대표적인 작품들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여러 측면에서 펼쳐보이면서 숭고한 위인상을 무게있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전환》(권정웅), 《계승자》(백남룡), 《동해천리》(백남룡), 《전환의 년대》(리신현), 《서해전역》(박태수), 《푸른 하늘》(권정웅), 《평양의 봉화》(안동춘), 《평양은 선언한다》(리종렬), 《비약의 나래》(리동구), 《력사의 대하》(정기종), 《강계정신》(리신현), 《총검을 들고》(송상원), 《총대》(박윤), 《별의 세계》(정기종) 등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수많은 장편소설들은 서로 다른 각이한 시대를 반영하고있으나 다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도력과 불멸의 업적을 기본주제적파제로 설정하고 측면별로 심도있게 그리고있다.

그리하여 총적으로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기념비적작품으로 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인상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문학은 이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

하였다.

서사시 《동지》(김희중), 《그 이름 빛나라 김정숙장군》(신병강), 장시 《인민의 어머니》(정은옥, 김은숙), 가사 《고향집추억》(전동우),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김영희) 등이 그 대표작이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위인형상창조의 특성에 맞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당시의 시대상과 인간들에 대한 깊은 탐구에 기초하여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화폭과 개성적인 인간성격들을 그려냄으로써 총서작품으로서의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장한 작품이다.

백두산위인들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한것은 우리 문학이 주체의 문학, 선군문학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게 한 결정적요인이다.

지난 20년간 우리 문학이 달성한 성과는 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을 감명깊게 형상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현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를 잡아쥐고 참신한 시대적전형을 창조하는데 모를 박아나갔다.

장편소설 《열망》(김문창), 《산촌의 화불》(박찬은)의 주인공들은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가형의 일군들이다.

이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식으로 살림을 보란듯이 꾸려나가는 신념의 강자, 전형적인 락관주의의 체현자들이다.

이들이 하는 자력갱생은 힘든 고비나 메꾸기 위한 동면형이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 공격형의 자력갱생이라는데 새로운 시대상이 비껴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세계적인 최첨단설비인 선압기를 제작해내도록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이끌어가는 전영범(《열망》)의 형상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이외에도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정영중), 《인생의 열매》(김혜영), 《달라진 선택》(강선규) 등에도 오늘의 시대정신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현실주제 시문학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서도 기본은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을 심오하고 진실하게 노래한데 있다.

선군시대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세계를 감명깊게 일반화한 서사시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백의선, 류동호),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강성국가의 높은 령마루로 치달아오르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리상과 원대한 포부, 약동하는 진군의 기상을 진실하게 노래한 가사 《불패의 강국이여

# 병사는 전투훈령명령을 받았다

리 찬 호

흰눈덮인 초소의 산발우에  
아침해가 눈부시다  
거세찬 파도처럼 높뛰는 가슴마다  
병사들은 새긴다  
새해 전투훈령명령을

우리 장군님 유훈으로 남기신  
조국수호의 성스러운 사명을 총대우에 얹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 거룩한 발걸음따라 더 억세게  
불속도 진필길도 헤쳐가야 할 병사

전투훈령!  
헤쳐가야 할 불기둥이 눈앞에 솟구친다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답게  
《단숨에》기상을 떨치며  
앞장서 점령해야 할 고지들

어디나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정신, 강행군속도로  
백두의 번개를 일굴 그 훈련장은  
우리 군대만이 펼칠 공격속도로  
기세높이 타고났을 그 봉우리는

거창한 투쟁의 앞장에서  
병사는 언제나 본보기가 되리라  
원췌의 침략을 짓부시며  
철벽의 요새를 더 굳건히 다지리  
시대의 기념비도 으뜸으로 일떠세우리

높된다, 심장은 쿵쿵  
무거운 어깨를 으쓱 솟구며  
눈덮인 산야를 도도히 굽이쳐간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존엄 드높이  
몰아치는 폭풍을 짓누르며 달려간다

심장을 불타게 하는  
공동구호 공동사설의 자자구구를 새기며  
마음속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인다  
이제라도 원췌들이 덤벼든다면  
총폭탄이 되어 결전에로 나아가리  
이제 우리를 건설전장으로 부른다면  
그 전투장마다에서 병사의 본매를 펼치리

무엇이 두려우랴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담력과 의지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멸적의 기상 펼치고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위훈떨친 병사  
그 기상 그 위훈 이해의 대진군에서  
또다시 펼쳐가리

오, 이해의 전투는 얼마나 뜻깊은가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  
우리 장군님 탄생 70돐  
조선인민군창건 80돐  
백두령장 **김정은**동지파라  
강성국가 봄언덕에  
승리의 기발 기어이 휘날릴  
병사의 신념 굳건하다

가슴벅차다  
신심 드높다  
새해의 진군길을 바라보며  
병사는 돌격전에 나섰다!  
병사는 승리를 확신한다!

앞으로》(최준경), 《강성부흥아리랑》(윤두근), 《더 높이 더 빨리》(황진영), 《돌파하라 최첨단을》(황진영),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차호근) 등이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가 이것을 잘 말해준다.

이밖에도 우리 문학은 통일애국투사의 형상창조, 반만년민족사에 대한 깊이있는 예술적탐구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아동문학, 평론, 고전문학부문에서 마련된 성과도 적지 않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지난 20년간 우리 주체문학이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이야말로 우리 시대 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그 빛나는 승리를 담보해주는 불

멸의 기치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어버이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주체문학, 선군문학창조와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아래 **김일성**조선의 100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명작들로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빛내인 자랑과 긍지를 안고 앞으로도 영원불멸할 주체문학의 대강—《주체문학론》에서 밝혀진 위대한 사상리론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전성기를 펼치며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불패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파시해나갈것이다.

## 주체 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것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를 잘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학은 마땅히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그 후계자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문제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의 후계자를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깊이있게 그리는데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한 후계자의 기본품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품모와 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후계자는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문학에서 후계자의 형상을 창조할 때에는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하여야 한다.》

## 출선 종소리 울려라!

김 정 삼

쇠물이 끓는다  
쇠물이 끓는다  
12월의 피눈물이 흐른 이 땅에  
새해 첫 출선의 쇠물이 끓는다  
당의 호소를 받아안고 불타는 심장으로 끓인  
쇠물이

다하지 못한 말아들의 도리를 두고  
다하지 못한 용해공의 충정을 두고  
죄책감에 가슴을 치던 그 아픈 몸부림이  
맹세의 불물이 되어 소리치며 끓는다

이 시각에도 심장의 벽을 두드리며 두드리며  
메아리쳐오는 야전철차의 기적소리여  
말해줄수 없느냐  
강산이 땡땡 얼던 12월의 흑한속에  
장군님 오르셨던 그 마지막강행군길이  
우리 철의 기지로 향한 길은 아닌지  
우리 용해공들을 찾아 떠나오신 길은 아닌지

철생산문제를 두고  
생전에 그토록 마음써오신 장군님  
금시라도 눈내리는 저 제철소정문으로  
환한 미소 뿌리시며 들어서실듯  
쇠내 뱀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며  
새해축하의 인사도 따듯이 나누실듯...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는것이  
우리 장군님 필생의 소원이어서

오, 우리 장군님에게 있어서 철은  
인민에게 안겨줄 쌀이였고 비단이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일  
사탕이였고 과일이였다

쏟아지는 쇠물폭포를 보시면  
강행군에 쌓인 피로 다 잊으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밝은 그 미소!  
새해 이 아침엔 더욱 사무쳐  
끓어도 끓어도 더 끓이고만싶은 쇠물!

하늘가득 불노을 펼치지 않고서야  
우리 어찌 자애로운 그 영상 그려보라  
쇠물의 바다 한껏 펼치지 않고서야  
우리 영생하시는 장군님앞에  
어찌 말아들의 충정과 의리에 대해 말하랴

장군님 간곡하신 유훈을 받들어  
철의 산악이 되어 일떠선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령도따라  
사회주의 만세소리로 내 조국을 떨치며  
이 세상 한끝까지 폭풍쳐가리니

오, 출선종소리 높이 울리자  
불타는 심장마냥  
펄펄 끓는 쇠물남비 힘껏 들어올리며  
2012년 새해와 맹세의 인사 나누노니  
지척인양 이해의 결승선테프에  
쇠물끓는 한가슴 남먼저 대어보며...

쇠물이 익었다  
출선종소리 울려라!

# 새해! 흥남은 격전의 시작을 알린다

조 광 철

교대를 마친 이 아침  
흥남은 어디나 순결한 눈의 세계  
그렇다  
새해 2012년이 왔다

한줌 비료를 두손에 받쳐들고  
수북이 쌓인 흰눈을 바라보며  
나는 어디론가 걸으며 생각한다  
하염없이 내리는 저 눈송이  
그 모두 비료가 되어줄순 없을까

하늘땅사이에서 제일 큰 산이 되게  
비료를 듬뿍 쌓아올리면  
비료때문에 비료때문에  
그리고 마음쓰신 아버지장군님  
이제라도 그 마음 놓으시련만

비료때문에 우리 장군님  
지척인 집에도 못 들리시고  
평양을 지나시게 하고서도  
우리는 사랑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믿음의 금별을 달기만 하였으니...

어이 알라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인민, 인민밖에 모르시며  
초인간적의지로 오르신였던  
그 야전렬차가 달리던 곳도

여기 흥남은 아니었던지

아, 눈내리는 새해  
흥남이 갈 또 다른 길은 없다  
자신의 심장을 통채로 바치듯  
비료 비료를 내놓는 그 길밖에는  
쌓이고쌓인 솟눈보다 더 많이  
온 나라에 비료가 넘쳐나게 하는 그 길밖에는

할수 있는가 물음은 필요없다  
무조건 해야 한다 오직 실천뿐  
아버이의 령전앞에 무릎꿇고 다진 맹세  
함남의 불길속에서 더 뜨겁게 달구며  
주체비료의 산악을 기어이 쌓아올리리니

그렇다 2012년이다  
숨벅찬 가슴  
높뛰는 맥박  
또다시 격전의 시작을 알리는듯  
흥남전역에 불타는 려명...

한줌 비료를 주먹속에 틀어쥐고  
나는 정문으로 다가선다  
내리는 눈발속에 우렷이 안겨오는 글발  
아버이의 변함없는 사랑인가 축복인가  
《당은 흥남의 로동계급을 믿습니다》

## 첫 새벽문을 열고

김 충 기

밤의 자락은  
마을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데  
마당을 밝히며 활짝 열리는 부엌문들  
퇴적장엔 통통통...  
기운차게 울리는 프락또르발동소리...

오늘도 첫 새벽문  
청년분조원 우리가 열고  
새날의 포전길에 나섰다  
심장의 붉은피를 펄펄 끓게 하는  
공동구호 공동사설의 구절구절 가슴에 새기고

붉게 타는 붉은기 휘날리며

류다른 기쁨과 벅찬 환희속에 기다리던  
2012년을 피눈물의 맹세속에 맞은 우리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김정은**동지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해 농사에서 대변혁을 일으키자고  
일찌기 없던 풍작을 안아오자고

간밤에도 우리 굳게 다짐했지  
포전마다 거름을 더 많이 내고

두벌농사 앞그루면적도 더 늘이자고  
장군님 바라시던대로  
우리 이 땅에  
쌀이 철철 넘치게 하자고

불같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안고  
한겨울에도 동면을 모르는 이 땅은  
새벽부터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피같이 진한 우리의 땀방울이 떨어져  
포전들은 봄을 불러 후더운 숨결을 내뿜고  
서둘러 불쑥 들리운 동녘하늘가엔  
불길마냥 아침노을 붉게 타번지는데  
수집은듯 이제야 얼굴 붉히며 떠오르는 아  
침해야

너는 보리라  
장군님 여시던 헌신의 새벽문  
이제는 자식들인 우리가 열자고  
장군님 걸으시던 강행군길 우리가 다 걸으며  
우리 어떻게 하루하루를 맞고보내는지  
이해의 날과 달을 주름잡아 달리는지

너는 보리라  
이해의 첫 새벽문을 남먼저 연 우리  
2012년 이해에 기어이  
장군님 가리키신 시간표대로  
**김정은**동지 진두에 높이 모시고  
활짝 열린 강성국가 대문안에  
보무도 당당히 들어서느것을

## 위훈으로 수농자

### 홍 민 식

피눈물을 머금고 맞은 새해  
푸른 하늘에 해빛은 눈부시다  
새해 첫 출근의 이 아침  
내 마음도 굳세게 발걸음도 힘차게 내짚는다

우리를 믿어  
우리 탄부들을 믿어  
석탄생산의 대비약으로 불러준  
새해공동사설의 그 불같은 구절구절이  
이 심장 불태우누나  
맹세의 피를 끓이누나

내짚은 우리의 걸음걸음은  
어제날의 그 걸음걸음이 아니다  
보내는 오늘의 하루하루는  
어제날의 그 하루하루가 아니다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맞은 이해  
경애하는 장군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껴야 할 해  
이해에 우리 조국은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치며  
얼마나 빨리 얼마나 힘차게 달릴것인가

탄부들이여 생각해보자  
그 모든 승리의 전선들이  
바로 우리 탄전을 지켜보고있거니  
그 얼마나 무겁고도 영예로운

조국의 당부가 우리의 어깨우에 실려있느냐

레사롭지 않다 평범치 않다  
오, 우리의 걸음걸음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령도를 따르는  
심장의 걸음걸음 의지의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에 불이 달렸다

발걸음에 불이 달리니  
탄벽을 뚫는 정날에도 불이 튀고  
탄차의 바퀴에도 불  
콘베아의 로라마다에도 불 불...  
온 탄전이 불의 흐름 불의 바다

가자 가자 그 불을 안고 가자  
어제보다 더 켜 석탄으로  
오늘보다 더 켜 석탄으로  
당의 호소에 불같은 대답을 하자  
그 불로 시련과 난관을 불사르며  
총진군의 결승선을 향해  
탄전이여 탄전이여 앞으로

아, 불이 흐르는 우리 막장길  
더 세차게 타번지는 그 불의 흐름속에  
승리의 그날은 마중오려니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올해를  
위훈으로 수농자 승리로 빛내자



김 혜 인 그림 김 광 석

1

승용차는 조용히 달리고있었다. 봄꽃이 다문 다문 핀 산촌길이 차창앞으로 끝없이 다가오고 흘러간다. 고요하고 유정한 그 산자드락길을 따라 잊지 못할 생활의 연연한 추억도 쏜살같이 다가왔다 물러서는듯싶었다.

...

《아버지.》

어린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리고는 커다란 5점이 매겨진 국어시험지우에 《아버지 보았습니다.》라는 수표를 하려는 아버지를 언젠가 불시에 열이 나며 앓을 때처럼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눈길이 마주치자 그 애는 얼굴을 붉혔는데 귀밑까지 새빨개진것이 마치 잘 익은 도마도 알같았다. 아버지는 금시 얼퍼름해졌다.

《왜 그러니?》

아들은 망설이는것 같았다. 마른침을 꿀꺽 삼키더니 그만에야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험지의 한곳을 꼭 짚었다.

《여기...》

아들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짚은 시험지에는 《복숭아》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씌여져있었다. 아버지는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뭐가 잘못되었니?》

아들은 그만 울가망이 되었다.

《이 5점은 잘못되었어요. 난... 난 시험을... 잘치지 못했어요.》...

떠들떠들 울려나오던 그 가느다란 속삭임, 오늘따라 그 목소리는 가슴속에 야릇한 애수를 안겨주며 애절히 울려오는듯싶었다.

도인민위원회 국장 김학철은 가슴속에 갈마드는

아픔같기도 하고 그리움같기도 한 이상한 감정을 안은채 달리는 승용차에 그르듯이 앉아있었다. 차창에 언뜻거리는 봄꽃 핀 들길우에 아들의 모습은 그냥 그려진다. 그것은 5점시험지를 짚으며 얼굴을 붉히던 그 시절의 모습이다. 이제는 헌헌장부로 자란 아들의 모습을 돌이키는 이 시각 무엇때문에 그 어릴적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것인지?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의 가슴속에 간직된 자식에 대한 애모쁜 사랑과 믿음이 바로 그 시절의 순진하고 깨끗하던 모습에서 시작된것이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집이 바라보이는 멀리서부터 아버지를 소리쳐부르며 달려오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머리우에서 바람개비마냥 휘돌던 하얀 시험지.

집을 스쳐지나 뒤산 종턱에 부딪치고는 아아하게 메아리쳐돌아오던 애되교 순진한 목소리.

《아버지이— 5점을 맞았어요요!—》

...

김학철은 쭈시듯 얼벌벌해오는 가슴을 느끼며 무릎우에 놓인 한통의 문건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것은 지금 김학철이 달려가고있는 금진청년탄광에서 올라온 문건이었다. 바로 오늘 아침 이 문건과 함께 그 탄광에서 대형굴착기 소대장으로 일하고있는 아들에 대한 소식도 날아왔던것이다. 김학철은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는 자기를 다잡으려고 모지름쓰며 문건에 적혀진 수자들에 눈길을 박았다. 그것은 금진청년탄광의 능력확장과 관련한 문건이었다.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인민경제발전수요로 하여 제기되는 능력확장문제를 반영한 나무랄데없이 세밀하고 구체적인 타산안이었다.

다만 그 수자들이 적지 않은 자금과 자재를 요



구하는것으로 하여 도에서는 20여년전에 그곳 탄광기사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김학철을 탄광에 직접 파견하게 되었던것이다.

승용차는 어느덧 탄광사무실청사앞에 도착했다.

이제는 60줄을 넘긴 탄광지배인 심상훈이 앞마당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다. 인생의 쓰고단맛을 다 본 년장자답게 학철을 바라보는 심상훈의 얼굴은 범상하고 태연해보였다.

그는 많은 의미가 담긴 은근한 어조로 조심히 물었다.

《병원에 먼저 가보지 않겠소?》

학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장부터 나가보지요.》

승용차는 다시금 달렸다. 탄광에서 반년전부터 새로 개발하는 낯익은 골짜기가 눈에 띄우기 시작하자 학철은 이상한 감회와 까닭모를 위구를 동시에 느꼈다. 명수동골짜기는 20여년전 그가 기사장으로 사업하던 시기 밭이 많도록 드나든 인연깊은 골짜기였다. 그가 박토를 처리하느라고 풀놓고 다닌 그 골짜기에 탄광은 지금 새 탄밭을 마련하기 시작한것이다.

잠시후 학철은 심상훈과 함께 체모가 잡히기 시작한 로천채굴장 운반계단우에 서있었다. 아래쪽에서 집채같은 대형굴착기들이 와르릉거리고있었다. 이제 한달동안만 다그치면 탄맥과 맞닿을린다고 했다. 많은 로력과 설비를 들여 다시 파헤쳐야만 하는 그 석탄매장지우에 박토를 쌓아놓은 지난날이 삼삼히 밟혀와 심장은 더없이 불안하게 뛰었다. 침뺨은 우물도 다시 마실 날이 있다는 말은 오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가? 자신을 다잡으려고 애쓸수록 가슴속에서는 세찬 충격의 파도가 무섭게 일어번졌다.

문득 학철의 눈길이 무너진 로반우에 주저앉은 한대의 대형굴착기에 가뻐있었다. 설명이 없이도 아들이 타던 굴착기라는것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섬쩍해왔다. 무언가 등골이 서늘하도록 오싹한것이 온몸을 빙빙 둘러감는듯 했다. 그의 눈길을 띄어본 심상훈이 사고가 벌어지던 때의 정황을 설명해주었다.

...

《앗! 집이다. 피하라!》

《1호굴착기! 뛰어내리라!》

혼겁하고 다급한 부르짖음!

경악하여 굳어진 사람들의 얼굴과 짝 벌린 입들. 굴착기가 밭을 댄 로반이 삼시에 물먹은 담벽처럼 주저앉고 바가지가 걸린 버럭산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거대한 체구의 대형굴착기는 나자 빠지기 전의 거인처럼 위태롭고도 조마조마하게 기울어졌다.

모두들 눈을 감았다. 이제 굴착기는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계단식운탄길로 떨어져내릴것이다.

다들 무서운 환각을 떠올리며 눈을 감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창남이가 죽기를 각오하구 굴착기바가지를 조종해서 안전한 곳에 뺀댄 덕에 설비도 구원하고 사람들도 살았소. 헌데 마지막으로 굴러내리던 버럭돌이 운전칸으로 날아들어오는 바람에...》

심상훈은 무슨 말인가 더 할듯이 숨을 들이긋더니 의외로 짤막하게 말했다.

《국장동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학철은 아픔과 불안, 궁지와 안도감이 동시에 스며드는 이상한 감정이 깃드는것을 느꼈다. 범상해보이려고 했으나 심장은 마냥 고르롭지 않게 뛰었다.

《그 애가 지금 어떻게?》

《의식을 잃구 병원에 실려갔는데... 생명에 위험은 없을거라고 하오. 단지 상한 부위가 머리가 돼서 치료가 오래 걸릴것 같다누만. 근심스러운건 유리조각들에 얼굴을 상한거요. 잘한다구는 하지만 그게 제 얼굴만 하겠소? 의사들도 그걸 제일 우려하더군.》

빠근한 아픔을 느끼며 학철은 고개를 숙였다. 창남은 그의 외아들이었다.

아들은 군사복무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인 금진청년탄광에 탄원해왔었다. 자기도 아버지처럼 탄광막장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겠다는것이였다. 거기서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며 부속품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중량물인 대형굴착기를 맡아안더니 어느새 소대장이 되었다.

그런데 반년전부터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고 소식도 잘 전하지 않았다.

몸성히 잘있고 바쁘다는 전화를 이따금 걸어왔을뿐이였다.

안해는 아들이 탄광에 처녀가 생기더니 집을 다 잊어버린 모양이라며 절반은 즐거워하고 절반은 서운해했었다. 학철은 아들이 그래서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지만 안해의 말을 반박하지는 않았다. 그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이상스레 의외의 질문만을 하던 아들을 생각했다.

《어머니, 사람들이 우리 집에선 이젠 갈탄을 때지 않구 무연탄을 실어다 땀다고 해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듯 하며 물던 소심한 목소리. 학철과 안해는 웃고말았었다. 사실 도에서 나오는 갈탄보다는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무연탄이 한결 더 깨끗하고 리용하기 편리한것이다.

그들이 말없이 웃기만 하자 아들은 불안하고 민망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잠시후에는 물을 떠마신다는 핑계로 부엌에 나가 슬그머니 탄아궁을 들여다보기까지 했다.

그리고나서야 만족하면서도 먼구스러운듯 한 웃음을 지었다.

보매 아들은 도안의 중소탄광을 지도하는 아버지

가 갈탄을 무시하는것이 탄을 캐는 탄부들, 자기들을 무시하는 행위같아 불안해졌던것 같았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런 아버지를 보게 될가봐 겁이났던것이였다. 아들은 어느덧 진짜탄부가 된것이였다. 아들의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안해가 대견한 마음을 감춘채 짐짓 시까슬렀다.

《아니, 넌 장가두 가기 전부터 부엌일간참이냐? 원, 부엌문턱 자주 넘나드는 사내 큰일 하는걸 못 봤다.》

아들은 못된짓을 하다 들킨것처럼 얼굴이 빨개서 찢찢매였다.

그러면서도 변명하듯 입속말로 웅얼거렸다.

《아버진 가마뚜껑대리운전수를 잘만 하면서 두 국장만 하는데… 저도 장가가기 전에야 좀 드나들수도 있지요 뭐. 장가간 이후엔 아예 싹…》

《아니, 너같은 졸장부한테 어느 처녀가 오겠니?》

《왜요? 그래두 탄광에 와서 외투단추를 짹짹이루 달구 다니는 처녀가 있으면 제격 〈머느님.〉 하구 찾으시라요.》

목소가 터졌었다. 아들은 탄광에 처녀가 생겼느냐고 끈덕지게 묻는 안해앞에 웃음만을 지어보였었다. 하지만 어떤 처녀인가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떠나는 순간 어머니에게 《이제 다 알게 될거예요. 사랑하구 파일은 오래 둘수록 더 달대요.》 하고 슬그머니 암시했을뿐이였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어머니들은 철저하고 집요한것이다.

안해는 탄광에 내려가는 국의 부원들을 들쭉시는데싶더니 끝내 아들의 애인이 어떤 처녀인가를 알아내고야말았다.

《그곳 탄광 심상훈지배인의 막내딸이라나봐요. 심옥련이라구 탄광병원 의사를 한대요. 만나본적이 있나요?》

물론 학철은 만나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안해를 안심시키기 위해 처녀를 만나본적이 있으며 훌륭한 처녀라는데 대해 설명해야 했다. 그는 아들의 애정문제에 부모들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만큼 아들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안해는 왜서인지 안절부절 못하는듯싶었다. 아들이 점점 집에 발길을 하지 않고 소식도 잘 전하지 않은데로부터 오는 위구였다. 무슨 일이 그리도 바쁜지 통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늘쌍 푸념이였다.

보다못해 학철은 아들에게 전보를 보냈다.

《어머니가 기다린다. 집에 자주 오군 해라.》 며칠후에야 아들은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내왔다.

《갈수 없음. 명수동골짜기에서 탄이 나오기 전엔.》

바로 그러한 때 뜻밖의 사고가 난것이다.

《사고원인은 뭐요?》

심상훈은 불안스레 지탱하고있는 굴착기쪽을 피곳 일별하고나서 조용히 말했다.

《봄철이니 해토가 되면서 봉락구간과 맞닿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원체 제땅이 아니구 파웁겨온 박토층이니…》

심상훈은 말끝을 얼버무렸다. 원래 견고하지 못한 지반을 가진 이런 지역에 대형굴착기를 끌어들이 작업을 벌린것부터가 모험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하지만 방대한 량의 버력을 처리하고 하루빨리 탄맥을 잡기 위해서는 모험이라고 해도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사실 한대의 대형굴착기가 하루에 처리하는 박토량은 대단한것이다. 그래서 대형굴착기의 가동시간이 로천탄광의 실적이라는 말도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탄광의 전망과 관련된 이 로천채굴장 개발에 탄광이 가지고있는 석대의 대형굴착기를 다 들이밀게 되였다. 물론 지금껏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

《다 우리 잘못이요, 로반상태를 언제나 구체적으로 살폈어야 하는건데… 이번일을 통해서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소. 안심하오. 그리구… 사고현장에 있던 탄부들과 일꾼들모두가 희생적으로 굴착기를 구원한 창남동물 크게 표창해야 한다구 제기했소. 그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

그 어떤 공통감과 혈연감을 느끼고싶어하는듯한 심상훈의 얼굴이 학철을 지켜보고있었다. 학철은 이 지배인이 이미 창남이를 탄광의 평범한 굴착기소대장으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대상자로서 대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느꼈다. 고마왔고 기뻐했다. 그와 모든것을 톡 털어놓고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긍지를 말하고싶었고 앞날의 일을 토론하고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사업에 인정을 섞고싶지 않았다. 금진청년탄광의 모든 문제는 그의 아들의 문제이기 전에 당에서 관심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는 아직 탄광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할 일꾼이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심상훈에게 어정쩡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보일수밖에 없었다.

《우리 애가 사람들속에서 그런 칭찬을 듣는다니 기쁘구만.》

이윽고 그들은 사고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소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제 저 굴착기를 어떻게 하려오?》

《현장에서 끌어낸 다음 로반상태를 알아보구는 다시 작업을 시키려고 하오. 사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1호가 벗어나는 바람에 술한 계획을 밀렸소.》

학철은 말없이 걸었다. 탄광의 앞으로의 계획수행에서 이 명수동로천채굴장개발이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며 거기서 대형굴착기 한대가 차지하는 몫은 더더욱 크다. 그래서 심상훈도 이번에 제출한 설비

명세에서 대형굴착기를 제일먼저 꼽았을것이다. 학철은 조용히 말했다.

《지배인동무가 제기한 설비와 자재, 자금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지요. 우린 이제 이 수자들을 당에 보고드려야 하오.》

심상훈이 다소 걱정스러운듯한 한 눈빛으로 학철을 바라보았다.

《그 수자들이 많다는 소리를 하자는건 아니요? 이건 우리 탄광이 해내야 할 계획에 기초한 최소한의 지출이요. 우린 마지막소수점 하나까지 따지는 심정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소.》

학철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알고있소. 하지만 지배인동무도 알다싶이 지금 나라의 경제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지 않소? 우리는 자기가 낼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계산해내야 하구 국가에서 보장받을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수자를 찾아내야 하오. 이런 면에서 우린 자각적이어야 하구 량심적이어야 하는거요.》

심상훈은 말없이 학철의 얼굴을 외면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득 학철이 걸음을 멈추었다. 운탄길 한쪽 바위돌우에 걸터앉은 거뭇한 형체를 띠어본것이다. 그 사람은 길쭉 바위돌우에 녹아불은듯 쭈그리고 앉아있었는데 고개까지 똑 수그리고있어 자세히 여겨보지 않으면 바위돌로 빗볼 정도였다. 그의 온몸에서 풍겨오는 주변을 방심해버린듯 한 락심하고 시름겨워하는 기운이 학철의 눈길을 끌었다.

《동문 누구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다. 그 순간 학철은 낮익어보이는 아들나이또래의 젊은 얼굴을 보았다. 내가 이 청년을 어디서 보았던가? 심상훈이 더 놀라는것 같았다.

《아니, 이게 2호굴착기 소대장이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 이러고있소? 1호굴착기를 꺼내는 일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청년은 당황한듯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학철을 알아보고는 더욱 당황해서 인사를 해야 할지 피해야 할지 우물쭈물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무슨 일이 있소?》

심상훈이 다소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청년은 피할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깨를 쭉 펴며 몸자세를 바로했다. 학철은 그제야 몸매가 미끈한 다소 거칠어보이는 표정의 청년을 보았다. 청년은 모두 거리로 학철과 심상훈에게 고개를 끄덕여보고는 씩씩하게 대꾸했다.

《일이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동무의 희생성은 보지 못하고 저만 생각한 편협하구 옹졸한 자기를 반성해보는중이지요.》

다소 도전적으로 울리는 그 어조에 학철은 얼떨름해졌다. 그러나 청년은 더 물어볼 사이도 없이

아래길쪽으로 스적스적 가버리는것이였다.

《아니, 저 동무가?!》

《누구요?》

《알겠는지? 한정주라고... 대형2호굴착기 소대장이요, 창남이하군 어릴적 소꿉동무구.》

불현듯 학철은 깨달았다. 아, 그였구나!...

《그런데 왜 저러오?》

심상훈은 입맛을 찻찻 다셨다.

《모두들 창남이를 크게 표창하구 내세워야 한다고 하구있는데 유독 저 친구만이 그건 사고를 막은것이지 영웅적인 희생은 아니라구 말해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겠소? 사람들이 가만있을게 뭐요. 창남이와 친구이긴 하지만 늘 1등과 2등을 다투면서 경쟁해오더니 이제 초보적인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들구일어났지요. 그게 동무를 병원에 눕혀놓고 할 소리인가구 모두들 격분했소. 그랬더니 저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썩 가버리지 않았소? 참, 사람속이란 알다가두 모르겠단니까.》

심상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늘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경쟁을 부추겨온 내 잘못인것 같소. 사실 창남이와 저 친구의 경쟁은 팽창했소. 도무지 양보를 몰랐지. 그런데 자기 동무를 병원에 눕혀놓구두 그런 경쟁심리에 사로잡힐줄은...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소.》

학철은 깊은 생각에 잠겨 말없이 멀어져가는 한정주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2

학철은 점심참에 아들이 입원해있는 탄광병원에 들렀다. 심상훈이 함께 왔다. 병원특유의 소독수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은 알지 못할 불안으로 다시금 세차게 뛰었다. 모든것이 하얗게만 느껴지는 병원소생과 입원실.

소독수냄새와 함께 방안에 푹 밴듯 한 고요.

어느 한 침대머리에서 한 처녀가 일어섰다. 그 순간 학철은 수심에 잠겨 더욱 호수처럼 깊어보이는 처녀의사의 그윽한 두눈을 보았다. 청초하면서도 세련되어보이는 용모의 아름다운 처녀였다. 야릇한 예감으로 가슴이 후두두 뛰여왔다. 심상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이요.》

순간 지금껏 긴장하게 굳어졌던 학철의 얼굴이 순수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기쁘고도 감사한 미소로 부드럽게 펴여졌다. 그는 처녀를 향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애길 다 들었소. 고맙소.》

처녀는 수줍게 고개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뜻모를 동작으로 환자의 발치쪽 이불깃을 여며주며 빨갛게 얼굴을 붉혔다. 딸의 당황함을 덜어주려는 듯 심상훈이 나직이 물었다.

《환자가 좀 어땠니?》

그제야 처녀는 방안에 들어선 두사람과 무관한 한명의 의사로 돌아가고 싶어 애쓰는듯 한 어조로 토박토박 말했다.

《정신을 차렸었습니다. 하지만 동통때문에 진통제를 주사했어요. 아직 며칠간은 안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학철은 온통 붕대로 감긴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가슴이 옥죄여드는듯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는 굴착기에 대하여 묻구 아버지께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에 대해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 순간 학철은 아들이 보내온 명수동골짜기에서 탄을 캐내기 전에는 집에 갈수 없다고 하던 전보를 생각했다.

왜 아들은 그때도 지금도 아버지를 피하는것일까? 문득 자기 집에서 갈탄이 아닌 무연탄을 땀가봐 부엌아궁까지 들여다보던 그 얼굴이 떠오른다. 혹시 아들은 자기에게서 무엇인가 그것과 비슷한 불신과 불만을 느낀것이 아닐까? 학철은 자기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들의 속마음을 이아릿답고 세련되어보이는 처녀의사만은 알고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일종의 기대감을 안고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처녀의 얼굴은 이미 환자를 앞에 둔 의사의 얼굴로 돌아가있었다. 아무것도 물을수 없다는것을 느끼며 학철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쪽에서 발자욱소리가 들리더니 입원실 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문가에 묵직해보이는 구력을 손에 든 한정주의 모습이 나타났다. 다같이 놀랐다. 그들은 서로의 놀라움과 어색함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말없이 서있기만 했다. 심상훈이 한마디 했다.

《들어오우. 왜 말뚝처럼 그러고 섰소?》

그제야 한정주는 입원실안으로 들어섰다. 온통 붕대에 감긴 환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 꾸며낼수 없는 아픔과 정이 흘러가는것을 학철은 똑똑히 보았다. 아들의 소꿉동무이면서도 말없는 경쟁자라는 저 청년. 문득 아들의 선생님인 저 청년의 어머니를 찾아 그의 집으로 갔던 수십년전의 일이 떠오른다...

그때 학철은 아들의 시험지를 손에 들고있었다.

《아니, 창남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선생님은 반색을 했다. 어머니의 옆에서 사박사박 사과를 베어먹고있던 어린 소년이 꾸벅 인사를 했다. 그가 바로 한정주였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선생님이 물었다. 학철은 아들의 시험지를 내보였다.

《선생님, 이 시험점수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은 울고있어합니다.》

학철은 아들이 그랬던것처럼 시험지의 한곳을

짚었다. 토박토박 씌여진 《복숭아》라는 글자를 보며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그옆에서있던 소년의 얼굴은 무섭게 빨개졌다...

그 모든것을 돌이키는 이 시각 학철은 가슴을 옥죄이는듯 한 의문과 불안을 느꼈다. 어쩌서이 청년은 친구의 소행을 용감성과 희생성으로 평가하는것을 거부한것일까? 순수 경쟁심리때문이었을가?

《정주동무, 어머니는 건강하시오?》

정주는 흠칫했다. 사연깊은 눈매의 이 국장이 다만 어머니의 안부만을 묻고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느낀듯싶었다. 그는 목구멍으로 무엇인가를 꿀꺽 삼키고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건강하십니다. 이제는 교편을 놓은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늘 그 시절의 일들을 옛말처럼 외우시곤 합니다. 국장동지와 창남동무 얘기두...》

두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그 순간 학철은 아들의 시험지를 들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갔던 그 시절에 본것과 똑같은 그런 깨끗하고 솔직한 두눈동자를 본것만 같았다.

《정주동무,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를 좀 할가?》

정주의 눈가에 두려움과 류사한 반발의 빛이 언뜻 흘러갔다.

《전 아무것도 할말이 없습니다.》

《정주동무!》

《국장동지,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시시오.》

《?!...》

학철은 정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을 안고있는듯 한 청년의 마음속으로 뚫고들어가고싶어 모지름췌다.

하지만 정주는 그 눈길을 피한채 황황히 자리를 뜨고말았다. 그가 사라져간 문쪽에서 알길 없는 불안과 의혹이 자꾸만 날아오는듯싶었다.

학철은 뒤쫓아갔다. 끝내 병원앞 공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정주동무!》

학철은 한정주의 어깨를 힘껏 나꾸쳤다.

《왜 그러십니까?》

허둥지둥 방황하는 청년의 두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학철은 엄한 목소리로 숨차게 부르짖었다.

《동문 나한테 뭔가 숨기는게 있지?》

《그런건 없습니다.》

《아니, 동문 뭔가 숨기고있소.》

《...》

학철은 침착해지려고 애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정주동무, 왜서인지 이 순간 동무의 어릴적일이 자꾸만 떠오르는구만.》

그때 우리 창남이의 시험지에 이상한 5점이 매겨졌던 그 일이 말이요.》

《?!...》

《그때 동문 자기밖에 누구도 모르는 그 사연을 스스로 다 털어놓았겠지.》

그랬었다. 뜻밖의 일에 놀라고 당황하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혹시 창남이가 너무 시험생각에만 몰입하다가 제가 쓴것인지 안 쓴것인지 헷갈리게 아닐까요?》하고 말하는 선생님— 자기 어머니앞에 한정주는 얼굴을 붉히며 모든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던것이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라구...》

《아니, 난 동무가 바로 그 시절처럼 순진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고싶소. 말해보오. 동문 우리 아들 일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있지?》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확연했으나 입으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국장동지, 왜 자꾸 이러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절 자꾸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동문 자기의 속생각을 숨기구 판전을 피울 사람이 못돼.

우리 창남이의 친구로서 그리구 탄부로서 무슨 일때문에 그러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오. 정 창남이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겠다면 탄광관리국 국장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요, 응?!》

《국장동지!》

정주는 가늘게 부르짖었다. 물기가 내뻗듯 한 시선으로 학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서 학철은 무엇인가 크고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창남동문 한달전에 벌써 1호굴착기주변에 심상치 않은 짐이 온걸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미세한데다 차츰 시간까지 경과하다나니...》

학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니 우리 창남이가?!》

《...몇달전 창남동무가 집에 다녀온 직후였습시다.》

...

《여, 인상이 왜 그래? 혹시 집에서 옥련동물 반대하던가?》

창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집에 무슨 일이라두?...》

대답은 긴 한숨소리뿐... 늘 웃음이 마를줄 모르는 명랑한 락천가인 창남이의 돌변한 태도에 정주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제길, 병어리숙은 낳은 제 어미도 모른다는데 그러지 말구 어디 속시원히 한번 말해보게. 우리야 친구지간이 아닌가? 그렇게 우거지상이 돼가고 무슨 일을 바로하겠나?》

불시에 창남은 정주를 면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황황 타고있었다.

《정주, 난 사실 이번에 집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아주 중대한걸 물었됐네, 혹시 하고 말이야. 현대 우리 아버지가 글썄... 예익.》

...

《창남동문 몹시 상심하고있었습니다. 그가 다 털어놓진 않았지만 전 그 고민이 아버지때문이며 그것도 명수동로천채굴장때문이라는걸 어렴풋이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그후부터 창남동문 통 웃음이라는걸 모르는 과묵한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그저 탄맥, 탄맥 하면서 하루빨리 명수동에서 탄맥을 잡을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자기만 본 징후도 그래서 숨겼을것입니다.》

아, 하고 학철은 신음소리를 지를번 하였다.

《아버지, 명수동에 정말 얹은탄층밖에 없었습니까?》

그날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면서도 별스레 긴장해서 묻던 아들의 목소리...

《그래, 명수동골짜기는 탄광개발때부터 막장을 전개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얹은탄층밖에 없는것으로 공인되어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박토를 처리하게 된거란다.》

아들은 그 어떤 간절한 빛을 띤 얼굴로 학철을 바라보았다.

《오랜 탄부들의 말을 들으니 그 지시를 아버지가 내렸다면데 그게 정말입니까?》

학철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때 김성호지배인은 뜻하지 않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었다.

불시에 탄광을 떠맡게 된 학철은 어떻게 하나 생산을 추켜세우려고 밤잠을 잃고 뛰여다녔다.

제일 걸린것이 박토처리였다. 박토의 처리자 곧 생산실적인것이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탄광에서는 수십리 떨어진 폐갱된 이전 로천갱에 박토를 실어다버리고있었다. 일이 안될세라 수십년이래 처음으로 되는 큰 물이 나면서 폐갱으로 가는 길이 끊어졌다. 폭우는 사정없이 쏟아졌다.

양수기들을 총동원하였으나 미친듯이 퍼붓는 물의 힘을 도저히 당해낼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이 미 파먹은 막장들에게까지 물이 넘쳐나면서 폐갱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거대한 물바다를 이루었다.

길을 원만히 복구하자면 일추잡아 한달은 더 걸려야 했다. 그렇게 되면 이 탄광의 석탄을 생명선으로 하는 적지 않은 공장들이 숨을 죽이게 될것이다. 학철은 생각다못해 병원으로 찾아갔다. 김성호지배인은 그를 보자마자 활 이불을 제끼고 벌떡 침상에서 일어나았으며 소나기같은 질문을 퍼부었다.

《길은 복구했소? 생산갱박토처리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배인동지의 병치료를... 방해해야 할가봅니다.》

학철은 어색하게 말끝을 흐리며 병으로 몰라보게 수척해진 지배인의 주름깊은 얼굴을 기대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하여 도적으로 소문난 이 관록있는 지배인만은 반드시 그 어떤 신통한 묘안을 찾아낼것만 같았

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음… 두루 생각해보았는데 아무래도 박토수송 차들을 명수동골짜기로 돌려야 할것 같소.》

《예, 명수동엘 말입니까?》

지배인은 중병을 앓는 사람같이 얹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소. 지금은 그 길밖에 없소. 명수동이야 다들 알다싶이 실리가 전혀 없는 얹은탄층밖에 없지 않나. 막장에서두 가깝구 지대가 높아 큰물이 미칠 녘려도 없구. 그래 기사장동무생각은 어떻게소?》

매사에 침착하고 심중한 학철은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면 아무리 바빠도 시추탐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탄광개발초기에 나온 탐사자료이니 30여년전것이 아닙니까? 설사 탄은 없다쳐두 다른 자원이 있으면 어찌했습니까?》

지배인은 안타까운듯 정숙을 보장해야 할 병원이라는것도 잊고 어성을 높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언제 이러구저러구 할새가 있소? 우리가 말공부질하는 사이 공장들이 밋는단 말이요, 공장들이! 정 시추를 하겠으면 이번고비나 넘기구 봅시다. 그대로 집행하오. 책임은 내가 지겠소.》

학철은 공장들이 밋는다는 바람에 입을 다물었다. 병상에서도 오직 생산밖에 모르는 지배인을 더이상 괴롭히고싶지 않았다. 지배인의 말이 옳지 않은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나친 로파심때문에 괜히 지난날 탐사자료를 의심하는건 아닌지? 그리하여 박토를 만제한 대형자동차들이 줄지어 명수동골짜기로 향하게 되었다....

회억에서 깨어난 학철은 이미 오래전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김성호지배인을 거들고싶지 않아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내가 지시한건 사실이다. 헌데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럼 난 바빠서...》

황황히 자리를 일던 아들의 당황한 모습.

그 이상스러운 행동이 이제야 똑똑히 리해되었다. 정주의 말에 의하면 탄광의 능력확장에 절실히 필요한 전반적인 탄발들에 대한 재지질탐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다들 우리 과학자들이 새롭게 발명한 CT지하단층탐사기술에 의하여 실리가 적은 얹은탄층밖에 없다고 하던 명수동골짜기에 기름진 비계탄층이 숨어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자기 아버지가 그때 기사장으로 사업한것을 알고있는 아들로서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싶었을것이다.

그래, 이제야 모든게 비내린 뒤의 푸른 하늘처럼 선명해진다. 봉락의 징조가 나타나면 대형굴착기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고 철수해야 한다.

그것은 박토구간에 나타난 징조이기때문에 한대

만이 아닌 석대의 대형굴착기가 다같이 작업을 중지하고 철수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면 새 탄맥을 잡는 일은 그만큼 늦어진다.

명수동골짜기에 박토가 쌓여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막대한 로력과 시간이 낭비되는것이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때문이라고 생각한 아들로서는 사람들이 이 국장을 비난하는것이 무엇보다 무섭고 가슴아팠을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그 징후를 숨기고 모지름쓰듯 일했을것이다.

아, 그러니 결국 이 엄청난 사고가 어제날의 실책으로 빚어졌단 말인가?

《창남동무의 행동을 그 어떤 용감성이나 희생성으로 묘사하는것이 난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굴착기를 구원하구 사경에 처한 동무에게, 더우기 창남동무가 그렇게 사랑하구 존경하던 아버지의 얼굴에 흠칠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니다.》

학철은 망연자실하여 서있었다.

《창남동문 이 탄광의 개발자로 달려와 탄부로부터 시작해서 일군으로 성장한 아버지를 몹시 사랑하구 존경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 아버지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번사고는 바로... 그래서 생긴것입니다.》

학철은 크나큰 아픔과 자책으로 호흡이 가빠졌다.

《그럼 동문 앞으로 이 문젠 어떻게 처리하려 했소? 계속 입을 다물고있을 작정이었소?》

《탄맥이 나올 때까지 난 내가... 창남동문 대신 하여 힘껏 일하려구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엔 모든걸 다 말하려구...》

학철은 한없는 아픔과 번민을 느끼며 뉘엿이 되뇌이었다.

《그러다가 만약 또 봉락이 일어나면?》

한정주는 대답이 없었다. 학철은 아프게 뛰는 심장을 느꼈다.

《결국 그때에는 자네가 우리 창남이처럼 한몸을 내대겠단 말이지?》

《국장동지!》

그 순간 학철은 어린시절 아들의 시험지를 고쳐주었던 정주를 생각했다.

그때 《복숭아》라는 글자의 《숭》자를 꼬리 없는 《숭》자로 썼던 아들의 시험지에 다름아닌 한정주가 획 한자를 더 그어 5점으로 만들어주었던것이다. 시간이 바빠 채점을 미처 못한채 시험지를 들고온 어머니가 저녁밥을 짓는 사이 그는 어머니 몰래 친구를 도왔던것이였다.

결국 이번에도 정주는 아버지때문에 마음쓴 자기 친구를 위해 모든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자기가 친구가 섰던 위치에 서자고 결심한것이였다. 그는 이번에도 자기 친구의 인생시험지에 남 모르는 획 하나를 더 그어주려고 마음먹은것이였다. 학철은 모진 번민과 아픔으로 하여 가슴이 찢

어지는것만 같았다. 아들과 이 청년을 탓할수도 지지할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자신을 뼈아프게 느꼈다. 그것은 이 문제가 다름아닌 자기자신의 문제이자 아들의 문제이기때문이다.

원칙대로 하면 아들은 사고의 전조를 알고있으면서도 숨기고있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쩌면 그것은 법적성격까지도 필수 있는 엄청난 일인것이다. 제대로 되자면 아들은 이제 광산사고심의회에 나서야 한다. 입원실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가슴이 얼얼해났다. 아버지를 위해 남몰래 속을 태우며 서슴없이 자기를 내댈 아들을 그토록 모질게 떠밀어버릴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는것인가?

《국장동지, 모든걸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제 저 명수동골짜기에서 탄이 나오면 그때엔 모든것이 지나간 일로 될겁니다. 누군들 실수할 때가 없겠습니까? 난 친구의 그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모신 아들로서 그리구 탄부로서 국장동지를 돕겠습니다. 이건 진정입니다.

제 진정을 뿌리치지 말아주십시오.》

한정주의 절절한 당부앞에 학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모든것이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아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학철의 어제날의 실책과 파오는 사람들앞에 더욱 엄청나고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될것이다. 물론 당시로서는 지배인의 지시를 집행한것이지만 원칙을 잃고 행동했던것만은 사실이다.

이제는 모든것이 학철의 어제날의 실책과 파오 때문이라는것이 밝혀질것이다.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아들의 마음은 비난을 받고 수치와 치욕을 들쓰게 될것이다. 아프고도 무서운 일이다. 한 아버지와 아들, 한 굴착기소대장과 관리국 국장이 자기들의 명예와 공로를 강그리 버럭속에, 수치속에 파묻어야 하는 엄청난 일인것이다.

《국장동지, 불락징조는 한달전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내 별일이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박토층을 지나 구 탄맥도 잡을수 있습니다.》

아, 구원의 바줄인양 느껴지는 그 목소리, 하지만 알지 못할 어떤 내심의 힘이 그 구원의 목소리를 떠박지르고있었다. 아니, 그럴수는 없다. 랑심을 속일수는 없다. 학철은 아무말없이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 흠칫 놀라며 굳어졌다. 자기 등 뒤에 서있던 낯익은 사람들을 본것이다.

그들은 다름아닌 지배인 심상훈과 그의 딸이었다.

컴컴하고 해쓱하게 질려진 그 얼굴들이 당황한듯 학철의 시선을 피한다.

창황중에도 모든걸 다 알았구나 하는 섬찍한 예감이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다같이 참담하고 당황한 심정으로 말없이 서있었다.

문득 학철은 심옥련의 손에 하얀 체온계가 들려

있는것을 보았다.

해빛을 받아 그 체온계의 은빛수감부가 눈부시게 반짝거린다.

예리하고도 아프게 눈을 자극하는 그 반짝임, 아들의 체온을 재던 체온계일것이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에 경황없이 그 체온계를 들고 달려나왔을것이다. 또다시 눈부시게 안겨오는 그 예리한 반짝임.

학철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그것을 외면했다. 하지만 그 강렬한 반짝임은 눈가에 그냥 남아있었다. 아들과 처녀의 얼굴이 하나로 합쳐져 어른거린다. 그 순간 학철은 자기가 자신과 아들의 문제만이 아닌 어쩌면 미구에 한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귀중한 처녀의 운명과도 관련되는 아프고도 엄청난 문제앞에 서있다는것을 똑똑히 느꼈다. 그것은 또한 지배인 심상훈의 문제이기도 한것이다. 거뭇해진 얼굴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심상훈의 얼굴도 보았다. 그는 학철을 향해 태연한 얼굴을 지어 보이려고 애썼다. 무엇인가 방도가 있다고 말하고싶어하는듯 한 얼굴이다. 그 모든 존재들이 커다란 압박감을 안고 눈앞을 짝 막아서는 듯싶었다.

모진 번민과 방향에 심장이 밖으로 툭 튀어나올것만 같았다. 학철은 목구멍을 짹 치받는 뜨거운 덩이를 힘들게 삼켰다. 자기를 다잡으려고 무진애를 쓰며 천천히 그들을 스쳐지나 걸었다.

《국장동무!》

심상훈이 당황한듯 불렀다. 학철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짜내는듯 힘들게 말했다.

《지배인동무... 우리 창남이 문제를... 광산사고 심의에 제기해주오.》

그 순간 학철은 처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하얀 체온계가 눈부시게 반짝이며 땅바닥으로 떨어져내리는것을 똑똑히 보았다.

### 3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고있었다. 하늘에서는 비를 품은 어마어마한 구름장들이 시커멓게 모여 굴실대고있었다. 봄소나기가 오려는가싶었다.

학철은 지배인방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심상훈지배인은 학철을 등진채 박아세운듯 창가에 서있었다. 그들은 다같이 싸우고난 사람들처럼 서로를 외면한채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끝날것 같지 않은 침묵이었다.

이윽해서야 심상훈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국장동무, 왜서인지 오늘따라 이 탄광개발때 저 물포갱에서 있었다던 일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나두 다른 탄광에 있다가 와서 이 탄광 초창기일은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만은 너무두 잘 알고있습니다. 탄광사람들이 누구나 전설처럼 전하는 이야기니 말입니다.》

학철은 야릇한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며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심상훈은 조용히 말했다.

《국장동무도 잊지 않았겠지요? 저 물포지구 개발때 굉장히 큰 물주머니를 밑으로 떨어던 일을 말입니다.》

학철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는지 알아차렸다. 어떻게 잊을수 있으랴. 그때 탄맥을 가로지른 커다란 물주머니를 밑으로 내리떨구어 물길굴로 뿜자고 갱을 뚫었었다. 그런데 마지막발파를 위한 착암을 앞두고 심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만약 착암도중에 착암기정대가 물주머니벽을 관통하게 되면 그 순간에 거대한 압을 가진 물주머니의 압력에 밀려 착암기가 포탄처럼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착암을 하던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수 있었다. 그러한 실례들이 있었다.

더우기 물주머니의 압력은 무시무시한것이며 그것이 착암기의 정머리가 뚫고들어가는 마지막순간에 미쳐 손쓸새없이 착암기를 뿌려던질수 있는 것이었다. 그 착암을 바로 학철이 맡아나섰다. 수많은 만류와 청원, 눈물겨운 당부와 부탁, 그 모든 것을 안고 학철은 혼자 착암을 했다.

마지막순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착암기가 벌떡 나가누우며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오고 그 착암기를 있는 힘껏 틀어쥐고 일하던 학철은 착암기와 함께 뿌려져 갱벽에 부딪혔다. 순식간에 학철의 두팔은 골절되었다. 하지만 탄광개발을 가로막은 물주머니와의 싸움에서 이긴 궁지감에 췌은 탄부 학철은 소리내어 웃었었다. 그 인격과 용감성에 반한 한 처녀가 스스로없이 병원에 찾아와 두팔을 골절당한 청년의 입에 음식을 떠넣어주었다. 그 처녀가 바로 창남이 어머니였다.

이 탄광의 구석구석에는 쉽게는 잊을수 없는 그의 진한 땀과 눈물의 추억이 새겨져있었다.

심상훈은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고있는 것이었다.

《탄광사람들은 이 탄광을 위해 바친 국장동무의 수고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국장동무를 존경하고있고.》

《무슨 말을 하자는거요?》

심상훈은 창밖에서 눈길을 떼고 학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수 없는 완강한 기운이 그에게서 풍겨왔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그래 이제와서 그 공로와 인격에 스스로 먹칠을 해야 옳겠소? 창남이도 사실 그래서 그랬을거요. 내 말이 틀립니까?》

문득 학철은 그가 자기보다 췌 년장자이며 생활의 많은것을 겪은 선협자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가 이 아프고 피로운 문제에 대한 자기식의 확고한 견해와 해결책을 가지고있다는 은연중의 기대와 미련마저 느꼈다. 책상우에서 전화기가 아까부터 야릇한 신호음을 울리고있었다. 재촉하는듯 그 전화기소리가 방안에 질게 드리운 안타

까움과 불안을 더해주고있었다.

《지배인동무, 전화를 받으.》

심상훈은 고집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탄광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지금 이 문제처럼 심각하고 바쁘지 않소.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구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그 문제야 이미 결론되지 않았소.》

심상훈은 마치 처음이라도 보는 사람처럼 학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우유도 쏟고 고뿌도 깨는 그런 결론 말이요?》

《?!...》

《사람이 체면을 잃으면 더 잃을게 없다고 했소. 생각을 깊이 해주오.》

학철은 굳어졌다. 아프고도 두려운 구석을 면바로 찢어놓것이다. 심상훈은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국장동무, 여기에 좀 와보오.》

학철은 어쩔수없이 창가로 다가갔다. 심상훈은 밖을 가리켜보었다.

그 순간 학철은 사무실앞마당의 버드나무아래 그린듯이 서있는 한 처녀의 모습을 보았다.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처녀는 비를 뚫은 사나운 바람결에 머리칼을 훑날리며 서있었다. 마치 한그루의 나무처럼 선채 하염없이 지배인실창문을 올려다보고있었다. 처녀의 머리우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버드나무가 태질하듯 뒤설레이고있었다.

학철은 가슴이 막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다름아닌 심상훈의 딸 심옥련이었던것이다.

《아까부터 저러고있소. 올라오고싶겠지. 와서 물어보고싶고 사정하고싶고... 하지만 차마 올라오지는 못하고 저기서 그렇게 마음을 태우고있소.》

여보 국장동무, 피차 허물없는 처지니 솔직히 말한다구 욕하지 마오. 국장동무나 나나 먼저 저 애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학철은 자기를 똑바로 지켜보는 심상훈의 눈가에 거부할수 없는 힘과 자신심이 넘쳐난다는것을 똑똑히 느꼈다.

《나도 국장동무의 심정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번져진걸 어찌겠소? 우리 피차 나이도 있는데 자기나 자식들을 너무 학대하지 맙시다.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먼저 생각해보잔 말이요.》

《그러니... 어찌면 좋겠소?》

알지 못할 안도감과 의존심마저 느끼며 학철은 인간생활의 가지가지 사연과 비밀을 다 알며 다 겪어온듯 한 그의 나이들어보이고 여유작작해보이는 얼굴을 한없는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바라보았다.

《사실 아버지를 지키려는 창남이의 심정은 극진한거요. 물론 이제와서 그걸 용감성이나 희생성으로 표창할순 없소. 하지만 치욕이야 안겨줄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그는 자기 얼굴뿐만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에도 흠칠을 하는 불효자식이



되고마오. 창남인... 견뎌내지 못할거요.》

학철은 심상훈이 무시할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왜서인지 이 순간 그에게 의지하고싶어졌다. 그가 더는 반박할수 없는 논리와 힘으로 자기를 이겨주었으면싶었다.

《국장동무나 나나 일군인데 솔직히 사람들한테나 상급에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좋지 어제날의 파오가 두드러지고 사업권위가 없어지는 그런 일을 칭할 멋이야 있소? 명수동일이라는게 그때로서는 어쩔수 없는 실수였구 그래서 이젠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두 사라지지 않았소. 인간이 왜 실수할 때가 없겠소.》

학철이 반발하듯 입을 열려는 순간 심상훈은 손을 뻗 내저었다.

《아직 내 말을 좀더 들어보오. 나두 국장동무의 심정을 다 아오. 내가 다 제대로 처리할테니 지금은 그저 당분간만 창남이문제에 침묵해주오. 그 문젠 사고심외에 붙이는 일만은 삼가해주오.》

학철은 지금의 상태에서 심상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말하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자기가 거부할수 없다는것도 깨달았다.

그것은 창밖에서 절절한 마음을 안고 이 방을 올려다보고있는 한 처녀의 소원이기도 한것이다. 이 순간 학철은 그 처녀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꼈다.

비를 머금은 바람이 창밖을 불어지른다. 버드나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몸부림친다. 순간 그 나무 밑에 선 처녀도 몸부림치며 휘청거리는듯이 느껴진다. 고통같기도 하고 안도감같기도 하며 그 어떤 자포자기같기도 한 혼탁된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학철은 어느덧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것을 알아보았다.

창유리로 비물이 흘러내린다. 학철은 소스라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처녀는 여전히 애달픈 자세로 서있었다. 마치 땅을 파고 심은듯 했다.

불시에 학철은 창가에서 물러섰다. 섹스한 찬비속에서도 하염없이 창가를 올려다보고있는 처녀와 저도 모르게 눈길이 부딪친것만 같았기때문이었다. 죄의식과도 같은 빠근한 아픔이 가슴속을 흘러지났다.

책상우에서 전화기가 다시금 울었다. 청원하는듯 한 야릇하고 끈질긴 종소리, 심상훈이 전화를 받았다. 성이 난듯 한 무뚝뚝한 얼굴로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러더니 《내 곧 가겠소.》하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학철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사소한 행동과 말마디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자기를 느꼈다. 그와 눈길이 부딪치자 심상훈은 안심하라는듯 웃음을 지어보였다.

《국장동무, 이번 일을 두고 국장동무나 창남이

를 돕고싶어한건 우리 탄광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인것 같소.》

《?!...》

《한정주가 창남이가 타던 굴착기에 올라갔다오. 올라가서 굴착기가 기울어진채로 이동시켜 안전한 지대로 뽑으려고 한다오. 위험을 무릅쓰고 한시라도 빨리 일을 하자는거요.》

국장동무! 그저 모든걸 우리에게 맡겨주오.》

학철은 자기가 더는 어쩔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드는것을 똑똑히 느꼈다. 심상훈의 견해와 의지에 모든것을 맡길수밖에 없다는 속수무책의 무력감이 지금껏 곳곳이 버티고있던 망심의 고지들을 야금야금 점령해가고있는것이였다. 심상훈은 빙그레 웃었다.

《적정마오. 내 명수동에 나가보고 오겠소. 다 잘될거요.》

그는 다시한번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는 문가로 걸어갔다.

뚜벅뚜벅... 한걸음 또 한걸음...

학철은 모진 아픔과 번민을 느끼며 빨려들어가듯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느덧 출입문가에 다가섰다. 문손잡이를 잡는다.

바로 그 순간 알지 못할 충동으로 학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도 모르게 그 사라져가는 잔등을 향해 불렀다.

《지배인동무!》

학철은 자기가 엄청나게 큰소리로 심상훈을 부른것만 같이 느꼈다.

심상훈의 잔등이 흠칫하고 서버리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걸어 문가에서 사라져버렸다. 환각이었던것이다. 그는 끝내 심상훈을 부르지도 못하고만것이였다. 어느덧 문은 닫히고 방안은 고요에 잠겼다.

텅 빈 방안에 끝없는 고독감과 무력감이 밀려들었다. 또다시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릴적의 그 얼굴이 그리고 병원에서 본 붕대를 감은 얼굴이 떠오른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예전 얼굴같을수는 없으리라던 심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시험지를 짚으며 얼굴을 붉히던 아들의 어릴적 얼굴이 그냥 어른거린다. 꿈결처럼 울리는 그 속삭임소리...

《이 5점은 잘못되었어요. 난... 난 시험을 잘치지 못했어요.》

모든 사연을 다 알았을 때 온몸을 확 태우는듯 하던 아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아들이 사랑스럽고 대견해본적은 없는것 같았다. 그때 그는 아들을 으스스리게 껏 껏안아주었다.

《용타, 창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꼭 오늘처럼 살거라.》

아버지품에 안긴 그 애의 몸에서는 젖내와도 같은 애리에리한 살내가 풍겼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아들은 제힘으로 5점을 맞았었다.

그 시험지를 들고 멀리서부터 아버지를 찾으려 달려오던 아들의 모습.

《그 애는 꼭 당신을 닮았어요.》

안해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온다. 미더운 아들애에 대한 칭찬도 불만도 안해는 늘 그 한마디로 대신하곤 했었다. 과연 무엇을 닮았다는것일까? 순진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린 이 순간의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아버지를 그 애가 그대로 닮았다는것일까? 나는 이제 그 애에게 이 일을 두고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것인가? 학철은 한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문득 귀전에 잊지 못할 목소리가 우렁우렁하니 울려왔다.

《자기 량심을 지키는데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이 사실은 가장 강한 인간이야.》

이상한 아픔에 심장이 졸아들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었던가? 이런 순간을 위해 누군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준듯이 느껴지는 그 못 잊을 목소리. 아픔은 추억을, 추억은 잊지 못할 그날에로 거침없이 학철을 이끌어갔다.

…전술훈련관장정에는 긴장한 정적이 깃들었다. 출발진지를 차지한 상등병 김학철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어이 돌파해야 할 각종 차단물을 지그시 쏘아보고있었다.

땅! 드디어 신호총성이 울렸다. 학철이 속한 분대는 질풍같이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첫 장애물을 단숨에 날아넘고 산고지로 치달아오르는 학철의 온몸으로 땀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무기장구류가 천만근으로 온몸을 내리눌렀지만 학철은 저만치 앞서달리는 구대원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각종 차단물을 날아넘으며 고지정점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최종장애물인 영구화점이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투척지점에 이른 학철은 숨돌릴새없이 서둘러 수류탄을 날렸다. 아뿔싸! 아쉽게도 빗맞혔다. 너무 긴장하던 나머지 헤덤비며 실수했던 것이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재차 휘익 포물신을 그으며 날아간 수류탄, 허나… 또 실패였다.

마지막수류탄마저 그저 빗맞히고말았다. 덜컥 심장이 무너져내렸다.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온 부대가 나를 지켜보고있는데…

문득 팔힘이 약한탓에 수류탄던지기에서 매번 애를 먹던 생각이 났다. 자기의 수류탄던지기기록을 보며 얼굴을 흐리던 분대장의 얼굴도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주춤거리는 사이 분초를 다투는 판정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버렸다.

(안된다, 안돼. 이대로 주저앉을순 없다!)

학철은 가시철조망으로 빙 둘러막힌 영구화점을 훑어지게 쏘아보았다.

심장이,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부릅뜬 눈

에선 시퍼런 불이 날았다. 순간 학철은 불사신같이 일떠섰다. 성난 사자마냥 무서운 기상으로 화점을 향해 질풍같이 달려갔다. …

몸으로 적화구를 막은 애어린 상등병에 대한 이야기는 곧 온 부대의 화제거리로 되었다. 그의 행동을 목격한 군인들은 물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떠들었다. 더하고 보태진 그 이야기는 시시각각으로 새라새로운 이야기들을 낳았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학철은 표창받으러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분대장은 말없이 목달개를 갈아댄다, 모표를 닦아준다 하며 원심을 썼다. 하지만 학철은 우울한 낯빛으로 말이 없었다.

《동문 표창받는데 기쁘지 않아? 인상이 왜 그래?》

한 구대원이 물었다. 학철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전… 가지 않겠습니다. 전… 공을 세운게 아니라…》

분대장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건 무슨 소리요? 훈련을 전투로 생각하는 그 정신세계가 훌륭하다고 다들 인정했는데… 겸손한건 좋지만 평가를 받을줄도 알아야 해.》

기쁘지 않는가고 묻던 구대원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학철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가로저어보였다.

《난 사실 표창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날에도 수류탄던지기 약해 분대장동지가 개별훈련을 주고 몇시간동안 자책훈련까지 하도록 했지만 난 힘들다구 훈련을 품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판정에서 수류탄을 명중하지 못한것은 실수가 아니라 훈련부족입니다.》

분대장과 구대원들이 학철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솔직히 제가 몸으로 화점을 막은것은 평시에 훈련을 잘하지 못한데 대한 자책감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만일 실전이라면 두발의 수류탄으로 까지 못한 적화점을 몸으로 막는다는것은 불가능할겁니다. 화점에 다가가기도 전에 제가 쓰러지고말겁니다. 실전이였다면 이게 표창받을수 있는겁니까? 그걸 잘 알고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전 병사의 량심에 꺼리는 그런 표창은 받을수 없습니다.》

《학철이, 동문 정말…》

분대장은 학철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 옳게 말했어. 병사는 그래야 해. 자기 량심을 지키는데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이 사실은 가장 강한 인간이야.》

인민군병사는 바로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해. 알겠지?》…

그 눈빛, 그 포옹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이 순간 학철은 자기앞에 그날의 분대장이 다시금 서있는듯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쿵 뛴뛰었다.

학철은 숨넘하고도 벅찬 심정을 안고 천천히 문

가로 다가갔다.

자기자신이 그날의 그 병사로 다시 되돌아간 듯한 심정을 느끼며 힘있게 문을 열었다.

#### 4

명수동골짜기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질통을 지고 목고를 메고 영차영차 기운차게 소리치며 내달리는 사람들...

로반을 썰렁 밀어내는 불도젤들이며 무너진 흙더미를 푹푹 떠넘기는 굴착기바가지들... 무수한 함마머리에선 불꽃이 튀고 삽날에선 번개불이 인다. 마침내 안전지대로 빠져나온 1호굴착기가 발동을 거느라 부르르 몸을 뒸다. 보란듯이 우렁우렁 모지름쓰는 육중한 거물의 우렁찬 동음...

한바탕 목고를 메고 달린 학철은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래를 부르며 웃음을 날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별스레 부러워났다. 실컷 땀을 뺏으면 개운해질듯싶더니 마음은 왜 납덩이를 매단것처럼 무겁기만 할가?

《자, 또 해보자구.》

짜페청년에게 소리치는데 느닷없이 심상훈의 웅글은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국장동지, 오랜만에 나하고 해봅시다.》

환하게 웃는 그 모습에 절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듯싶었다.

《그럼시다.》

발을 번디디고 일어섰다. 활동처럼 휘어드는 목고채! 땀이 흘린 나게 달렸다.

《지배인동무, 발을 맞춰야지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영싸, 영싸.》

성수가 나니 절로 걸음이 빨라졌다. 그 걸음에 맞추어 가락맞게 흔들리는 목고채... 어느새 헉헉 단김을 내뿜으며 달리는 생산갱 젊은족들을 슬쩍 따라잡았다.

《여, 생산! 아무래두 안되겠지. 아직 된장 몇독은 더 먹어야겠어.》

호기있게 웨치는 심상훈의 목소리! 얼굴이 붉게 상기된 고수머리청년도 지지 않고 맞받아웨친다.

《너무 빠가지 마십시오. 아무렴 이팔청춘들이 지배인동지한테 지겠습니까?》

《하, 이것 봐라. 제법 큰소리다. 그럼 어디 한번 경쟁해볼가?》

《합시다!》

저마끔 빨리 달리느라 다리를 부지런히 놀리는 팔이 가판이다. 고수머리패의 가쁜 숨소리가 어느새 뒤를 바투 물었다. 다급해난 학철이 애꿎은 심상훈을 재촉했다.

《지배인동무! 이러단 지겠소.》

《차, 그럴수록 발을 맞춰야지.》

《당장 지게 됐는데 발이구 뭐구... 예라, 모르

겠다.》

앞에서 쭈뼛쭈뼛 뛰는 지배인과 뒤에서 켜걸음을 놓으며 힘껏 밀어주는 국장의 모습이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끝내 학철이네를 따라앞선 고수머리가 엄지손가락을 내밀어보이며 저쪽 앞서간다. 심상훈이 주먹을 흔들어보인다. 와 웃음판이 터진다.

...휴식이 선포되었다. 두사람은 복구된 로반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언제 봉락의 세례를 받았느냐 싶게 새로 닦은 로반은 자로 밀어낸듯 반듯했다.

부드러운 흙우에 점점이 찍혀지는 두줄기 발자국... 심상훈의 안도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말 다행이요. 굴착기두 무사히 빠져나왔겠다, 이젠 한시름 놓게 됐소. 그러니 마음놓고 어서 떠나오, 여기 일은 내가 다 처리할테니.》

학철은 걸음을 멈추고 심각한 눈빛을 그에게 던졌다.

《어떻게 말이요? 기어코 여기서 철수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겠다는 정주동무의 의사대로?》

정주 말이 나오자 심상훈은 다소 랑패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보다보다 저런 고집불통은 처음 보오. 창남동무나 국장동지를 돕는 길은 대형굴착기들을 철수시키는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해서 빨리 석탄을 캐내는거라구 곧장 우기는데 난 도무지 설복해낼 도리가 없구만.》

학철은 그의 얼굴을 정색해서 쳐다보았다.

《지배인동무, 왜 자기가 한정주동무를 납득시킬수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심상훈은 불현듯 긴장해졌다. 학철은 저쪽에서 심옥련이도 자기들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지배인동무, 우리부터가 자기의 량심을 속이는 일을 하고있기때문에 그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킬수 없는거요. 정주동무에게 말해주오, 우리 창남이 문제를 광산사고심의회에 제기하구 대형굴착기들은 모두 안전한 지대로 철수시켜야 한다구.》

학철은 심상훈이 흠칫 놀라며 굳어지는것을 보았다.

《그럼?!...》

《지배인동무, 나나 우리 창남이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은 고맙소.》

하지만 일군들인 우리가 어떻게 당앞에 거짓을 말하구 량심을 속이는 속된 처세를 할수 있겠소. 바로 그런 처세를 젊은이들에게 배워줄수 있는가 말이요. 우린 그럴수 없소.》

학철은 킁킁하게 질린 심상훈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마주보았다.

《지배인동무, 우린 어릴적에 설사 욕을 먹구 종아리를 맞을 일이라구 해도 자기 잘못을 어머니나 아버지앞에는 숨기지 못했소.》

아무것이나 다 솔직하게 말하곤 했소. 그게 부

모와 자식간의 도리구 그래서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 더더욱 깊어지게 되는 리유가 아니겠소?

그런데 우린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곧잘 부르면서 설혹 자기에게 꾸중이 돌아올 일이 생기면 그것을 터놓기를 주저하고 지어는 숨기고있소. 그래서 대를 두고 나라의 재부가 되고 후대들의 자랑이 되어야 할 창조물들이 한두사람의 명예나 한때의 땀때기로 끝나고마는 일도 없지 않는거요. 그래, 이게 과연 옳은 처사겠소?》

학철은 잠시 말을 끊었다. 가슴이 저려움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들이그었다.

《지배인동무, 지금 당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창조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심정으로 해낼것을 요구하고있소. 바로 우리 인민군대가 그렇게 일하고있소.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소? 우리가 해놓은 일이나 창조물들이 무슨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백년, 천년이 지날 때까지 살수 있어서 보증할수 있다는 말이겠소?

아니요.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스스로가 량심의 보증을 해야 한다는 말일거요. 량심의 보증! 이는 오로지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써만이 담보할수 있는 법이요. 시에도 있지 않소?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어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 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하고 말이요. 난 우리가 당을 대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어린애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인생의 초엽에나 말년에나 당앞에 언제나 때묻지 않은 어릴적 마음으로, 거짓을 모르는 아이적 목소리로 모든걸 다 터놓고 그 손을 놓치지 말구 꼭 잡고가야 하오. 그래서 진정한 당의 사랑을 순간두 잃지 말아야 하는거요. 지배인동무, 우리 이걸 명심합시다.》

심상훈은 숨기가 끊어진듯 서있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한정주가 사색이 되어 달려온것은 바로 이때였다.

《국장동지, 그제 무슨 소립니까? 굴착기를 칠수시키다니요?...》

학철은 불길이 황황 이는듯 한 그의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면 안됩니다. 창남인 건디지 못합니다. 국장동진 지금 자기 체면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고있습니다.》

《뭐라구?!》

불현듯 그의 눈앞으로 봉대를 감은 아들의 얼굴이 날아지나갔다. 숨막히는듯 한 아픔에 목이 째며왔다. 절절히 울리는 정주의 목소리!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창남인 몸과 마음에 다같이 무서운 상처를 입습니다. 국장동지에겐 창남이가 그저 아들일지 몰라도 우리엔 탄광의 생산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소대장이구

운명을 함께 하는 동무입니다.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모든걸 맡겨주십시오. 절대로 다른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릴 믿어주십시오.》

한정주는 물기가 그러한 눈으로 목메여 웨쳤다. 외면할길 없는 그 진정이 뜨겁게 마쳐온다.

자기를 애타게 지켜보고있는 심상훈과 심옥련의 눈빛도 보았다. 하지만?!... 학철은 모지름쓰듯 그 모든 눈빛들앞에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되오. 굴착기는 무조건 칠수시켜야 하오!》

순간 한정주의 눈가에 섬찍한 빛이 번뜩이였다. 그는 어금이를 짹 앓다물었다. 정신없이 굴착기쪽으로 달려간다. 잠시후 굴착기가 요란한 시동음을 울리며 몸을 떨었다. 부지불식간에 왈칫 움직여갔다.

그 돌발적이고도 위협적인 기동앞에 학철도 심상훈도 흠칫 놀라 몇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대형 굴착기는 요란한 소리를 토해내며 몸부림치듯 전진해갔다. 온 천지에 그 거대한 소리만이 짹 들어찬듯싶었다. 발을 딛고선 로반이 흔들렸다. 학철은 정주가 어디로 굴착기를 몰아가는지 너무도 잘 알았다. 그는 박토작업을 시작하려는것이였다. 이 순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그를 막아설수 없을것만 같았다.

그 몸부림치는듯 하는 진정과 우애심을 인간으로서의 정령 가로막을수 없는것이였다. 다행스러운듯 한 얼굴로 심상훈이 학철을 한옆으로 이끌었다. 무엇이라고 말했으나 요란스러운 굴착기의 동음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어쩔수 없다고 말하는듯싶었다. 굴착기는 지축을 울리며 계속 완강하고도 무섭게 전진해간다. 이제 잠시후면 굴착기는 박토작업을 시작할것이다. 모두가 눈빛들을 번쩍이며 즐거워하고있다. 손을 휘저으며 뭐라고 소리친다. 저쪽에서는 벌써 대형자동차들이 발동을 건다. 더는 어쩔수 없는 현실의 한순간 가슴속으로 날아지나가는 자포자기의 무력감과 안도감. 하지만 학철은 모진 힘을 내어 자기를 다잡았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짚었다.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흙바를 짓이기며 뿌리며 사정없이 전진해가는 대형굴착기앞으로 서슴없이 치역치역 걸어갔다. 그리고는 굴착기를 마주 향해 떡 버티고섰다. 꾹꾹이 서있었다.

굴착기는 무섭게 다가왔다. 삼시에 눈앞을 짹 막아섰다.

고막이 왕왕 울었다. 발을 댄 지층이 요란스럽게 흔들렸다. 곧추 쳐든 굴착기바가지가 머리우에서 후들후들 떨었다.

《앗!》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학철은 눈앞에 검은 담벽이 막아선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사무치도록 위협적인 이 어마어마한 존재를 기어코 멈춰세워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사람들앞에 모든것을, 나의 잘못을 톡 털어놓고

비판을 받자, 내 아들의 잘못까지도...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박토로 덮어버린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털어놓자,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지만 이제 더 굴착기를 작업시키다가는 또다시 사고를 낼수 있다,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운 다음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거대한 동체가 학철을 가리워버리는듯 한 순간 굴착기는 비명을 토해내며 요란스럽게 찌걱거리며 벗어났다. 굴착기바가지가 머리우에서 아츠럽게 절커덕거렸으나 학철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다만 운전타를 팡 내리치며 피터지게 웨치는 정주의 눈물어린 목소리만을 들었을뿐이었다.

《국장동지이!—》

...

학철을 태운 승용차는 병원으로 달리고있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옆좌석에 탄 심상훈은 생각깊은 얼굴로 줄곧 차창밖만 내다보고있었다.

《무슨 말이든 좀 하오, 지배인동무.》

승용차안에 무겁게 서린 침묵을 깨뜨리며 학철이 입을 열었다. 심상훈은 학철의 옆얼굴을 훑쳐보더니 자기 가방을 열고 한통의 문건을 꺼내 그의 무릎우에 놓았다.

《이건 뭐요?》

《국장동무, 이번 길에 용서를 빌 일이 많습니다.》

《?!》

《첫째로는 앞으로의 생산에서 좀 험하게 해먹자구 탄광능력확장에 관한 문건을 솔직하게 만들지 못한것입니다.》

학철은 가볍게 놀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심상훈의 가책어린 목소리가 차안을 울렸다.

《용서하십시오. 나라가 풍전을 쪼개가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애쓰고있는 때에 난 제 욕심만 차리면서 자금타산안을 푼푼히 잡았습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게 다 탄광을 위한 일이라면서 량심의 가책조차 받지 못한것입니다.》

《지배인동무.》

학철은 가슴이 뜨거워와 나직이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 국장동지 보면서 난 너나 나나 다같이 당앞에 어린애처럼 솔직하고 순진해야 한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 문건을 정확히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두사람은 뜨거워진 눈길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절 욕하고싶겠지요?》

심상훈이 물었다. 학철은 고개를 흔들었다.

《솔직한 마음이 욕을 당하는걸 봤습니까? 나도 이제 자기를 솔직하게 비판하렵니다.》

심상훈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리구 또 한가지, 우리 딸이 국장동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구 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라는게 량심적으로 처신하지 못했다고...

딸의 뭇까지 합쳐 내 용서를 빕니다.》

《지배인동무!》

《국장동무,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두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승용차는 어느덧 병원에 도착했다.

학철은 입원실에 들어섰다.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고있던 처녀가 깊이 머리숙여 인사했다.

울고난듯 물기에 젖은 처녀의 두눈이 초점을 잃은채 허둥지둥하고있었다. 그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학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보였다. 그리고나서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머리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있었다. 학철은 눈곱이 찌릿이 젖어들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불같이 속삭였다.

(창남아, 눈을 뜨렴. 아버지가 왔다.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못난 아버지가 말이다. 그 눈동자가 정말이지 보고싶구나. 5점시험지를 짚으며 얼굴을 붉히던 그 시절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눈동자가 말이다. 인간이 한생을 그 눈동자앞에 부끄럼없이 산다는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걸 너도 뼈저리게 깨달았을테지. 미안하다, 달리는 살수 없는 이 아버지질 부디 이해해다오, 사랑하는 내 아들이아!)

학철은 저도 모르게 눈곱을 찍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살며시 그의 옷자락을 스치는것을 느꼈다. 창남이였다.

아들은 입원실문이 열리는 첫 순간부터 온몸으로 아버지를 느끼고있었던것이다. 만단사연이 담긴 불타는 눈동자가 아버지를 바라보고있었다. 순간 학철은 아들의 눈귀에 고인 맑은 눈물을 보았다. 심장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격렬한 속삭임을 들었다.

《아버지! 잘... 가세요.》

그 순간 학철은 어린시절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금 듣는듯이 느껴졌다.

시험지를 짚던 하얗고 가는 손, 더듬더듬 올리던 순결한 속삭임!

《이 5점은 잘못되었어요. 난... 난 시험을 잘 치지 못했어요.》

눈물이 펴 어릴것만 같은 심정으로 학철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창남아!》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채 오래도록 마주보았다. 그들은 만시름을 잊은채 활짝 웃고있었다.

...

애어린 소년이 하얀 시험지를 머리우에 흔들며 집을 향해 달려오고있었다. 순진하고 애된, 기쁨에 찬 목소리가 소년과 산천을 감싸안고 그냥그냥 울리고있었다.

《아버지—이! 5점을 맞았어요—오!》

# 만아들의 맹세

전 승 일

쇠물이 왜 그리도 붉은가고  
이 용해공에게 묻는다면  
나는 말해주리 그것은 그것은  
용해공의 붉은 피와 같기때문이라고

쇠물이 왜 그리도 뜨거운가고  
이 용해공에게 다시 묻는다면  
나는 심장을 두드리며 대답하리라  
그것은 피눈물의 바다를 헤치고 다시 일어난  
불굴의 이 조국의 뜨거운 열원이기때문이라고

지동치는 강철로의 조작변을  
피줄이 일어서도록 틀어잡은 이 용해공에게

억센 머리 추켜든 조국은  
엄숙한 구령을 치고있지 않는가  
끓이고 또 끓이라  
피같은 이 쇠물을 믿고  
기어이 강성대국승리의 퇴성을 터치리라

반만년민족사의 피터지는 아픔을 눌러딘고  
근엄히 새해의 첫 보폭을 땀 나의 조국이며  
제 시간표대로 온 세상앞에  
그 눈물겨운 승리의 대문을 열어제끼라  
그대의 맨 앞장에는  
그대 크나큰 심장의 붉은 피를 뜨겁게 끓이는  
이 만아들이 폭풍쳐달리고있다

# 들로 나가자

변 혜 영

무연한 별도 흰빛  
높고낮은 산발도 흰빛

밤새 펄펄 내린 흰눈에  
길가의 이름없는 풀마저  
하얗게 소복단장하고...

어이하여 천지가 희였느냐  
어이하여 어이하여  
장군님과 영결하던 그날에 내린 흰눈  
이 강산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 녹지를 앓아  
희고흰 산천이여

마을앞 버드나무 무겁게 머리숙인 가지에 앉아  
피나게 우는 까치야 말해다오  
동구밖 저 길로  
오늘래일 귀한분 오신다고  
고개넘어 초소에 찾아가신다고  
오실 땐 우리 마을도 들리신다고  
깹깹 기쁜 소식 잘도 전하더니...

청천벽력같은 그 비보  
당하고도 정녕 믿어지지 않는 일  
천출위인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는데  
어이하여 하늘은 저리도 푸르고  
이 땅우에 시간은 예대로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이나

동무들아

장군님과 영결하며  
가슴치며 눈물쏟은 우리 분조 동무들아  
정녕 너와 나 우리모두의 심장을 합쳐  
위대한 그이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게 할수는 없단 말이나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서자  
아버지를 너무도 빨리 보낸 죄책감  
농사군 우리에게 제일 무겁게 실렸거니  
이제 어깨가 멍들게 짐을 진들  
우리 마음 가벼워질수 있으랴

동무들아 어서 들로 나가자 새해가 밝았다  
공동구호의 힘찬 호소가  
공동사설의 뜨거운 글줄들이 우리를 부르거니  
어서 들로 나가자 우리모두 함께

저 넓은 벌에 피눈물을 쏟으며  
낮과 밤을 이어온 우리들의 발자국  
어서 저 흰눈우에 뚜렷이 찍어가자  
언제나 남보다 더 무겁게 짐을 지고  
언제나 숫눈길에 첫 자욱 찍어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의 어깨에 실린 천만가지 짐  
우리가 한몫 덜어드리자

동무들아 들로 나가자  
눈물 머금은 땅이 우리를 부른다  
세상 보란듯이 올해농사 또 지어보자

# 시인의 고유한 언어발에 대한 생각

리 수 정

2012년!

맹세로 불타는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답게 이 나  
라 인민이 불사신처럼 일떠선 이 새해!

시인들의 가슴에서 시의 불길이 터지는 이 순간  
문득 메아리쳐 울리는 시의 구절이 있다.

삼천만이며, 그대에게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가슴헤쳐 마음대로 말하련다!

《해방의 오늘》을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  
로》 노래한 혁명시인이 오늘날 우리 시인들이 이  
벽찬 시대를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하는가  
를 지켜보는듯싶다.

이 벽찬 시대를 얼마만큼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  
하는가 하는것은 이 시대에 얼마나 충실하는가 하  
는 문제에 귀착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가진 시인에게 조국과 시대를 안고 불타는 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심장에는 남의 박동을 흉내내며  
따라뛰는 껍질기가 없다.

바로 그 자기의 목소리가 시인의 개성이다.

개성은 남달리 깊은 사색, 독특한 착상을 거쳐  
다름아닌 언어로 표현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그 누구도 모방할수 없는 자기의 얼  
굴,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가지고 문단에 나서  
야 한다.》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는 언어를 많이 가지고있  
을 때 작가는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으며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가진 작가  
만이 개성적인 작가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은 결국 작가의 생명-개  
성을 담보한다. 시인에게서는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  
을 가지는것이 더욱 사활적이다.

소설가가 수천수만개의 어휘를 동원하여 밝히려  
는 생활의 진리, 시대의 본질을 시인은 단 몇십,  
몇백개의 어휘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긴다.

시인이이라면 한편의 시에 작아도 우주를 비껴나는  
구슬처럼 시대가 안겨오고 시인의 목소리가 느  
껴지는 시어들을 적중하게 박아쏘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시어들은 그 어떤 령감을 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펜끝에서 불쑥 솟아나는것이 아니  
다. 그것은 시인이 부지런한 실농군이 되어 품들  
여 가꾼 언어발에서만 태어날수 있다.

언어는 작가들 누구에게나 차려진 공동의 수단  
이지만 어떻게 품들여 가꾸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을 풍긴다.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어떻게 마련해나가겠는가?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마련해나가자면 새로운  
시어들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서로 같은 대상에서 받은 동일한 느낌이라고 하  
더라도 그것을 감득하는 시인의 개성적인 성격  
에 따라 서로 차이나게 되며 또 달리 표현된다. 때  
문에 그 세밀한 느낌정도를 나타내자면 이미 기성  
화된 시어들로써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서사시 《백두산》을 지은  
조기천은 자기 문체를 가진 재능있는 시인이라고  
할수 있다고, 그가 쓴 시적표현은 매우 독특하고  
기발한것이기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모방할수 없다  
고 가르치시였다.

시인 조기천이 남과 구별되는 언어형상을 창조  
할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가 다름아닌 새로운 시어  
들을 독특하게 창조하였기때문이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머리시만 놓고보더  
라도 머리시에 리용된 200여개의 시어들중 십  
여개의 시어가 시인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말  
들이다. 이것은 시인이 거의 10%에 달하는 시어들  
을 자기의 독특한 감정세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  
하여 새롭게 창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시인 조기천은 새로운 시어를 중시하였다.

새롭게 그러나 그 의미가 뚜렷하면서도 인츰 안  
겨오게 썼기때문에 그의 시는 오늘날도 독특하고도  
새로운 풍격을 잃지 않고있다.

시인이 새로운 시어를 만든 방법은 다양하다.

《파몰아치던》, 《치뚫으고》, 《떠받으며》,  
《내어뻗치고》, 《뒤집어떨치는》 등과 같이 대  
상에 대하여 받은 2~3가지 느낌을 한개의 단어에  
집약하여 표현하는것은 새로운 시어를 만드는데서  
활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예하면 《파몰아치다》와 같이 《몰아치다》  
라는 단어에 《세차고 모질다》는 정서적색갈을  
가진 《파》라는 앞불이를 붙임으로써 몰아치는  
세기의 정도를 더욱 강조하였다.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에서 《한가슴》,  
《천년 이끼오른 바위를 버루돌 삼아》에서 《천  
년 이끼》, 《그 무엇 처부시런듯 톱을 들어》에  
서 《톱》과 같이 말마디를 생략해내는 방법,  
《바위 호을로 솟아》에서 《호을로》처럼 말마디  
를 늘이는 방법을 써서 새로운 시어를 만들었다.

이것은 시인이 시어에서 생기는 감각과 그 효과를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지금 창작되는 시작품들속에서 감각적이고 독특한 시어로 눈길을 끄는 작품이 적다고 생각한다.

바다, 밀림 등 대자연을 시적대상으로 삼은 시에서도 시어형상은 구태의연하다.

시적발견도 독특하고 감정도 나무랄데 없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것을 보다 새로운 시어들로 노래하였다면 더없이 훌륭하지 않겠는가.

어느 한 시인의 일화가 떠오른다.

언제인가 그 시인은 아침부터 저물녘까지 대동강가에 앉아있었다. 엿그제 좋은 시상을 잡았다고 흥분해하던 그가 하루종일 점도록 앉아있으니 이상하여 다른 시인이 물었다.

《초고를 쓰지 못했나?》

《썼네.》

《그런데 왜?》

《대동강의 물결소리를 쓴 대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네.》

시인은 작품에서 단 한행을 이루는 대동강물결소리를 시상의 요구와 자기의 감각에 꼭맞게 표현하고 싶어 모대기고있었던 것이다.

철썽철썽, 출렁출렁, 처절썽처절썽, 출썽출썽, 출러덩출러덩... 무수한 시어가 떠올랐으나 시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부정해버리고있었다.

어릴적의 대동강에 대한 추억을 표현하려고 애쓰던 시인은 끝내 《초자잘썽 초자잘썽》하는 시어를 찾아냈다.

새로운 시어란 무엇인가.

대상과 정황, 서정적주인공의 감정, 작품의 전반양상에 꼭 들어맞는 시어, 섬세하고 예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어,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시인의 감정이 개성적으로 표현되는 시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시어들이 많이 준비된 시인만이 자기 고유의 언어발을 확립했다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마련해나가자면 생활체험을 깊이있게, 진실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개성적인것이 가장 멀리하여야 할 류사성은 구체적인 체험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표상을 그대로 옮겨놓는데서 곰팡이처럼 생겨난다.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은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세계를 시인에게 안겨준다. 다시말하여 작가가 어떤 생활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는것은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이다.

창작적개성은 모든 작가들에게 다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리한 정치적식견과 독창적인 탐구정신, 풍부한 생활체험, 높은 예술적자질을 갖춘 작가에게만 있을수 있다.

여기서 풍부한 생활체험은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안반침해주고 품안아 꽃피

우는 토양이라고 할수 있다.

풍부한 생활체험속에서만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도 생겨날수 있다.

왜냐하면 시인들이 깊이 파악하고 오래동안 체험한 생활 그자체가 서로 다른 폭과 깊이, 색깔과 음향을 가진것으로 하여 그것을 형상한 시작품들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태어날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특히 시인이 한 생활분야에 대한 오래동안의 체험을 거친다면 그 생활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그 생활분야를 반영하고있는 언어를 소유하게 되며 그것은 시인이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는것이다.

우리 문단에는 병사시인, 농민시인, 광부시인, 교육자시인 등으로 불리워지는 시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인들이 가지고있는 생활발을 이르는 말이다.

뿐만아니라 자기의 뚜렷한 생활발을 가진 시인은 생활발이 안겨주는 자기 고유의 언어발도 가지게 되는것이다.

어느 한 로병시인의 작품들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그의 시에서 가장 많이 쓰인 시어들은 다음과 같다.

《결전장》, 《탄알》, 《창격전》, 《불먼지》, 《타끓는》, 《가렬한》, 《원썽격멸》, 《불벼락》, 《총창》, 《섬멸》, 《서슴없이》, 《불뿔》, 《불구멍》, 《피로써》, 《혈전장》, 《목숨으로》, 《총검》, 《멸적》, 《결단코》, 《피타는》, 《번쩍임》...

여러 시들에서 반복적으로 쓰인 시어들을 선택하여 골라놓고보아도 그의 시들에서 뿔어져나오는 멸적의 기상을 느낄수 있다.

로병시인이 쓴 작품들에 달아온 총알처럼 박혀있는 우와 같은 시어들은 조국을 위하여 가렬치절한 싸움터를 달려본 시인만이 집중적으로 활용할수 있는것들이다.

다시말하여 이러한 시어들은 조국을 위하여 피를 서슴없이 바치며 결전장을 헤쳐온 로병시인의 심장이 낳은 언어라고 말할수 있다.

진지한 생활체험이 낳은 시어에 대하여 농촌생활을 소재로 하여 인상깊은 시들을 많이 창작한 한 시인의 작품을 놓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어찌나 생팡스런 물이과대  
모르게 당두하면 어떻게 한담  
물마중도 쓰게 못하면  
조합체면은 무엇이 된담》

밤도 이숙해 마을은 곤히 자는데  
칠보령감만 홀로 나와 뚝에 앉았다  
《물이 오면 달려가 종을 때리지》

별이 쨍쨍하면 오히려 마음 흐리던



지난 세월 더듬으며 엽초를 말며  
 석달열흘 가물어도 근심걱정 없어질  
 오는 세월 그리며 엽초를 말며

그러다가 령감님은 말뚝잠이 들었다  
 머리엿은 달빛이 하도 고와서  
 구수한 흙냄새에 그만 취해서  
 귀전을 스치는 거센 흐름소리에  
 놀래여 선잠에서 깨어났을 땐  
 자정이 넘고 삼경도 지날무렵  
 그러나 수로에 물은 안 오고  
 가까운 서해에서 파도만 쉼- 쉼-

희속희속 동트는 새벽하늘을  
 이따금씩 바라보며 엽초를 또 말며  
 몹시나 몹시나 초조한 마음  
 《어찌된셈일가 여태 안 오니》  
 수로가 2천리도 넘는다는 사실을  
 아마도 령감님은 모르시나와  
 물살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하루에야 이 끝까지 어찌 다 올라

[서정시 《덕치마을에서》(2)]

농촌생활고유의 정서를 자아내는 《조합체면》,  
 《엽초》, 《말뚝잠》, 《구수한》, 《흙냄새》,  
 《가물》과 같은 시어들은 그만두고라도 시인이  
 생활체험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것은 《이속  
 해》, 《희속희속》이라는 두 시어만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밤도 이속해 마을은 곤히 자는데》에서 《이  
 속해》라는 단어는 밤이 오면 도시와 달리 그 정

도가 더욱 깊어보이는 농촌생활에 꼭 어울리는 말  
 이다. 때문에 이 시어는 《깊다》, 《깊어간다》  
 라는 말과 바꿀수 없는것이다.

또한 《희속희속 동트는 새벽하늘》에서 《희속  
 희속》이라는 시어 역시 바다에서와 같이 동트는  
 순간이 장쾌하거나 하는 멋이 없이 드넓은 대  
 지에 푸름푸름 밝아오는 농촌의 아침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더우기 물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 그러  
 면서도 기쁜 심정을 노래한다고 하여 시인은 시  
 어선택에서 《환희롭게 동트는》, 《눈부시게 동  
 트는》의 식으로 고정격식화된 말마디를 반복  
 하지 않고 생활이 안겨주는 감각적인 시어를 선  
 택한것이다.

이것은 생활의 음향, 생활의 정서에 대한 깊은  
 탐구속에서만 가능한것이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것이다.

부단히 찾고 부지런히 쓸 때 즉 자기만의 어휘  
 수첩이 부피두터이 쌓일 때 자기 고유의 언어  
 발을 가졌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언어문제, 이것은 단순히 시의 형식문제가 아니  
 다. 가슴벅찬 시대를 노래한 우리의 시가들의 내  
 용을 담보하여 그 시가들이 더욱 번쩍이게 하  
 고 더욱 랑랑히 울려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게 하  
 는 그 위력에 관한 문제이다.

아울러 시인의 개성을 담보하여 그가 시대앞에,  
 력사앞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하는 중  
 요한 문제이다.

시인들이여, 높아도 낮아도 자기 목소리로!

하여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가지고 개성적이  
 고 독특한 작품들로 위대한 시대, 위대한 력사를  
 노래하는 진정한 가수가 되어야 할것이다.

##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1호 (루계 제771호)

###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인	쇄		주	체	101(2012)년	1월	1일	
발	행		주	체	101(2012)년	1월	5일	

7-16673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